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전략지역심층연구 20-0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이창수 · 박지원 · 송백훈 · 제성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전략지역심층연구
2 0 - 0 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이창수 · 박지원 · 송백훈 · 제성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전략지역심층연구 20-0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인 쇄 2021년 5월 20일
발 행 2021년 5월 26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6140-9 94321
978-89-322-6119-5(세트)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 · 정유 · 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 ·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 · 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5

1. 연구의 배경 ····· 16
2. 선행연구 ····· 18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 22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 27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 28
   가.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 연합' 구상과 경제통합의 태동 ····· 28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에서 관세동맹 작동 개시까지 ····· 30
   다. 단일경제공간 형성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까지 ····· 34
2. EAEU 현황 및 구조 ····· 38
   가. EAEU의 기본원칙 및 기본목표 ····· 38
   나. 회원국 및 옵서버 ····· 39
   다. 실무언어 ····· 39
   라. 주요 기관 ····· 39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 48
   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주요 논의사항 ····· 48
   나. 통합 및 거시경제 ····· 50
   다. 금융 ····· 52
   라. 산업 ····· 54
   마. 무역 ····· 55
   바. 디지털화 ····· 57
   사. 관세 협력 ····· 58

아. 경쟁 및 반독점규제 ····· 60
자. 기술 규제 ····· 62
차. 에너지 및 교통 ····· 64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 66
가. 성과 및 한계 ····· 66
나. 전망 ····· 74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76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 83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 84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 89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 97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 101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13
가. 요약 ····· 113
나.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협력의 큰 방향 ····· 115
다. 정책적 시사점 2: 현재 시장에서의 중점 협력 산업 ····· 117
라. 정책적 시사점 3: 미래지향적 중점 협력 산업 ····· 118
마. 정책적 시사점 4: 한-EAEU FTA ····· 120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 121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 122
2. 연구 결과 ····· 129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34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 139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 141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 141
   나. 협력방안 ····· 148
2. 제조업 부문 ····· 157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 157
   나. 협력방안 ····· 170
3. 의료 · 보건 산업 ····· 179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 179
   나. 협력방안 ····· 190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 19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7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08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 212
   가. 한-EAEU 경제협력 전략 ····· 212
   나. 현재 시장에서의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 ····· 212
   다. 미래 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 ····· 214
   라.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 215

참고문헌 ····· 217

Executive Summary ····· 237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1
표 1-2. 분석체계 ····· 26
표 2-1. EAEU 회원국의 GDP 변화(2015~19년) ····· 68
표 2-2. EAEU 회원국간 상호 무역액 변화(2015~19년) ····· 69
표 2-3. EAEU 회원국과 역외 국가 간 무역액 변화(2015~19년) ····· 69
표 2-4. EAEU 회원국의 육지 면적, 인구, GDP ····· 78
표 2-5. 한국과 EAEU 회원국 간 무역액 변화(2015~19년) ····· 79
표 2-6.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2015~19년) ····· 82
표 3-1.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 90
표 3-2. 러시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 92
표 3-3.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 94
표 3-4.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 95
표 3-5. EAEU 및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FVA의 원천국가 비중과 타이프 1 수직분업 ····· 98
표 3-6. 한국의 대EAEU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 103
표 3-7. 러시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 107
표 3-8.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 109
표 3-9.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 111
표 3-10. 수직분업 분석 요약 표 ····· 115
표 3-11. 한국의 대EAEU 중점 협력 산업 수출의 분해 ····· 119
표 4-1. 국가분류 및 산업분류 ····· 125
표 4-2. 한국의 대EAEU 관세율 ····· 126
표 4-3. EAEU의 대한국 관세율 ····· 127

표 4-4. GDP에 미치는 영향 ····· 130
표 4-5.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 ····· 131
표 4-6. 한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 132
표 4-7. EAEU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표준모형) ····· 134
표 5-1. EAEU의 디지털 어젠더 추진방향 ····· 142
표 5-2.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경제 육성방향 ····· 144
표 5-3. EAEU 가입국의 정보접근성 지표(2017년) ····· 148
표 5-4. 러시아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 ····· 152
표 5-5. Astana Technopolis 경제특구 추진 프로젝트 ····· 153
표 5-6. 벨라루스 하이테크 파크 신규 입주기업과 수출 금액 ····· 154
표 5-7. EAEU 국가별 제조업 평가 ····· 157
표 5-8. EAEU 제조업 생산 총금액 및 세계 비중 ····· 158
표 5-9. 벨라루스의 제조업 생산에서 산업군별 비중 ····· 164
표 5-10. 아르메니아의 산업군별 · 연도별 총생산금액 ····· 168
표 5-11. 러시아 산업단지의 성과지표 ····· 170
표 5-12. IDF의 지원 및 미지원 분야 ····· 172
표 5-13. 일반 세율과 특별투자계약 세율 비교 ····· 173
표 5-14. 러시아 볼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2021. 1 기준) ····· 178
표 5-15. 2020년 국가별 의료시스템 평가 ····· 179
표 5-16.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장 ····· 181
표 5-17. 「러시아 보건 · 의료 증진(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프로그램의 투입예산 ····· 181
표 5-18. 제약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 183
표 5-19.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 186
표 5-20. 벨라루스 보건의료 시장 ····· 188

표 5-21. 벨라루스 제약 시장 ····· 189
표 5-22. 러시아의 외국산 의료용품 정부입찰 금지품목 ····· 194
표 5-23. 벨라루스 내 의료기기 생산 현황 ····· 195
표 5-24. 한국의 대EAEU 의료기기 및 기자재 수출 ····· 196
표 5-25. 한국의 대EAEU 의약품 수출 ····· 197
표 5-26. 한국의 대EAEU 인체용 백신(30020) 수출 ····· 198
표 5-27. 한국의 대EAEU 협력방안 ····· 203

그림 차례

그림 3-1. *r*국 *i*재의 *s*국으로의 수출의 분해 ····· 86
그림 5-1. 러시아 공공부문 IT 클라우드 시장 규모와 성장률 ····· 147
그림 5-2.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2016~19년) ····· 175
그림 5-3. 연도별 의료기기 매출액 및 판매 카테고리 ····· 184
그림 5-4. 카자흐스탄의 의약품 수출입 ····· 187
그림 5-5. 러시아 의료클러스터 내 이스라엘 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조감도 ····· 193
그림 5-6.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희망 형태 ····· 205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권한 ····· 41
글상자 2-2.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의 권한 ····· 42
글상자 2-3.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 44
글상자 2-4.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 46
글상자 2-5. 2011~14년 관세동맹 차원에서 채택된 35개 기술 규제 ····· 62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4-1. GDP에 미치는 영향(표준모형) ····· 13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1. 연구의 배경

2015년 1월 1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참여한 가운데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합의된 또는 단일한 경제정책이 실현되며, 초국적 조정체계가 작동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했다. 이어서 같은 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EAEU는 인구 약 1억 8,000만 명, GDP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탈소비에트 지역의 유일한 경제통합체로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끊임없이 표명해왔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다시 한번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국가적 의제(agenda)로 격상시켰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역시 '신북방정책'을 천명하면서,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신설 등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양 정부가 탈소비에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의 성과는 아직 기대보다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이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대내외 경제 여건 또한 순탄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통상분쟁 및 패권경쟁에 따른 외적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는 장기 경제성장률 하향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 성과를 축적해왔던 한국경제가 보호주의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및 미국과 동시에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도 장기 경제성장률을 제

고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사업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잉유동성의 존재가 이를 시사한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아직은 한국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혁신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여건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개별 탈소비에트 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탈소비에트 지역의 유일한 경제통합체로서 지난 6년간 경제통합을 진전시켜온 EAEU와의 협력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EAEU의 통합과정 및 전략적 가치 평가와 한-EAEU 경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첫째,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에 기초하여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정성분석을 통해 EAEU의 통합과정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EAEU의 전략적 가치를 규정한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정량분석을 통해 세계 시장환경에서 한-EAEU 경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그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큰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나는 한-EA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EAEU 산업협력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제4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정량분석을 시도하고, 제5장에서는 정성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제5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의 경제적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디지

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제조업 부문, 의료 · 보건 산업 부문의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EAEU 통합과정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EAEU 관련 기관 차원에서 수행된 연구와 EAEU와 관련이 없는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EAEU 관련 기관 차원에서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Петросьян *et al.*(2019)의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2019*[1]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성과를 분석한다. 특히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통합 과정을 개관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조약(이하 EAEU 조약)'의 이행 성과, 경제통합 및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에 의해 발간되었기 때문에 주로 성과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2018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의 *5 лет Евразий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юзу*[2]는 2015년 1월 출범 이후 5년간 이루어진 EAEU 차원의 경제통합 성과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에 의해 발간되었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EAEU 통합과정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와 발전 전망 제시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EAEU와 관련이 없는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Dragneva and Wolczuk(2017)의 *The Eurasian Economic Union:*

1) Петросьян *et al.*(2019).

2)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Deals, Rules and the Exercise of Power[3]는 EAEU의 형성 및 발전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AEU는 통합에 대한 회원국들의 특별한 욕구보다는 러시아가 주도한 개별 국가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출범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의무의 최소화와 유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의무의 결핍이 EAEU의 제도적 구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경제통합 심화를 위해서는 이미 채택된 규칙의 존중뿐만 아니라, 규제 및 제도적 현대화 추진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무가 필요하다. 필자들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동기 및 선호와 약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EAEU가 주도국인 러시아의 지역 및 세계전략에서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Valentina Danilovna Kovaleva 외(2018)의 "Eurasian Economic Intergation: Problems and Prospects"[4]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통한 EA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타지키스탄만이 EAEU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에서 EAEU의 입지 강화를 위한 작은 경제적 편익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필자들은 EAEU의 형성 및 발전의 경험 자체가 그것이 탈소비에트 지역의 통합과 회원국들의 경제적 잠재력 성장 및 안정적인 사회 ·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유망한 프로젝트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Andrei Yeliseyeu(2019)의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xpectatio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5]는 EAEU 경제통합의 주요 성과, 실패, 도전을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EAEU의 출범이 러시아 주도의 지역 블록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지나친 하향식 통합 추진이 EAEU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유라시아 통합이 모든 회원국에서 매우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였고, 초국적 관료조직과 회원국 국가기관간 수평적 연계가 EAEU의

3) Dragneva and Wolczuk(2017).

4) Kovaleva *et al.*(2018).

5) Yeliseyeu(2019).

생존 가능성에 기여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EAEU의 한계와 발전 전망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탈소비에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박정호 외(2017)의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6]은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한 한-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 문헌조사, 무역지수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분석, 한-EAEU 회원국의 산업경제력 평가, 한-EAEU 산업협력의 프레임워크와 유망 분야 제시 등을 실시하였다.

박정호 외(2019)의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7]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분석,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정책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원인을 거버넌스 문제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2017)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8]은 EAEU의 투자환경 분석과 한국기업의 EAEU 투자 진출방안 모색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EAEU의 주요 투자정책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개관, 현지 투자환경 분석 및 관련 요인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 평가 등을 수행하여 EAEU 시장 진출전략과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 진출 분야 및 투자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6) 박정호 외(2017a).

7) 박정호 외(2019).

8)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2017).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선행연구와의 차별성</th></tr>
<tr><th>연구 정보 및 연구 목적</th><th>연구 방법</th><th>주요 연구 내용</th></tr>
<tr><td rowspan="3">주요 선행 연구</td><td rowspan="3">1</td><td>과제명: 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td><td rowspan="3">문헌조사, 무역지수 분석</td><td rowspan="3">-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 한 · EAEU 회원국의 산업경제력 평가
- 한 · EAEU 산업협력의 프레임워크와 유망 분야 제시</td></tr>
<tr><td>연구자(연도): 박정호 외(2017)</td></tr>
<tr><td>연구 목적: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 · 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제지</td></tr>
<tr><td rowspan="3">2</td><td>과제명: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td><td rowspan="3">문헌조사, 정성분석</td><td rowspan="3">-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이론모형 제시
-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및 6가지 개선방안 제시</td></tr>
<tr><td>연구자(연도): 박정호 외(2019)</td></tr>
<tr><td>연구 목적: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td></tr>
<tr><td rowspan="3">3</td><td>과제명: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td><td>문헌조사</td><td rowspan="3">- EAEU의 투자정책 및 투자 유치 주요 프로그램 개관
- 현지 투자환경 분석 및 관련 요인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 평가
-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 제안</td></tr>
<tr><td>연구자(연도): 이재영 외(2017)</td><td>설문조사</td></tr>
<tr><td>연구 목적: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 모색</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3">본 연구</td><td>과제명: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 전략</td><td rowspan="3">정성 및 정량 분석의 종합</td><td rowspan="3">-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에 기초하여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 제시: 정성분석을 통해 EAEU 통합과정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EAEU의 전략적 가치 규정, GVC 정량분석을 통해 세계시장환경에서 한-EAEU 경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실현방안 구체화: CGE 정량분석을 통해 한-EA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EAEU 산업협력 중점 분야로서 디지털 경제와 혁신 부문, 제조업 부문, 의료 · 보건 산업 부문 협력방안 도출</td></tr>
<tr><td>연구자(연도): 이창수 외(2021)</td></tr>
<tr><td>연구 목적: 기존의 정성분석을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정량분석을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실현가능성 큰 경제협력 전략 및 방안을 제안</td></tr>
</table>

자료: 저자 작성.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1)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정성분석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GVC 분석, CGE 분석 등 정량분석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현방안을 한-EAEU FTA와 한-EAEU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GVC 분석과 CGE 분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과 EAEU 간 이루어진 경제적 연계성의 강도와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향후 한-EAEU 경제협력 확대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 경제질서에서 국가-산업 간 거래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량분석이 정성분석에 기반한 지역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내용이 기본적으로 박정호 외(2017)와 유사하나, 이와 달리 EAEU 통합과정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EAEU의 전략적 가치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산업협력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EAEU의 수요에 대한 정성분석을 업데이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적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무역지수 분석, 설문조사 등 정량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GVC 분석과 CGE 분석을 사용한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세계산업연관표 자료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을 활용한 GCV 및 CGE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의 국가-산업 간 거래 및 생산 구조를 구체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경제에서 한국과 EAEU 회원국들의 국가-산업 간 연계성과 시장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가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병렬적으로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2) 연구 방법론

물론 많은 연구가 정성분석과 정량분석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과 EAEU가 향후 어떻게 상호 경제협력 체계를 설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치경제학적 또는 경제적 시각에서 미래 비전에 기초하여 협력 방향과 분야를 설정하고 민관 협력하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가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와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모델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유라시아 신시장 개척, 교통 및 물류 루트 다양화,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다변화, 미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9]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對EAEU 관심사항은 물론이고, EAEU의 對한국 수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객관적 실적에 방점을 둔다. 과거 한국과 EAEU 간 경제관계 분석에 기초하여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과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역동성을 부가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EAEU의 공동 노력을 집중하여 일종의 자연적인 무역지대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10]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한국과 EAEU 간에 이루어졌던 과거의 산업별 교역 실적과 향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9) 박정호 외(2017b), p. 2.

10) Wonnacott and Lutz(1989), pp. 59-84; Lorenz(1993), pp. 255-270.

전술한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두 가지 관점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통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통합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성장의 기적에 대한 신고전학파와 수정주의자(revisionist) 간의 논쟁이다. 신고전학파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원인을 기본적으로 시장의 작동(자유시장과 자유무역)과 시장 친화적 정부정책(getting the prices right, picking winners)에서 찾는다. 이와 달리 수정주의자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산업 및 무역정책(governing the market, choosing winners)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시장과 자유무역보다는 시장의 창출과 동태적 비교우위 확보를 강조한다.[11] 이 논쟁의 핵심과 한-EAEU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같다.

사실 두 가지 시각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현실에서의 통합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첫째, 수정주의 또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의 중점 분야를 선정할 때는 양측의 수요뿐만 아니라 기술적 능력, 그리고 세계 시장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2][13] 한국 측에서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상대측도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정성분석은 양측의 수요, 세계 시장환경, 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신고전학파 또는 실증경제학적 시각에 기반을 둘 경우, 객관적으로 과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경제 주체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은 실증분석으로 미

---

11) World Bank(1993); Lall(1994), pp. 643-654.

12) Chang *et al.*(1999); Wade(1990); Amsden(1989); Jones and Sakong(1980).

13) 또한 이 모두를 파악하고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또는 유능한 관료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완적인 또는 경쟁적인 각종 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조정하면서 구조화된 투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간 경쟁 및 과잉설비 투자의 관리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수반될 때 이 정부 지원과 산업 또는 사업에서의 성취도 간의 연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래를 분석할 수 없다는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한-EAEU 경제협력에 적용한다면, 양측 경제주체의 기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VC 분석과 CGE 분석은 한-EAEU 경제협력을 평가할 수도, 전망할 수도 없다. 또한 산업협력의 중점 분야 선정 등 협력방안 구체화 작업에 있어서 정량분석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력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 정량분석은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릴 때, 과거 시장에서의 성과 분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2장과 제5장은 정치경제학적 또는 수정주의 시각에서 EAEU의 전략적 가치를 규정하고 한-EAEU 산업협력 방안을 도출하며, 제3장과 제4장은 실증경제학적 또는 신고전학파의 시각에서 한-EAEU 경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및 한-EAEU 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체계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분석체계와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의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제3장의 GVC 분석을 통해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린다. 첫째, CVC 분석에 의하면 한국-EAEU, 특히 한-러 협력의 시장 성과는 컸지만, 한-중, 한-일, 한-미처럼 아주 긴밀하지는 않았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경제적 성과는 부재했다. 또한 EAEU 통합과정, 그리고 한-EAEU FTA 추진과정에서 EAEU 회원국들은 시장경제 도입과 활용 능력, 세계시장 편입 등에서 제한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의도적인 대규모 통상 및 산업협력보다는 민간-시장 주도 및 정부의 기능적 간섭(functional intervention)[14] 차원에서의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을 제시하

14) World Bank(1993), pp. 1-12. 모든 산업에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정부 간섭으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재정지원, 공공투자, 수입대체 보호 등 특혜를 제공하는 형태의 선별적 정부 간섭(selective intervention)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고자 한다. 정부는 한편으로 중소기업에 투자 및 무역정보 제공의 역할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15]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하에서 세 가지 경제협력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이다. 첫째는 제3장, 둘째는 제5장, 셋째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분석한다.

표 1-2. 분석체계

	내용		관련 장
경제협력 전략	민간-시장 주도 및 정부의 기능적 간섭 차원에서의 한-EAEU 경제협력 전략		제2장, 제3장
경제협력 추진전략	추진전략 1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제3장
	추진전략 2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제5장
	추진전략 3	한-EAEU FTA 추진	제4장, 제5장
경제협력 방안	협력방안 1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	제3장
	협력방안 2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	제5장
	협력방안 3	한-EAEU FTA 추진방안	제4장, 제5장

자료: 저자 작성.

15) 러시아의 세계 시장 수출능력, GVC 등 세계시장 참여도 증진, 한국의 GVC 활용 능력, 한국기업의 러시아 투자 장애요인 등이 대표적인 제약요인이다.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가.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 연합' 구상과 경제통합의 태동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국가간 경제통합체를 창설하려 한 최초의 시도는 1993년 9월 24일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들이 서명한 '경제연합 창설에 대한 조약'[16]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에 이미 참여국의 절반이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17]

'유라시아'라는 용어가 언급된 최초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구상은 1994년 3월 29일 모스크바국립대학교(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에서 있었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A.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연설에서 제기되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탈소비에트 지역의 국제기구인 CIS가 시대의 객관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참여국들의 통합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질적으로 새로운 상호협력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해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8] 또한 그는 단일경제공간 형성과 공동방위 정책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 해결을 위해 초국적 기관들이 새로운 통합체의 기초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그가 제시한 '유라시아 연합'은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지역통합체라 할 수 있다.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합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CIS 회원국 정상들에게 전달하고, 1994년 6월 8일 러시아 일간지 『네자비시마야 가제타(*Nezavisimaya Gazeta*)』에 기고문 「유라시아 국가연합 형성 프로젝트」를 게재했다.[19]

---

16) "Договор о созда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7) "Истор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евраз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Досье"(2014. 5.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8) Шаукенова *et al.* eds.(2019), p. 18.

19)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государст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이러한 구상은 당시에는 CIS의 회원국들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참여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1995년 초부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실현되기 시작했다. 1995년 1월 6일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참여한 '관세동맹에 대한 협정'[20]에 이어, 1월 20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참여한 '관세동맹에 대한 협정'[21]에 서명이 이루어지고, 이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여기에 참여했다. 해당 협정들은 관세동맹 창설의 목적 및 원칙, 메커니즘 및 단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를 계기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구성되는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핵심 국가 그룹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어서 1996년 3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가 참여한 '경제 및 인문 분야 통합 심화에 대한 조약'[22]이 체결되고, 1998년 타지키스탄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 그룹이 확대되었다. 해당 조약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서 각국 정상(대통령), 정부 수반(총리),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최고기관인 '국가간이사회(Interstate Council)', 각국 제1부총리와 CIS 국가간 협력, 경제, 재무 담당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임집행기관인 '통합위원회(Integration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본격적인 진전을 위해 1999년 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관세동맹 및 단일 경제공간에 대한 조약'[23]에 서명했다. 해당 조약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통합의 단계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자

---

20) "'Соглашение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Беларусь' (Заключено в г. Минске 06.01.199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1) "Соглашение стран СНГ от 20.01.1995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2)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Белоруссия,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об углублении интеграци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я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3)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Договор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и Еди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유무역체제의 완전한 실현, 특히 상호 무역에서 관세 및 양적 제한 미적용, 간접세 부과를 위한 통합 시스템 도입,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행정적 · 재정적 및 기타 제한 폐지를 보장하고, 2단계에서는 단일관세영역, 공동관세, 내부 국경에서의 세관 통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관세동맹'을 창설하며, 3단계에서는 공동(내부) 상품시장, 서비스 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형성, 공동경제정책 수행 및 통합 인프라 구축, 단일경제공간의 기능 보장을 위한 참여국들의 법률 조화 완료를 규정하는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한다.[24] 또한 해당 조약에 따라 통합관리기관으로서 '국가간이사회(Interstate Council)', '정부수반이사회(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s)', '통합위원회(Integration Committee)', '의회간위원회(Interparliamentary Committee)'를 두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5개국의 합의는 신속하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더 효율적인 통합 모델을 찾기 위한 탐색과 실습의 시기로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가 먼저 준비된 국가들이 주도하는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다.[25]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에서 관세동맹 작동 개시까지

2000년 5월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는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민스크에서 있었던 '국가간이사회'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경제통합을 위해 더 효율적인 기구를 조직하자고 제안했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EU처럼 새로운 통합체에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명칭에 '유라시아'를 붙이자고 제안했다.[26] 해당 회의

24) МИД России(2015. 7. 30), "О ходе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5) "Евразийцы XXI век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6) "Истор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евраз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Досье"(2014. 5.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의 결정에 따라 각국 정부와 '통합위원회'는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WTO 가입, 외부 관세 국경 형성, 단일 대외경제정책, 공동시장의 관세 · 가격 · 기타 구성요소 설정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할 국제경제기구 형성을 위해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2000년 9월 1일까지 필수적인 문서 및 제안을 준비하게 되었다.[27] 회의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국제경제기구 창설을 통합과정에 "새로운 질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28]

2000년 10월 10일 아스타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형성과정의 효율적 진전을 위해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한 조약'[29]에 서명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통합관리기관으로서 '국가간이사회(Interstate Council)', '통합위원회(Integration Committee)', '의회간총회(Interparliamentary Assembly)',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법원(Court of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AEC 법원)'을 두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과 동시에 단일경제공간의 법적 기반 형성에 관한 작업이 활성화되자 2003년 초부터 그동안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 9월 19일 얄타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한 '단일경제공간 형성에 대한 협정'[30]이 서명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

27) "Реш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т 23 мая 2000 г. N 77 О соз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ов уставных докум ентов и предложений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на базе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Заявление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Договор об учреждени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30)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глашение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 н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보장하는 단일경제공간 창설에 필요한 법적 기반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출범한 유셴코(Viktor A. Yushchenko) 정부가 자국의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2005년 4월 유셴코 대통령은 단일경제공간 창설 계획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이 기구의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지지하지만, 자신의 재정, 관세, 예산 주권의 평가 절하(devaluation)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그는 '단일경제공간 형성에 대한 협정' 참여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규정하는 15개 문서만 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31] 우크라이나는 2007년부터 EU와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 협상을 시작했고, 2008년 2월 5일 WTO에 가입했으며, 2009년 5월 EU 국가들과의 경제통합 발전을 위한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참여국이 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2006년 8월 16일 소치에서 개최된 EAEC 회원국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3개국 차원에서 관세동맹 형성 작업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자국 경제의 준비 정도에 따라 통합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32] 이어서 2007년 10월 6일 두산베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상호 무역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관세동맹과 제3국의 호의적인 무역조건 보장, 경제통합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단일관세영역 창설 및 관세동맹 형성에 대한 조약'[33]과 관세동맹의 기능 및 발전 조건을 보장하는 단일상임조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관세동맹위원회에 대한 조약'[34]에 서명했다.

---

31) Пивовар ed.(2018), pp. 202-203.

32)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4), p. 12.

33) "'Договор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подписан в г. Душанбе 06.10.200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34) "'Договор о 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подписан в г. Душанбе 06.10.2007) (ред. от 09.12.20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이와 함께 탈소비에트 경제통합과 관련한 금융협력도 시작되었다. 2006년 1월 12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국제 금융·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2009년 아르메니아와 타지키스탄, 2010년 벨라루스, 2011년 키르기스스탄이 차례로 참여했다.

2000년 10월 EAEC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던 경제통합의 기폭제가 된 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였다. 통합과정을 주도해온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효율적인 협력 형식에 대한 집중적 탐색과 각국의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 및 국가경제전략 수렴을 위한 모델 개발이 가속화되었다.[35]

2008년 12월 12일 EAEC '국가간이사회' 회의에서 각국 정부 수반들은 '관세동맹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협정'을 채택하고, '관세동맹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문서들을 확정했다.[36] 이어서 2009년 11월 27일 민스크에서 열린 '국가간이사회' 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단일관세영역에서 관세 조정을 보장하는 관세동맹의 관세법을 채택하기 위해 '관세동맹의 관세법에 대한 조약'[37]에 서명했다. 또한 관세동맹의 단일관세, 대외경제활동의 단일상품목록(nomenclature), 단일관세 조정 실현을 위한 기타 국제 문서들을 확정하고,[38] 2010년 7월 1일까지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영역 창설과 작동 개시를 규정한 결정을 채택했다.[39]

2010년 1월 1일 단일관세가 효력을 갖게 되면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

---

35)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4), p. 13.

36) "О 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37) "Договор о Таможенном кодексе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не действует с 01.01.2018 на основ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оговора от 11.04.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38) МИД России(2015. 7. 30), "О ходе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39)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в рамках ЕврАзЭ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아 관세동맹이 형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참여국간 이견으로 인해 관세동맹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지체되었다. 그 결과 푸틴 당시 총리가 벨라루스의 참여 없는 관세동맹 작동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40]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7월 1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2010년 7월 5일 '국가간이사회'가 7월 6일부터 벨라루스를 포함한 관세동맹의 관세법 발효를 규정한 결정을 채택했다.[41] 2011년 7월 1일 내부 국경에서 세관 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단일관세영역 형성이 완료되어 상품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관세동맹이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다. 단일경제공간 형성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까지

관세동맹 다음의 통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이미 2009년 12월 19일 알마티에서 있었던 관세동맹 회원국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단일경제공간 형성에 관한 행동계획에 대한 결정'[42]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2010년 12월 9일 3개국 정상들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단일경제공간 형성에 대한 선언'[43]에 서명했다. 또한 단일경제공간 작동 개시의 기반이 되는 17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이 협정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44]

2011년 11월 18일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유

---

40)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41) "Реш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ЕврАзЭС от 5 июля 2010 г. № 48 "О ходе реали зации второго этапа формирования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в рамках ЕврАзЭС","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5).

42) "О Плане действий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спуб 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4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Декларация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5).

44) МИД России(2015. 7. 30), "О ходе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5).

라시아경제위원회에 대한 조약'[45]에 서명했다. 해당 조약에 따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의 단일상임조정기관으로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전에 EAEC의 '국가간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문제에 관한 전권도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로 이관되었다.

같은 날 있었던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첫 번째 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선언'[46]에 서명했다. 이 선언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통합의 다음 단계인 단일경제공간 작동과 2015년 1월 1일까지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는 국제조약들의 비준 완료에 기초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창설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2011년 12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2012년 1월 1일부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는 국제조약들의 발효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47]

2012년 1월 1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단일경제공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국에 대한 단일 무역체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 자본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 및 자연독점 규제의 단일 규칙 및 원칙을 규정하는 통합의 더 높은 단계로서 단일경제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단일경제공간 형성을 통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영토에 1억 7,000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단일시장에서 상품 · 서비스 · 자본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단일경제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 경제의

45)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прекратил действие с 01.01.2015 на основ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оговора от 29.05.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4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Декларация о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47) "С 1 января 2012 года вступят в силу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핵심 부문에서 합의된 행동이 가능해졌다.[48] 이외에도 2012년 1월 1일 EAEC 법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2월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기존 '관세동맹위원회'를 대체하여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의 상임조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2년 초부터 단일경제공간 다음의 통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49] 이와 관련하여 2012~14년 3개국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전문가 7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조약(이하 EAEU 조약)'안 작성을 위한 회의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3개국 대표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회의가 247회 이상 개최되었고, EAEU 조약안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회의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의에서 심의되었다. 법제화(codification) 작업에서는 이전에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차원에서 체결된 96개, EAEC 차원에서 체결된 133개, 문화 · 과학 · 이주 분야 협력에 대한 협정 7개를 포함하여 총 236개 국제조약이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차원에서 체결된 68개 국제조약이 법제화되면서 그중 65개는 EAEU 조약 발효일, 3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관련 결정 채택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차원에서 체결된 28개 국제조약은 독립적인 국제조약으로 유지되었지만, 그중 약 20개는 EAEU 관세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2013년 5~12월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정상급 회의가 세 차례 개최되었고, 9월 25일 아스타나에서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정부 수반급 회의도 최초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4년 3월~12월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정상급 회의가 다섯 차례, 정부 수반급 회의가 두 차례나 개최되었다. 마침내 2014년 5월 29일 아스타나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EAEU 조약[50]에 서명했고, 이후 2014년 10월 초 벨라루스, 카자

48)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4), p. 14.

49) *Ibid.,* p. 20.

50)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 октября 2019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흐스탄, 러시아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약이 발효되는 데 필수적인 국내 절차도 완료되었다.[51] 또한 2014년 10월 10일 민스크에서 있었던 EAEC '국가간이사회' 회의에서 'EAEC 활동 중지에 대한 조약'[52]이 서명되었다. 해당 조약에 따라 EAEC의 활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중지되었지만, 그동안 EAEC 차원에서 체결된 일부 국제조약(조약, 협정, 의정서)과 통합관리기관이 채택한 일부 결정, EAEC 법원의 결정 등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통합과정 참여도 본격화되었다. 2014년 10월 10일 민스크에서 있었던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의에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대한 조약'[53]이 서명되었고, 해당 조약은 2015년 1월 2일 발효되었다. 또한 12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의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EAEU 가입에 대한 조약'[54]이 서명되었고, 2015년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가입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해당 조약의 부속 의정서들이 서명되었다.

2015년 1월 1일 EAEU 조약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으로 EAEU가 창설되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합의된 또는 단일한 정책이 실현되며, 초국적 조정체계가 작동되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다음의 통합단계이다. 이로써 1994년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유라시아연합' 구상을 제시한 이후 약 19년 만에 탈소비에트 지역에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에 이어 마침내 경제연합이 창설되었다.

---

51) МИД России(2015. 7. 30), "О ходе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52) "Договор о прекращ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53) "Договор о присоединении Республики Армения к Договору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4 апреля 2020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54) "Договор о присоединен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 Договору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 октября 2019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 EAEU 현황 및 구조

가. EAEU의 기본원칙 및 기본목표

EAEU 조약 1조에 따르면 EAEU는 회원국의 영토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이 규정한 경제 부문에서 조정, 합의 또는 통일된 정책 수행을 보장한다.[55]

EAEU 조약 3조는 EAEU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회원국의 주권 평등 및 영토적 통합성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널리 인정되는 원칙 존중, 둘째, 회원국의 정치구조 특성 존중, 셋째, 회원국의 호혜적 협력, 국가이익의 평등 및 고려 보장, 넷째, 시장경제 및 공정경쟁의 원칙 준수, 다섯째, 이행기 종료 후 예외 및 제한 없는 관세동맹 작동. 또한 4조는 EAEU의 기본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회원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 조건 조성, 둘째, EAEU 차원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자원의 단일시장 형성 추진, 셋째, 글로벌 경제의 조건에서 국가 경제의 전면적 현대화와 협업 및 경쟁력 제고. EAEU 조약 5조에 따르면 EAEU는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이 설정한 범위 및 규모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회원국들은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이 설정한 범위 및 규모에서 조화 또는 합의된 정책을 실현한다. 또한 경제의 기타 영역에서 회원국들은 EAEU의 기본원칙 및 기본목표에 따라 조화 또는 합의된 정책 실현을 추진한다.[56]

---

55)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56) *Ibid.*

나. 회원국 및 옵서버

2020년 12월 현재 EAEU의 회원국은 2014년 5월 29일 아스타나에서 EAEU 조약에 서명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이 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EAEU 출범 이후인 2015년 1월 2일 회원국이 된 아르메니아, 2015년 8월 12일 회원국이 된 키르기스스탄으로 총 5개국이다. 또한 EAEU의 옵서버는 2017년 4월 14일 옵서버가 된 몰도바, 2020년 12월 11일 옵서버가 된 우즈베키스탄과 쿠바로 총 3개국이다.

매년 러시아어 알파벳 순으로 의장국이 순환되는데, 참고로 2015년 벨라루스, 2016년 카자흐스탄, 2017년 키르기스스탄, 2018년 러시아, 2019년 아르메니아, 2020년 벨라루스, 2021년 카자흐스탄 순이다.

다. 실무언어

EAEU 조약 110조에 따르면, EAEU의 실무언어는 러시아어이다.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EAEU 차원의 국제조약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결정은 러시아어로 채택된다. 만일 그것이 회원국의 법률로 규정될 경우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각 회원국의 국어 번역본도 함께 채택된다. 하지만 국제조약 및 결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러시아어본을 이용한다.[57]

라. 주요 기관

EAEU의 기관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57)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Commission)', 'EAEU 법원(Court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으로 구성된다.[58]

1)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2011년 11월 18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의 최고기관으로 설립되었던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후신으로서 EAEU의 최고기관이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회원국 정상 또는 자국 법률에 따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국 정부 수반들로 구성된다.[59] 2020년 12월 현재 파쉬냔(Nikol V.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60] 루카셴코(Alexander G.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토카예프(Kassym-Jomart K.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겸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명예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10월 제엔베코프(Sooronbay S. Jeenbekov) 대통령의 사임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자리는 비어 있다.[61]

회의는 연 1회 이상 진행되고, 회원국 또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EAEU 활동의 긴급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비정기회의도 소집될 수 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조직하며, 심의에 제출된 문제들의 준비를 총괄한다. 매년 러시아어 알파벳 순으로 순환하는 의장국의 정상이 의장을 맡는다. 의장의 초청에 따라 회의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이사,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기타 초청 인사도 참석할 수 있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

58)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59) "'Протокол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Подписан в г. Москве 15.03.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60) 아르메니아는 2018년 4월 9일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된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61)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는 EAEU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의하고, 통합발전의 전략, 지향, 전망을 규정하며, EAEU 목표 실현을 위한 결정을 채택한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합의로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하되, 회원국의 회원자격 종료에 관한 결정은 '회원자격 종료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의 투표를 제외한 합의' 원칙에 따라 채택된다.

글상자 2-1.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권한

① EAEU 형성 및 발전 전략, 지향, 전망 규정, EAEU 목표 실현을 위한 결정 채택
②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확정, 위원간의 업무분장, 위원의 권한 종료
③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임명과 그 권한의 조기 종료에 대한 결정 채택
④ 회원국의 추천에 따라 'EAEU 법원' 판사 임명
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활동 규칙 확정
⑥ EAEU 예산안, EAEU 예산에 대한 규정, EAEU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 확정
⑦ EAEU 예산에 대한 회원국의 분담금 규모 규정
⑧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문제 심의
⑨ '유라시아정부간위원회' 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결정 채택 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 심의
⑩ 'EAEU 법원'에 문의
⑪ 'EAEU 법원' 판사,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가족의 소득, 자산, 자산적 성격의 의무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및 완전성 확인 방식 확정
⑫ EAEU의 새로운 회원 가입 및 회원자격 종료 방식 규정
⑬ 옵서버 지위 또는 EAEU 가입 후보국 지위 제공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채택
⑭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국제협력 실현 방식 확정
⑮ 제3국과 EAEU의 국제조약 체결 및 협상 수행 권리 부여를 포함한 제3국과의 협상, 제3국과의 국제조약 의무에 대한 EAEU의 동의 표현과 국제조약의 종료, 중지 또는 탈퇴에 대한 결정 채택
⑯ EAEU 기관의 총 정원, EAEU 기관에서 경쟁적 기반 아래 회원국의 추천에 따라 보내지는 회원국 국민의 수 중 공무원의 대표성 한도 확정
⑰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EAEU 법원' 판사, EAEU 기관들의 공무원 및 직원의 보수 규정 확정
⑱ EAEU 기관들의 외부 감사(통제)에 대한 규정 확정
⑲ EAEU 기관들의 외부 감사(통제) 결과 심의
⑳ EAEU 상징 확정
㉑ '유라시아정부간위원회'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지시
㉒ 관련 분야 부속기관 설립에 대한 결정 채택
㉓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이 규정한 기타 권한 실현

자료: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는 회원국 정부 수반(총리)들로 구성된다. 2020년 12월 현재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 골롭첸코(Roman A. Golovchenko) 벨라루스 총리, 마민(Askar U. Mamin) 카자흐스탄 총리, 노비코프(Artyom Eduardovich Novikov) 키르기스스탄 총리 권한대행 겸 제1부총리, 미슈스틴(Mikhail V. Mishustin) 러시아 총리로 구성되어 있다.[62]

회의는 필요에 따라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된다. 회원국 또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EAEU 활동의 긴급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비정기회의도 소집될 수 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조직하며, 심의에 제출된 문제의 준비를 총괄한다. 매년 러시아어 알파벳 순으로 순환하는 의장국의 정부 수반이 의장을 맡는다. 의장의 초청에 따라 회의에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이사,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기타 초청 인사도 참석할 수 있다. '유라시아 정부 간 위원회'는 합의로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한다.

글상자 2-2.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의 권한

① EAEU 조약,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결정의 이행과 통제 보장
②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채택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 심의
③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대한 지시
④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이사 및 집행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⑤ EAEU 예산안, EAEU 예산에 대한 규정, EAEU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 승인
⑥ EAEU 기관들의 재정·경제활동 조사에 대한 규정과 해당 조사의 기준 및 방법론 확정, 해당 조사에 대한 결정 채택, 그 수행 기간 규정
⑦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문제 심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것을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심의에 제출
⑧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결정의 효력 중단에 대한 결정 채택
⑨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공무원, 직원과 그 가족의 소득, 자산, 자산적 성격의 의무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및 완전성 확인 방식 확정
⑩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이 규정한 기타 권한 실현

자료: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62)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3)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EAEU의 상임조정기관이고, 이사회(Council)와 집행위원회(Board)로 구성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본과제는 EAEU의 작동 및 발전 조건 보장과 EAEU 차원 경제통합 영역의 제안 도출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이 규정한 권한 범위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규제, 세관 규제, 기술 규제, 위생 · 수의 · 식물위생 조치, 관세 수입 등록 및 분배, 제3국에 대한 무역체제 설정, 대외 및 상호 무역 통계, 거시경제정책, 경쟁정책, 산업 및 농업 보조금, 에너지 정책, 자연독점, 국가 및(또는) 지방 조달, 상호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교통 및 운송, 통화정책, 지적재산, 노동 이주, 금융시장(은행 영역, 보험 영역, 외환시장, 증권시장),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이 규정한 기타 분야에서의 활동을 실현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소재지는 모스크바이다.

가) 이사회

이사회는 EAEU 통합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활동을 총괄하며, 각 회원국의 정부 부수반(부총리)으로 구성된다. 2020년 12월 현재 그리고랸(Mger G. Grigoryan) 아르메니아 부총리, 페트리셴코(Igor V. Petrishenko) 벨라루스 부총리, 스마일로프(Alikhan A. Smailov)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노비코프 총리 권한대행 겸 제1부총리, 오베르추크(Alexey L.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로 구성되어 있다.[63] 매년 러시아어 알파벳 순으로 순환하는 의장국의 정부 부수반이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합의로 결정, 명령, 권고를 채택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제는 이사회 이사의 제안에 따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또는 '유라시아 정부간 이사회'의 심의에 전달된다.

---

63)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글상자 2-3.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① EAEU 활동의 법적 조정 개선에 관한 활동 조직
② EAEU 차원에서 통합의 기본 지향점을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확정을 위해 제출
③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의 취소 또는 그것의 변경에 대한 문제 심의
④ EAEU의 법률에 속하는 국제조약들의 이행 모니터링 및 통제 결과 심의
⑤ 규제영향평가 절차 수행 모니터링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심의에 제출
⑥ 집행위원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부처 목록, 그 구성 및 정원, 집행위원회 위원간 배분 확정
⑦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요건 확정
⑧ ‘EAEU에서 사회보장, 특권, 면제에 대한 규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직원의 특권 및 면제 취소에 대한 결정 채택
⑨ EAEU 예산안 승인
⑩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무원 및 직원의 보수 규정 승인
⑪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부처들의 총 제한 정원 승인
⑫ EAEU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관한 계획 확정
⑬ EAEU 조약이 규정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부처들에 회원국 국민의 고용에 대한 권리 준수 보장을 위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산하 윤리위원회 구성 및 그것에 대한 규정 확정
⑭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지시
⑮ EAEU 조약,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 규칙에 따른 기타 기능 및 권한 실현

자료: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나)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원국의 동등한 대표성 원칙에 따라 회원국 대표인 의장을 포함한 위원(장관)들로 구성된다. 2020년 12월 현재 먀스니코비치(Mikhail V. Myasnikovich) 의장(벨라루스 출신), 글라지예프(Sergey Yu. Glazyev) 통합·거시경제 위원(러시아 출신), 자크실리코프(Timur M. Zhaksylykov) 경제·금융정책 위원(카자흐스탄 출신), 카말랸(Artak K. Kamalyan) 산업·농업 위원(아르메니아 출신), 슬레프네프(Andrey A. Slepnev) 무역 위원(러시아 출신), 나자렌코(Viktor V. Nazarenko) 기술규제 위원(벨라루스 출신), 판크라토프(Oleg M. Pankratov) 관세협력 위원(키르기스스탄 출신), 카이키예프(Emil A. Kaykiev) 에너지·인프라 위원(키르기스스탄 출신), 샤크칼리예프(Arman A. Shakkaliev) 경쟁·반독점규제 위원(카자

흐스탄 출신), 바르다냔(Gegam L. Vardanyan) 내부시장 · 정보화 ·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 위원(아르메니아 출신)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64)

집행위원회의 수적 구성 및 위원간 업무분장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에 의해 규정되고, 위원들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각 부처를 관할한다.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을 포함하여 총 26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사무국, 의전 · 조직지원부, 재정부, 법률부, 행정부를 포함한 5개 부처를 관할한다. 통합 · 거시경제 위원(장관)은 거시경제정책부, 통계부, 통합발전부를 포함한 3개 부처, 경제 · 금융정책 위원(장관)은 금융정책부, 기업활동발전부, 노동이주 · 사회보장부를 포함한 3개 부처, 산업 · 농업 위원(장관)은 산업정책부, 농업정책부를 포함한 2개 부처, 무역 위원(장관)은 관세 · 비관세규제부, 내부시장보호부, 무역정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기술규제 위원(장관)은 기술규제 · 인증부, 위생 · 수의 · 식물위생조치부를 포함한 2개 부처, 관세협력 위원(장관)은 관세법제 · 법집행실무부, 세관인프라부를 포함한 2개 부처, 에너지 · 인프라 위원(장관)은 교통 · 인프라부, 에너지부를 포함한 2개 부처, 경쟁 · 반독점규제 위원(장관)은 반독점규제부, 경쟁정책 · 국가조달정책부를 포함한 2개 부처, 내부시장 · 정보화 ·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 위원(장관)은 정보기술부, 내부시장작동부를 포함한 2개 부처를 관할한다.65)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에 의해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로 임명되고, 의장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에 의해 연임이 불가능한 4년 임기로 회원국의 러시아 알파벳 순으로 순환하면서 임명된다. 집행위원회의 결정, 명령, 권고는 과반수 또는 합의('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가 규정한 목록에 있는 민감한 문제의 경우)에 따라 채택된다.

---

64)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65) *Ibid.*

글상자 2-4.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① EAEU 차원의 통합 영역에서 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된 제안 및 법규 작성 실현(통합의 기본 지향점 작성 및 실현 포함)
② 결정, 명령, 권고 채택
③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및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가 채택한 결정 및 명령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가 채택한 명령 이행
④ EAEU 법률에 속하는 국제조약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의 모니터링 및 통제와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 필요성 통보
⑤ 수행한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의 심의에 제출
⑥ EAEU의 형성, 기능, 발전 문제에 관한 권고 작성
⑦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제출된 회원국들의 제안에 대한 전문가 결론(서면) 준비
⑧ EAEU 법원 제소 전 EAEU 차원의 분쟁 조정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⑨ EAEU 법원을 포함하여 사법체계에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이익 대변 보장
⑩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회원국들의 국가권력 기관과 상호협력 실현
⑪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제출된 문의 검토
⑫ 집행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집행위원회 위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무원 및 직원의 차년도 해외출장 계획 확정
⑬ 집행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자문위원회 심의 후 차년도 학술연구활동계획 승인과 이사회에 해당 계획 통보
⑭ EAEU 예산안 작성 및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안 준비 실현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예산액 이행 보장
⑮ 이사회가 채택하는 국제조약안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안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권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타 문서 작성
⑯ 설정된 방식으로 규제영향평가 절차 수행과 해당 절차 수행 모니터링에 대한 연례보고서 준비 보장
⑰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EAEU 조약에 따라 설립된 부속기관 회의 수행 보장
⑱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공무원 및 직원의 특권 및 면제 취소에 대한 제안을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의 심의에 제출
⑲ 이사회가 확정한 방식으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를 위한 상품 공급,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문 및 계약 체결
⑳ 이사회가 확정한 제한 배포 문서(기밀, 업무용) 작업 방식 준수 보장

자료: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4) ‘EAEU 법원’

‘EAEU 법원’은 EAEU의 상임사법기관이다. 지위, 구성, 권한, 작동 및 형성 방식은 ‘EAEU 법원 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해당 법원의 활동 목표는 회원국

및 EAEU 기관에 의한 EAEU 조약, EAEU 차원의 국제조약, EAEU와 제3국간의 국제조약, EAEU 기관 결정의 균일한 적용 보장이다.

'EAEU 법원'은 각 회원국이 추천한 2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다(원장 및 부원장 임기는 3년). 2020년 12월 현재 바이셰프(Zholymbet N. Baishev) 원장(카자흐스탄 출신), 아이리얀(Erna V. Ayriyan) 부원장(아르메니아 출신), 아지브라이모바(Ayzhamal M. Azhibraimova) 판사(키르기스스탄 출신), 콜로스(Denis G. Kolos) 판사(벨라루스 출신), 네샤타예바(Tatiana N. Neshataeva) 판사(러시아 출신), 세이티모바(Venera K. Seitimova) 판사(카자흐스탄 출신), 스크리프키나(Galina A. Skripkina) 판사(키르기스스탄 출신), 투마냔(Armen E. Tumanyan) 판사(아르메니아 출신), 페도르초프(Alekandr A. Fedortsov) 판사(벨라루스 출신), 차이카(Konstantin L. Chaika) 판사(러시아 출신)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66]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해당 법원은 회원국 또는 경제주체의 제소에 따라 EAEU 조약, EAEU 차원의 국제조약, EAEU 기관의 결정 실현 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심리한다. 또한 회원국의 제소에 의한 분쟁 심리 결과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리고, 경제주체의 제소에 의한 분쟁 심리 결과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린다.[67] 해당 법원은 대재판부, 재판부, 항소재판부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한다. 'EAEU 법원'의 소재지는 민스크이다.

---

66) "О Суде/Судь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67)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4), p. 24.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주요 논의사항

EAEU의 최고기관인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EAEU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의하고, 통합발전의 전략, 지향, 전망을 규정하며, EAEU 목표 실현을 위한 결정을 채택한다. 따라서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검토는 EAEU 경제통합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 2~3회 개최되었다. 또한 회의 없이 결정만 채택한 경우도 있다.

2015년 5월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EAEU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은 '키르기스스탄의 EAEU 조약 가입과 관련하여, EAEU 조약 및 EAEU 법률에 속하는 개별 국제조약들의 개정에 대한 의정서', '아르메니아의 키르기스스탄의 EAEU 조약 가입 조약 참여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EAEU 및 그 회원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결정', '중국과의 무역 · 경제협력협정 협상 개시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같은 날 있었던 러중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EAEU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연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68]에 서명했다.

2015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이 되면서 2015년 10월 16일 카자흐스탄의 부라바이에서 열린 회의에는 아탐바예프(Almazbek S. Atambay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포함한 5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정상들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EAEU의 새로운 회원 가입 및 회원자격 종료 방식에 대한 결정',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지대협정 체결 협상 개

6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 сопряж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яс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시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2015년 12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위원간 업무 분장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하고, 'EAEU 회원국에서 2020년도 인구센서스 수행에 대한 명령' 등을 내렸다. 또한 정상들은 201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와 EU 간 자유무역지대 협정 발효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EAEU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5월 31일 아스타나에서 있었던 회의에서는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EAEU 및 그 회원국들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한 결정', '세르비아와의 EAEU 및 회원국과 세르비아의 무역체제 통일 협상 개시에 대한 결정' 등과 공동시장과 관련하여 'EAEU 가스 공동시장 형성 개념에 대한 결정', 'EAEU 석유·석유제품 공동시장 형성 개념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2016년 12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외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인도, 이란, 싱가포르, 이집트와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인도와의 자유무역지대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대한 결정', '이란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임시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대한 결정',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대한 결정', '이집트와의 자유무역지대협정 체결 협상 개시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또한 공동정책 및 공동시장과 관련하여 'EAEU 회원국들의 조화(합의)된 교통정책 실현 기본 지향 및 단계에 대한 결정', 'EAEU 공동전력시장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EAEU 디지털 의제 형성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같은 날 회원국 정상들은 새로운 관세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 2009년 11월 27일에 채택되고 2010년 7월 6일부터 발효된 '관세동맹 관세법'을 대체하는 'EAEU 관세법'을 부록으로 포함한 'EAEU 관세법에 대한 조약'에 2017년 4월 11일 서명했다. 해당 조약은 2017년 12월 30일 모든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2017년 4월 14일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도돈(Igor Dodon) 몰도

바 대통령도 참여한 가운데, ‘몰도바의 옵서버 국가 지위 부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다음 해인 2018년 5월 14일 소치에서 열린 회의에서 ‘EAEU 옵서버 국가 지위 규정에 대한 결정’, ‘몰도바에 EAEU 옵서버 국가 지위 부여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몰도바에 대한 옵서버 지위 부여가 완료되었다.

2017년 10월 11일 소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정상들은 2017년 4월 11일 서명한 ‘EAEU 관세법에 대한 조약’의 신속한 국내 비준 절차 완료에 합의하고, ‘2025년까지 EAEU 디지털 의제 실현 기본지향에 대한 결정’ 등을 채택했다.

2018년 12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상들은 ‘EAEU 차원에서 통합과정의 향후 발전에 대한 선언’에 서명하고, ‘EAEU 차원에서 통합과정의 향후 발전에 대한 선언 실현 조치 명령’을 채택했다. 또한 공동시장과 관련하여 ‘EAEU 가스 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결정’, ‘EAEU 석유 · 석유제품 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결정’, 중국, 이란과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EAEU 및 그 회원국들과 중국 간 무역 · 경제협력협정 발효에 대한 결정’, ‘EAEU 및 그 회원국들과 이란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임시협정 발효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

나. 통합 및 거시경제

EAEU는 오늘날 세계에서 EU 다음으로 높은 통합 수준에 있는 통합체 중 하나로서 통합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충분한 초국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야, 다시 말해 의약품 · 의료기기 공동시장 형성, 기술 규제 및 위생 · 수의학적 조치 적용, 무역정책 분야 등에서 상호협력 발전의 기반이 형성되었다.[69]

둘째,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및 옵서버 지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확정되었

69)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48.

다. 2015년 10월 16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EAEU의 새로운 회원 가입 및 회원자격 종료 방식에 대한 결정'[70]을 채택했다. 해당 결정에 따르면, 가입에 관심이 있는 국가가 회원국이 되어 EAEU 법률을 구성하는 국제조약 및 문서에 따른 의무를 수용할 의사를 언급한 신청서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면,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가 해당 국가와의 국제조약 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또한 2018년 5월 14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가 'EAEU 옵서버 국가 지위 규정에 대한 결정',[71] '몰도바에 EAEU 옵서버 지위 제공에 대한 결정'[72]을 채택하면서 몰도바가 첫 번째 옵서버가 되었다. 옵서버 지위를 가진 국가의 대표들은 결정 채택에 참여할 권리는 없지만 EAEU 기관들의 회의에 참여하고, EAEU 기관들에 의해 채택된 기밀이 아닌 문서들을 받아볼 수 있다.

셋째, 통합과정의 향후 발전 지향이 제시되었다. 2018년 12월 6일 5개국 정상들은 'EAEU 차원에서 통합과정의 향후 발전에 대한 선언'[73]을 채택하면서, EAEU 단일시장의 효율성 보장과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잠재력 실현, '혁신 영역' 형성 및 과학·기술적 도약 자극, 국민들을 위한 통합 잠재력 발휘와 그들의 후생 및 삶의 질 제고,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 및 새로운 상호협력 형식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의 중심 중 하나로서 EAEU 형성을 핵심적 지향으로 규정했다.

넷째,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

---

70) "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в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новых членов и прекращения членства в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1) "О Положении о статусе государства - наблюдателя при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2)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Республике Молдова статуса государства - наблюдателя при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3) "Декларация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амках ЕАЭС от 6 декабря 2018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체계도 마련되었다. 2030년까지의 장기적 계획은 2015년 10월 16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가 승인한 'EAEU 경제발전 기본지향에 대한 결정'[74]에 따라 규정되었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단 · 중기 프로그램 문서들에 명시된 통합적 조치 및 행동을 통해 기본지향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회원국과의 합의에 따라 매년 회원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단 · 중기 과제들을 규정하고, 그 해결 방법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문서인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작성하고 있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EAEU 창설 이전인 2013년부터 매년 4~5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를 시간적 범위로 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을 채택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5월 19일 '2020~21년 EAE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75]을 채택한 바 있다.

다. 금융

금융 분야에서는 첫째, 공동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이 확정되었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회원국 기업 및 국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질, 다양성 제고, 회원국 금융 분야의 성장 보장 및 효율성 제고와 금융시장에서 경쟁 발전을 위해 'EAEU 공동금융시장 형성 개념에 대한 결정'[76]을 채택했다.

둘째, 공동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2020년 9월 3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는 'EAEU 회원국 브로커 및 딜러의 다

---

74)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5) "Об основных ориентирах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на 2020 - 2021 год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6) "О Концеп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го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른 회원국 증권거래소에서 조직된 거래 참여 허용에 대한 협정'안을 승인했다.[77] 해당 협정안에 따르면 회원국의 브로커 및 딜러는 별도의 허가 없이 다른 회원국의 증권거래소에 접근하여 직접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자크실리코프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경제·금융정책 위원은 해당 협정이 '단일증권공간'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78] 또한 공동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2018년 7월 4일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79]가 서명되었다. 해당 문서는 금융시장 발전, 자본시장 발전 및 무역·투자협력, 금융 서비스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에 관한 상호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2019년 8월 9일 양측은 '2019~21년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간 공동조치계획'에 서명했다.[80]

그밖에도 2018년 9월 17일 예레반에서 있었던 'EAEU 회원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자문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EAEU 회원국 중앙(국립)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영역에서 EAEU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EAEU 공동금융시장 창설, 금융 서비스 분야(은행, 보험, 증권시장 서비스) 활동 면허 상호인정, 회원국 금융시장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법률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81]

---

77) "ЕЭК одобрила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м допуске странами ЕАЭС к торгам брокеров и дилеров"(2020. 9.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8)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Тимур Жаксылыков: «Реализация Соглашения о допуске брокеров и дилеров к участию в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торгах активизирует создание общего бирже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79)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Международным финансовым центром«Астана» и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8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ЕЭК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центра «Астан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 согласованному плану мероприяти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81)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Главы национальных банков государств ЕАЭС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гармонизац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라. 산업

산업 분야에서 EAEU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유라시아 공작기계 엔지니어링 센터'가 설립되었다. 2016년 4월 13일의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7년 5월 16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기술대학교의 모스크바 공작기계연구소(STANKIN)에 EAEU 차원에서 공작기계 부문 발전의 중심이 될 '유라시아 공작기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센터의 활동은 회원국 공작기계 기업의 생산과정에 세계적 수준의 최신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센터는 공작기계 부문의 장기적 발전 전망 도출, 역내 유사품 생산 확인을 통한 공작기계 장비 조달의 투명성 보장, EAEU 내 실험실 및 인증센터 설립을 통한 생산 장비 품질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82]

둘째, 러시아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차원의 프로젝트에 회원국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다른 회원국의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17개 산업부문에 걸친 러시아의 62개 수입대체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했다. 해당 목록에는 EAEU 회원국의 기업과 관련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명시되었다. 2018년 7월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명령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우선순위 산업 부문의 협업 및 수입대체에서 통합적 상호협력 문제에 관한 고위급 특별 실무그룹이 활동을 시작했다.

셋째,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이 조성되었다. 2016년 4월 13일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결정[83]에 따라,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협업을 보장하는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이 조성되었다. '유라시아 기술

82)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Евразийский инжиниринговый центр по станкостроению будет создан на площадке МГТУ «СТАНКИН» в Москв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8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евразийск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латфор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회원국 실물경제의 수요 규정, 중요 과학 · 기술 프로젝트 발굴 및 발전 촉진, 회원국간 협력 설정과 공동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지원, 회원국의 과학 ·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식별과 제거에 관한 권고 도출, 과학 ·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문서 개선 촉진, 회원국의 과학 · 기술 발전 성과 및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 차원의 성과 대중화, 회원국의 과학 · 기술 및 혁신 협력 결과 모니터링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 무역

EAEU의 역외 무역액은 2015년 5,793억 달러, 2016년 5,094억 달러, 2017년 6,341억 달러, 2018년 7,538억 달러, 2019년 7,3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역시 2015년 3,738억 달러, 2016년 3,083억 달러, 2017년 3,869억 달러, 2018년 4,907억 달러, 2019년 4,593억 달러로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84] EAEU는 회원국의 무역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역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첫째,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2016년 10월 5일 EAEU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EAEU 및 그 회원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이 발효되었다. EAEU 회원국들과 베트남 간 무역액은 전년대비 2017년 36.7%, 2018년 12.8%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EAEU의 전체 대외무역액 감소와 함께 전년대비 16.4% 감소했다.[85]

둘째, 이란과의 임시협정이 발효되었다. 2019년 10월 27일 이란과의 자유무역 협정인 'EAEU 및 그 회원국들과 이란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임시협정'도 발효되었다. '협정'이 아니라 '임시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WTO 회원국이 아닌 이란이 독자적인 무역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

84)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b), p. 146.

85)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и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товарам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한 자유무역지대로의 이행을 지향하면서, 관세 인하 또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제한적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는 임시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86] 2017~18년 EAEU 회원국과 이란 간의 무역액은 연 1~2%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27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9년 24억 달러로 감소했다.[87] EAEU의 전체 대외무역액에서 베트남 및 이란의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 · 경제 협정이 발효되었다. EAEU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에서 2015년 기준 13.6%, 2019년 기준 18.1%를 차지하고 있다. EAEU 회원국들과 중국 간 무역액은 전년대비 2015년 -28.5%, 2016년 -0.3%에서 2017년 30.7%, 2018년 22.9%, 2019년 5.7% 증가하며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88]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10월 25일 'EAEU 및 그 회원국과 중국 간 무역 · 경제 협력 협정'이 발효되었다. 해당 협정은 기술 규제, 통관 절차, 경쟁, 전자거래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만, 관세 인하를 규정하지는 않았다.[89] 따라서 해당 협정은 EAEU와 중국 간 더 높은 수준의 무역 · 경제 협력 실현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협정 패키지가 체결되고 있다. EAEU 및 그 회원국과 싱가포르 간의 경제협력 관련 협정은 총 7개로 구성되었다. 2019년 10월 1일 'EAEU와 싱가포르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협정', 'EAEU 및 그 회원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 '아르메니아와 싱가포르 간 서비스 무역 · 투자 협정'이 서명되었고, 다른 4개국과 싱가포르 간 서비스 무역 · 투자 협정은 아직 서명되지 않았다.[90]

---

86)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88.

87)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и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товарам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88) *Ibid.*

89)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89.

9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ЕАЭС и Сингапур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다섯째, 세르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2019년 10월 25일 'EAEU 및 그 회원국과 세르비아 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정'이 서명되었다. 이미 세르비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간에는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정은 EAEU 회원국들과 세르비아 간 특혜적 무역체제 통합과 특권적 무역조건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91] 또한 세르비아가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EAEU의 상품 및 수출 사업자에 WTO가 규정한 기본 조건을 포함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92] 현재 EAEU는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몽골, 태국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바.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EAEU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EAEU 디지털 의제'가 설정되었다. 2017년 10월 1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2025년까지 EAEU 디지털 의제 실현 기본지향에 대한 결정'[93]을 채택했다. 디지털 의제 실현 차원에서 제품·상품·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의 디지털 추적, 디지털 거래(e-commerce), 디지털 교통회랑, 디지털 산업협력, 데이터 유통 협정,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이 이니셔티브 개발의 우선 과제로 확정되었다.[94] 디지털 경제의 발전 지향에는 경제 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부문간 전환,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시장의 디지털 전환, 운영 프로세스 및 통합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인프라 발전 및 디지털 프로세스 보안 보장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2017년 10월 25일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는 'EAEU 디지털 의

91)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92.

92) *Ibid.*

93) "Решение Высше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от 11 октября 2017 г. № 12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до 2025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94) "О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제 실현 차원에서 이니셔티브 개발 방식에 대한 결정'[95]을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2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이니셔티브 개발 보장을 위한 EAEU 디지털 의제 차원에서 이니셔티브 평가 기준에 대한 결정'[96]을 채택했다. 2018년 2월 19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는 'EAEU 디지털 의제 실현 차원에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 제공 형식 및 구조에 대한 결정'[97]을 채택했다.

둘째, EAEU 디지털 의제 실현 차원에서 'EAEU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EAEU 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은 EAEU 차원에서 국가간 데이터 및 전자문서 교환 보장, 회원국들을 위한 공동 정보 리소스 조성, EAEU 차원에서의 공동 프로세스 실현, EAEU 기관들의 활동 보장 등이다. 2019년 9월 기준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40개 공동 프로세스를 위한 42건의 기술 문서들을 확정했다.[98] EAEU 디지털 의제의 프로젝트들은 'EAEU 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사. 관세 협력

관세 협력 분야에서 EAEU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EAEU 차원의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었다. 2017년 4월 11일에 서명된 'EAEU 관세법에 대한 조약'[99]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9년 11월

95) "О Порядке проработки инициати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96) "О критериях оценки инициати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их проработ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97) "О формате и структур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б инициатив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98)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p. 101-102.

99) "Договор о Таможенном кодекс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27일에 서명된 '관세동맹 관세법에 대한 조약'과 관세동맹 형성 단계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협정이 효력을 상실했다. 이미 EAEU 창설 시기부터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00] 첫째, 관세동맹 관세법 작성 당시에는 참여국들이 통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기 때문에 각국 세관에 많은 권한을 남겨두고 규범도 통일하지 못했다. 둘째, EAEU 창설 이전 다양한 시기에 회원국간에 체결한 국제협정들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이 문서를 사용하여 효율성이 낮았다.

둘째, 효율적인 관세 협력을 위해 '통관단일창구'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2014년 5월 29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대외경제활동 조정 체계에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메커니즘 발전 기본지향에 대한 결정'[101]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30일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는 '대외활동 조정 체계에서 '통관단일창구' 국가 메커니즘의 참조 모델(reference model) 설명에 대한 결정'[102]을 채택했다. '통관단일창구' 국가 메커니즘은 데이터의 단회 제출 및 다회 이용,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비즈니스 진행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보, 공급망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103] 또한 중국과의 관세 협력을 위해 2019년 6월 9일 'EAEU와 중국의 관세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국제운송 상품 및 교통수단 정보 교환에 대한 협정'[104]에 서명하였다. 해당 협정에는 정보 교환에 대한 기본 접근이 규정되었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AEU 회원국, 중국은 정보 교환의 구체적인 조건 연구에 착수했다.

---

10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p. 117-118.

101)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механизма «единого окна» в систем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02) "Об Описании эталонной мод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ханизма «единого окна» в систем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03)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122.

104)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 товарах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еревозки, перемещаемых через таможенные границы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셋째, EAEU 관세영역 내 상품 추적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2019년 5월 29일 EAEU 국가들은 'EA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 추적 메커니즘에 대한 협정'[105]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가 확정한 특별 목록에 적시된 상품 유통 통제를 위한 각국의 추적 시스템간 정보 교환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EAEU 차원에서 상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여 관세 협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 경쟁 및 반독점규제

경쟁 및 반독점규제 분야에서 EAEU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경쟁의 공통 원칙 및 규칙 준수에 대한 통제 방식이 규정되었다. EAEU 조약은 경쟁의 공통 원칙 및 규칙을 규정하고, 초국경시장에서 경쟁의 공통 규칙 위반 방지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회원국 관련 기관들의 권한을 구분했다. 각국 국가기관은 해당 국가의 경계를 넘지 않는 위반 사례를 통제하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시장, 다시 말해 초국경시장에 관련된 공통 규칙 위반 사례를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공통 원칙 준수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보장한다.[106]

둘째, 경쟁 분야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4년 11월 12일 '단일 경쟁 규칙 준수 통제 관련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권한 수행 시 기밀 정보 보호 및 그 누설에 대한 책임 절차에 관한 협정'[107]이 서명되었고, 2018년 12월 3일

---

105) "'Соглашение о механизме прослеживаемости товаров, ввезенных на тамож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Заключено в г. Нур-Султане 29.05.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06)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130.

107) "'Соглашение о порядке защиты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ее разглашение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полномочий по контролю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единых правил конкуренции' (Заключено в г. Москве 12.11.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아르메니아의 해당 협정 가입에 대한 의정서가 서명되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는 2018년 5월 10일 'EAEU 관련 상품시장에서 경쟁에 대한 특별 보호, 반덤핑 또는 보상 조치 영향평가 수행 방식 확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고,[108] 이어서 12월 25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EAEU 회원국의 국가 가격 규제 도입 사실에 관한 제소, 그것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조사 및 협의 수행 방식 확정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일부 결정 효력 상실 인정에 대한 결정'[109]을 채택했다.

셋째, 분야별 시장에서도 경쟁에 대한 연구 및 조치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약 30건의 초국경시장 조사를 수행하여 경쟁 상황을 평가했는데, 예를 들어 2017~18년에는 피팅 플랫폼 대여, 항공 여객 운송, 공산품 · 의료 장비 · 의료제품 무역을 포함한 8건의 시장조사가 수행되었다.[110] 그 결과 2019년 3월 4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EAEU 회원국의 국가 반독점기관들과 공동으로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평등한 경쟁 조건 보장에 관한 공공 이니셔티브' 수행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는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경쟁이 제한된 시장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111]

---

10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проведения оценки последствий воздействия специальной защитной, антидемпинговой или компенсационной меры на конкуренцию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товарном рынк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0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подачи в Евразийск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комиссию обращений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о фактам в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цен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х рассмотрения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решений Коллегии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1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 134.

111)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Стартовала совместная инициатива ЕЭК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антимонопольных органов ЕАЭС п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на рынках медицинской техни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자. 기술 규제

EAEU는 기술 규제를 통해 각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낮은 품질의 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 수입 사업자, 판매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AEU는 관세동맹 차원에서 이미 채택된 35개 기술 규제를 인정하면서 2016~19년 추가로 다음과 같은 13개 기술 규제를 채택했다. 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 탄화수소 가스에 대한 요구 사항(TR EAEU 036/2016) ② 전자 및 무선 전자제품에서 위험물질 사용 제한에 대하여(TR EAEU 037/2016) ③ 어트랙션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38/2016) ④ 광물 비료에 대한 요구 사항(TR EAEU 039/2016) ⑤ 어류 및 어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40/2016) ⑥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41/2017) ⑦ 어린이 놀이터를 위한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42/2017) ⑧ 화재 안전 및 소화 장비에 대한 요구 사항(TR EAEU 043/2017) ⑨ 천연 광천수를 포함한 포장된 생수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44/2017) ⑩ 운송 및(또는) 사용 준비된 석유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45/2017) ⑪ 운송 및(또는) 사용 준비된 가연성 천연가스의 안전성에 관하여(TR EAEU 046/2018) ⑫ 알코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EAEU 047/2018) ⑬ 전력 소비 장치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 사항(TR EEMA 048/2019).

글상자 2-5. 2011~14년 관세동맹 차원에서 채택된 35개 기술 규제

철도 차량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1/2011)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2/2011)
철도교통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3/2011)
저전압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4/2011)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5/2011)
불꽃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6/2011)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7/2011)

글상자 2-5. 계속

장난감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8/2011) 향수 ·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09/2011) 기계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0/2011) 엘리베이터의 안전성(TR CU 011/2011) 폭발위험환경에서 작업을 위한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2/2011) 자동차 및 항공 휘발유(gasoline), 디젤 및 선박 연료, 제트 엔진 연료 및 중유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TR CU 013/2011) 도로의 안전성(TR CU 014/2011) 곡물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5/2011) 가스 연료로 작동하는 장치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6/2011) 경공업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7/2011) 바퀴 달린 교통수단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8/2011) 개인 보호 수단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19/2011) 기술 장비의 전자기 호환성(TR CU 020/201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21/2011) 라벨링 관련 식품(TR CU 022/2011) 과일 및 야채 주스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제(TR CU 023/2011) 오일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제(TR CU 024/2011) 가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25/2012) 소형 선박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26/2012) 식이 치료 및 식이 예방 식품을 포함한 특수 식품 개별 형태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27/2012) 폭발물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28/2012) 식품 첨가물, 향료 및 기술 보조 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 사항(TR CU 029/2012) 윤활유, 오일 및 특수 유체에 대한 요구 사항(TR CU 030/2012) 농업 · 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31/2012) 과압하에서 작동하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32/2013)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33/2013)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TR CU 034/2013) 담배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제(TR CU 035/2014)

자료: "Принятые технические регламент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기술 규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준화이다. 표준 없이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술 규제도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EAEU는 관세동맹 차원에서 이미 채택된 35개 기술 규제 표준 목록을 유지하면서 2016~17년 추가로 9개 기술 규제 표준 목록을 채택했다.[112] 또한 EAEU 차원에서 각국의 표준화 기관이 정기적으로 표준 혁신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8년 5월 14일 '최고유라시

112) "Утвержденные перечни стандартов и изменения в ни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아경제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표준화기관장 이사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11월 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113]

차. 에너지 및 교통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서 EAEU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공동전력시장 출범을 준비 중이다. 2019년 5월 29일 EAEU 회원국 정상들은 '(EAEU 공동전력시장 형성 관련) EAEU 조약 개정에 대한 의정서'[11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29일 서명된 EAEU 조약의 조항과 해당 조약의 부속 문서인 '가격 형성 및 요금 정책의 원칙을 포함한 전력 분야에서 자연독점 주체들의 서비스 접근 보장에 대한 의정서'가 개정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공동전력시장 형성 및 기능의 법적 원칙, EAEU 및 회원국 관련 국가 기관들의 권한, 전력 거래 방식, 국가간 송전 및 전력 분야 자연독점 주체들의 서비스 접근 보장과 그들의 활동 규제 및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공동전력시장이 완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력 거래, 국가간 송전, 국가간 송전선 수용 능력 배분, 정보 교환 등에 대한 문서들이 확정되어야 한다.[115]

둘째, 석유·석유제품 공동시장과 가스 공동시장도 출범 준비 중이다. 2018년 12월 6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결정에 따라 'EAEU 석유·석유제품 공동시장 형성 프로그램'[116]과 'EAEU 가스 공동시장 형성 프로그램'[117]이 확정

113)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В ЕАЭС начал работу Сове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14) "'Протокол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в ча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го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одписан в г. Нур-Султане 29.05.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15)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9), pp. 160-161.

116)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общих рынков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17)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общего рынка газ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되었다. ‘EAEU 석유 · 석유제품 공동시장 형성 프로그램’은 1단계(2018~21년)에서 공동시장 형성의 조직적 및 방법적 원칙 마련, 석유 분야에서 회원국간 법률의 조화, 2단계(2021~24년)에서 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조약안 준비 및 회원국 관련 기관들의 합의, 3단계(2025년 1월 1일까지)에서 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조약 발효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AEU 가스 공동시장 형성 프로그램’은 1단계(2021년 1월 1일까지)에서 공동시장 형성의 방법적 및 조직적 원칙 마련, 2단계(2022년 1월 1일까지)에서 공동시장 형성의 인프라적, 기술적, 법적 원칙 마련, 3단계(2025년 1월 1일까지)에서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경제적 조건 조성을 포함하여, 공동시장에서 회원국 가스 시장 주체들의 참여에 대한 회원국들의 준비 보장(공동시장 형성에 대한 조약 발효 포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통합된 교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 26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는 ‘EAEU 회원국의 조화(합의)된 교통정책 실현 기본지향 및 단계’[118]를 확정하면서, 회원국들이 교통 분야에서 각국의 단기 및 장기 전략(계획, 프로그램) 수립 및 수행 시 확정된 기본지향을 고려하고, 2025년까지 EAEU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교통 운송에 대해 기존의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는 2018~20년에 수행될 로드맵을 확정했다. 2017년 8월 14일 항공교통 관련 로드맵[119]이,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육상교통(자동차 및 철도), 수상교통, 인프라 발전, 공동교통정책에 관한 로드맵[120]이 확정되었다.

---

118)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этапах реализации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согласова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1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мероприяти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этапов реализации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согласова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в части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2018-2020 год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2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мероприяти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этапов реализации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согласова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на 2018-2020 год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가. 성과 및 한계

2015년 1월 출범 이후 EAEU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2014년 5월 29일 서명된 EAEU 조약이 2015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EAEU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1월 2일 아르메니아, 8월 12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확대되었다.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가 2015년 10월 16일 'EAEU의 새로운 회원 가입 및 회원자격 종료 방식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2018년 5월 14일 'EAEU 옵서버 국가 지위 규정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회원 가입 및 옵서버 지위 부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EAEU 조약 8조에 따라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최고기관인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원국 정부 수반(총리)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회원국 정부 부수반(부총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되는 상임조정기관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상임사법기관인 'EAEU 법원'이 설치되었다.

EU가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그들이 선출한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참여하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를 두고 있는 반면, EAEU는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와 총리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EU가 회원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10개의 분야별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반해, EAEU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내에 회원국 부총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상임조정기관인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EAEU는 EU와 달리 의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EU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해당하는 'EAEU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와 달리 EAEU 기관들의 역할은 경제 분야로 한정된다. 따라서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수립·실현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EAEU 기관들은 회원국 정상급 이사회, 총리급 이사회, 부총리급 이사회, 집행위원회로 이어지는 4단계의 위계구조하에서 초국가적 의사결정보다 정부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집행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EAEU의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제한적 권한만 가지고 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7년 4월 11일 서명된 'EAEU 관세법에 대한 조약'이 2018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기존 '관세동맹 관세법'을 대체한 EAEU 차원의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관세법은 전자 세관 신고, 세관 운영 자동화, 상품 출시 기간 단축, 공인 경제운영자 제도, '통관단일창구' 메커니즘 등 대외경제활동 규제 간소화와 각국 국가기관 및 기업 간 이익 균형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도입했다.[121] 또한 2019년 10월 1일 '유라시아 경제이사회' 결정에 따라 'EAEU 공동금융시장 형성 개념'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 통합이 시작되었고, 2019년 5월 29일 회원국 정상들이 '(EAEU 공동전력시장 형성 관련) EAEU 조약 개정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전력시장 통합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 12월 6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결정에 따라 'EAEU 석유·석유제품 공동시장 형성 프로그램'과 'EAEU 가스 공동시장 형성 프로그램'이 확정되면서 석유·석유제품 시장과 가스시장 통합도 시작되었다. 2016년 12월 26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결정에 따라 'EAEU 회원국들의 조화(합의)된 교통정책 실현 기본지향 및 단계'가 확정되면서 통합된 교통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다.

121) Петросьян *et al.*(2019), p. 17.

이외에도 2015년부터 알코올 및 담배 제품 공동시장 형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기업의 적응을 위해 각국 정부 수반들은 합의된 소비세율 적용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52개 서비스 분야도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제한, 예외, 추가 요구사항 없이 제공될 예정인데, 이는 가격 기준으로 각국에서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의 약 55%에 해당한다.[122]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합 초기인 2015~16년에는 GDP 및 무역액이 축소되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액, 특히 수출액이 2019년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다. 특히 2018년에는 역내 및 역외 무역액 증가가 계속되면서 회원국들의 GDP 및 기타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섬유, 식료품, 농산물, 장비 등의 회원국간 상호 수출이 현저히 증가했는데, 상품군 내 수출 흐름의 재분배는 역내 수요구조 변화, 교역조건 개선, 무역장벽 철폐의 효과로 보인다.[123]

표 2-1. EAEU 회원국의 GDP 변화(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메니아	10,553	10,546	11,527	12,458	13,673
벨라루스	55,317	47,478	54,697	59,954	63,175
카자흐스탄	184,387	137,278	166,806	179,338	180,264
키르기스스탄	6,678	6,814	7,703	8,271	8,455
러시아	1,369,722	1,279,762	1,574,544	1,673,003	1,700,078
EAEU	1,626,658	1,481,878	1,815,278	1,933,024	1,965,644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b), p. 40.

122) Петросьян *et al.*(2019), p. 18.

123) *Ibid.*, p. 9.

표 2-2. EAEU 회원국간 상호 무역액 변화(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메니아-벨라루스	34.6	35.4	41.6	49.4	70.4
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	4.9	5.5	10.5	14.7	14.6
벨라루스-카자흐스탄	578.6	411.2	693.5	888.6	925.4
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	61.0	52.0	130.5	132.5	111.2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756.1	702.7	785.3	927.2	941.5
카자흐스탄-러시아	15,413.7	13,005.6	17,104.4	18,321.1	19,653.3
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0.5	1.0	1.9	1.1	3.3
키르기스스탄-러시아	1,467.3	1,211.0	1,665.1	1,996.2	1,820.9
러시아-아르메니아	1,295.8	1,337.0	1,804.3	2,017.0	2,414.5
러시아-벨라루스	26,003.2	26,198.9	32,474.5	35,913.7	35,079.0
EAEU	45,615.7	42,960.3	54,711.6	60,261.5	61,034.1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b), p. 150.

표 2-3. EAEU 회원국과 역외 국가 간 무역액 변화(2015~19년)

(단위: 십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메니아					
무역액	3.4	3.6	4.5	5.3	5.7
수출액	1.2	1.4	1.7	1.7	1.9
수입액	2.2	2.2	2.8	3.5	3.8
벨라루스					
무역액	28.8	24.4	30.1	35.6	35.6
수출액	15.7	12.2	15.6	19.9	18.4
수입액	13.1	12.2	14.5	15.7	17.2
카자흐스탄					
무역액	60.2	48.3	60.3	74.6	74.8
수출액	40.8	32.8	43.2	55.1	51.4
수입액	19.4	15.5	17.1	19.6	23.4
키르기스스탄					
무역액	3.1	3.5	3.8	4.3	4.2
수출액	1.1	1.1	1.2	1.2	1.3
수입액	2.0	2.4	2.6	3.1	2.9

표 2-3.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러시아					
무역액	483.8	429.6	535.4	634.0	612.8
수출액	315.0	260.8	325.2	412.8	386.3
수입액	168.8	168.8	210.2	221.2	226.5
EAEU					
무역액	579.3	509.4	634.1	753.8	733.1
수출액	373.8	308.3	386.9	490.7	459.3
수입액	205.5	201.1	247.2	263.1	273.8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b), p. 146.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경제협정이 체결되었다. EAEU는 2015년 5월 베트남, 2018년 5월 이란(임시협정), 2019년 10월 싱가포르(총 7개 중 3개 체결) 및 세르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018년 5월에는 중국과 무역·경제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몽골, 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AEU는 베트남,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ASEAN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확보했다. 또한 WTO 회원국이 아닌 이란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임시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경제제재하에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경제 협정은 관세 인하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5월 양국 정상이 서명한 'EAEU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연계 관련 협력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성명'과 함께 EAEU와 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재 회원국들의 최대무역상대국(2019년 기준 역외 무역액의 18.1% 차지)인 중국이 EAEU의 핵심적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경제 협정은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무역을 원활

화하며, 산업협력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일대일로'와 EAEU 간 연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124]

EAEU는 현재 개별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 ·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요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인 EU와의 협정 체결 없이 역외 무역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세르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세르비아에서 생산되어 EU 관세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특혜 관세 대상이 된다.[125] 이미 2000년 EU 집행위원회는 세르비아에 대한 자율무역조치(Autonomous Trade Measures)를 도입하여 관세 및 양적 제한 없이 세르비아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제품의 대EU 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 2008년 EU와 체결한 '안정화 및 제휴 협정(SAA: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과 후속 무역협정에 따라 세르비아는 체제 개혁을 시작하고 EU 기준에 맞게 자국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EU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126] 또한 세르비아는 2006년 12월부터 남동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 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EAEU의 입장에서 세르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향후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때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EAEU 출범은 경제통합에 대한 회원국들의 요구보다는 러시아와 개별 국가간 양자 합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이 EAEU 내에서 의무의 최소화와 유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EAEU의 제도적 구조에서도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124) "China's FTA with the EAEU Will Improve Market Access, EU Transhipments"(2018. 5.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5).

125) "How Russian Manufacturers Can Access China, India and The EU Markets Via The EAEU Free Trade Agreements"(2019. 9.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26) *Ibid.*

의무의 결핍이 드러난다.[127] ‘EAEU 법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와 같은 초국적 성격을 가진 기관의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국 대표가 아닌 EAEU 관료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자국 정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도록 훈련받아온 이들은 EAEU 관료로 임명된 이후에도 기존 행동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128] 따라서 작은 이견이라도 있을 경우, EAEU 관료들은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고위 수준의 기관, 특히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로 의사결정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129]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무르고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EAEU는 대외관세 조화, 역내 관세 국경 철폐, 개별 회원국에서 경제통합체로 관세 결정 이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는 세계의 다른 경제통합체와 비교해도 상당한 성과이다. 이미 2010년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관세 조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2015년 WTO에 가입하면서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 없이 다수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하한 결과, 관세 조화 수준이 약 60%로 하락했다.[130] EAEU 조약에 따라 전력, 석유·석유제품, 가스,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시장의 단계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회원국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약품과 같은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은 있었지만,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매우 약한 규제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131]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탈소비에트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위해 EAEU 출범은 물론, 회원국

127) Dragneva and Wolczuk(2017), p. 2.

128) “Eurasian Economic Union: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2018. 1.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29) *Ibid.*

130) *Ibid.*

131) *Ibid.*

및 기능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 하지만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하에서 통합의 추진력인 러시아의 리더십이 한계를 보이면서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안정적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부는 긴밀한 통합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에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확대를 추구해왔고 대다수 국민도 러시아와의 완전한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에서도 2018년 친러 정부를 전복한 '벨벳 혁명' 이후 수립된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들도 핵심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에 반대하면서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132] 탈소비에트 국가들에서 등장한 새로운 세대가 러시아를 더 이상 매력적인 지정학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다른 탈소비에트 지역에서도 경제적 입지를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133] 또한 러시아는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서방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2015년 시리아에서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한 터키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2016~17년 터키 식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했으며, EU의 '동방 파트너십'에 참여한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EAEU를 통해 제재 대상 상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러시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134]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EAEU는 외국기업의 역내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역외 국가의 상품이 회원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포함한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는 국내 생산자들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경제 현대화라는 목표와는 양립할 수 없는

132) "There Goes the Neighborhood: The Limits of Russian Integration in Eurasia"(2020. 9.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33) *Ibid.*

134) Yeliseyeu(2019), p. 9.

것이다. 국내 생산자들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시장 보호가 허용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 및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대안 없이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만으로 이루어진 경제통합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135]

나. 전망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회원국들이 이미 EAEU 차원에서 체결된 국제조약 및 EAEU 기관들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국내법을 개정하고, 관료들을 EAEU에 적응시켰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에 의해 EAEU가 해체되거나 형태만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136] 하지만 위계적 구조하에서 정부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이는 회원국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대다수 회원국의 지도자가 초국적 기구에 의해 자신의 권력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137]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금융, 전력, 석유 · 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단일시장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면서 EAEU 조약에 명시된 조항들을 이행해나가야 한다. 회원국의 경제구조에서 공공 부문(public sector)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 조달은 해당 시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135) "Eurasian Economic Union: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36) *Ibid.*
137) *Ibid.*

전자 디지털 서명(electronic digital signatures) 및 은행 지급보증의 상호인정, EAEU 차원의 공공 조달을 위한 단일 전자 플랫폼(single electronic platform) 구축이 필요하다.[138] 이와 함께 2014~15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무역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통화 정책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139]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누적 통합 효과 예측치가 각 회원국의 17~20% 추가 GDP 성장으로 규정되었고, 그 가치는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140]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내부 장벽과 무역제한 철폐를 통한 EAEU 내 통합 발전의 잠재력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3개국 차원에서는 이미 2015년에 고갈되었다.[141] 따라서 EAEU의 거시경제적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국 확보가 필요하다. 신규 회원국 후보로는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들 수 있다. 몰도바는 비록 EU의 '동방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고 2014년 11월 EU와 '제휴 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미 2018년 5월부터 EAEU의 첫 번째 옵서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12월 EAEU의 옵서버 국가가 되었다. 타지키스탄은 이미 2009년부터 EAEU 회원국 전체가 가입해 있는 유라시아 개발은행에 참여하고 있고, 2015년부터 경제개발·통상부 산하에 EAEU 가입 문제를 연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1월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EAEU 가입으로 타

138) "Greater Eurasia Five Years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Action"(2019. 5.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139) *Ibid.*

140) Kovaleva *et al.*(2018), pp. 3-4.

141) *Ibid.*, pp. 3-4.

지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이 연 3%p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42)]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991년 12월 소련 해체 이후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체를 창설하려는 시도는 2015년 1월 EAEU 출범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94년 3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최초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구상을 발표한 이후, 1990년대에 걸쳐 더 효율적인 통합 모델을 찾기 위한 모색의 시기를 보내고, 2000년 10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 형성과정의 효율적 진전을 위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참여한 EAEC가 출범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2010년 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간의 관세동맹과 이어서 2012년 1월 단일경제공간이 작동을 시작했다. 2012년 초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2014년 5월 29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들이 EAEU 조약에 서명했다. 2015년 1월 1일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합의된 또는 단일한 경제정책이 실현되며, 초국적 조정체계가 작동되는 탈소비에트 지역의 유일한 경제통합체로서 EAEU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면서 EAEU의 회원국은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AEU는 현재 EU 다음으로 높은 통합 수준에 있는 통합체 중 하나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통합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회

142) 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2020. 11. 23), "Экономические эффекты вступ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в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2. 5).

원국 가입 및 옵서버 지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고, 통합과정의 향후 발전 지향을 제시했으며,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조정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금융 분야에서 공동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과 회원국들의 법률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산업 분야에서 '유라시아 공작기계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고, 러시아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차원의 프로젝트에 회원국의 참여를 허용했으며,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협업을 위한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을 조성했다. 넷째, 무역 분야에서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베트남, 이란, 세르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무역·경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협력협정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다섯째, 디지털화 분야에서 'EAEU 디지털 의제'를 설정한 데 이어 'EAEU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 관세 협력 분야에서 'EAEU 관세법'을 새로 제정하고, 효율적인 관세 협력을 위해 '통관단일창구' 메커니즘과 EAEU 관세영역 내 상품 추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일곱째, 경쟁 및 반독점규제 분야에서 경쟁의 공통 원칙 및 규칙 준수에 대한 통제 방식을 규정했고, 경쟁 분야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분야별 시장에서 경쟁에 대한 연구 및 조치도 수행하고 있다. 여덟째, 기술 규제 분야에서 2016~19년 13개 기술 규제를 추가로 채택하고, 2016~17년 9개 기술 규제 표준 목록을 추가로 채택했으며, 정기적으로 표준 혁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홉째,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서 공동전력시장, 석유·석유제품 공동시장, 가스 공동시장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통합된 교통 정책 수행 계획도 수립했다.

2015년 1월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EAEU는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했으며, 금융, 전력, 석유·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

고, 역외 무역 확대를 위해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경제협정도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무르고 있으며, 완전한 공동시장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고,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해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에게 있어 EAEU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한국의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현재 EAEU는 육지 면적 약 2,000만 ㎢, 인구 약 1억 8,000만 명, GDP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탈소비에트 지역의 최대 단일시장일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로 인해 무역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표 2-4. EAEU 회원국의 육지 면적, 인구, GDP

	육지 면적 (천 ㎢)	인구 (백만 명, 2018년)	GDP (십억 달러, 2018년)
러시아	17,098.3	144.48	1,669.58
카자흐스탄	2,724.9	18.28	179.34
벨라루스	207.6	9.48	60.03
키르기스스탄	200.0	6.32	8.27
아르메니아	29.7	2.95	12.46
EAEU	20,260.5	181.51	1,929.68

자료: World Bank Data, DB 자료(검색일: 2021. 2. 5).

EAEU의 역외 무역액은 2015년 5,793억 달러에서 2018년 7,538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9년 7,331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수입액은 2018년 2,631억 달러에서 2019년 2,738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했다.[143] 2019년 기준 EAEU의 역외 무역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중국(18.1%), 독일(8.0%), 네덜란드(7.5%), 이탈리아(5.0%) 다음으로 크다.

한국과 EAEU 간 무역액은 2015년 169억 달러에서 2018년 27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한국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8%에서 2018년 2.4%까지 증가했다. 2019년에는 무역액이 268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지만, 비중은 오히려 2.6%로 증가했다. 물론 이 중에서 러시아와의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95.4%, 2019년 83.4%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EAEU 간 무역액이 다소 감소한 2019년에도 러시아 외 다른 회원국과의 무역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표 2-5. 한국과 EAEU 회원국 간 무역액 변화(2015~19년)

(단위: 천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러시아	15,994,019	13,409,364	18,946,148	24,824,949	22,340,640
카자흐스탄	759,502	649,424	1,531,068	2,159,927	4,218,775
벨라루스	93,966	65,632	73,258	77,328	103,630
키르기스스탄	81,477	64,319	85,475	79,176	107,059
아르메니아	10,716	11,190	14,383	16,357	29,472
EAEU 5개국	16,939,680	14,199,929	20,650,332	27,157,737	26,799,576
중국	227,374,209	211,413,076	239,980,114	268,613,647	243,431,269
미국	113,856,533	109,678,241	119,359,091	131,588,245	135,222,462
일본	71,430,341	71,821,628	81,940,866	85,132,329	76,001,066
한국 무역총액	963,255,476	901,618,827	1,052,172,717	1,140,062,085	1,045,575,557

자료: K-stat, DB 자료(검색일: 2021. 2. 5).

143)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b), p. 146.

또한 EAEU의 역외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광물제품(65.8%)이며 역외 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계 · 장비 · 교통수단(44.4%), 화학제품(19.1%)이다.[144] 이 품목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및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히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만 보더라도 한국과 EAEU 간 무역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3.3%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145] 주요 무역상대국 다변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수사가 변화하지 않는 현실로 굳어진다면 세계 정치 ·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무역 확대 및 무역상대국 다변화의 파트너로서 EAEU를 주목하고 잠재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EAEU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는 브렉시트(Brexit)와 미 · 중 무역분쟁을 경험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무역 중심의 성장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긴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를 비롯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13년부터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2017년부터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AEU 회원국들은 지난 6년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왔다. 'Doing Business 2015'[146]에서는 45~102위에 불과했지만, 'Doing Business

144)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b), p. 149.
145)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높아졌다」(2020.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5).
146) World Bank(2014), p. 4.

2020'에서는 25~80위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는 62위에서 28위, 카자흐스탄은 77위에서 2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147] 비록 아르메니아는 45위에서 47위로 다소 하락했지만, 벨라루스도 57위에서 49위, 키르기스스탄도 102위에서 80위로 상승했다. 비록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약 60%를 차지하며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동기에서 현지 시장 진출이 약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48] 이는 한국기업이 이미 현지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EAEU는 의약품 · 의료기기 공동시장, 알코올 및 담배 제품 공동시장 등을 시작으로 제조업 각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규제 표준화를 통해 단일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 조성, 'EAEU 디지털 의제' 설정 등을 통해 혁신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디지털 경제발전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 전력, 석유 · 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은 회원국들의 초국가적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19년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는 7억 1,5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직접투자의 0.31%에 불과하다. 하지만 탈소비에트 지역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일단 진출에 성공하면 확고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EAEU 차원의 경제통합 심화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에서 입지를 확보한 수많은 한국기업에게 시장 및 가치사슬 확대, 물류 루트 다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47) World Bank(2019), p. 4.
148) 이재영 외(2015), p. 83.

표 2-6. 한국의 대EAEU 직접투자(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신규 법인수	투자액
러시아	18	178	18	110	21	82	26	94	29	99
카자흐스탄	14	70	12	22	10	7	12	15	11	24
벨라루스							1	0	1	0
키르기스스탄	5	2	2	1	3	2	3	3	4	4
아르메니아					1	3				
EAEU 5개국	37	250	32	134	35	93	42	112	45	126
세계 전체	3,217	30,374	3,345	39,791	3,436	44,719	3,548	51,099	3,953	61,8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1. 2. 5).

한편으로 탈소비에트 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협력의 중점 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담보된다면,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역시 EAEU 차원의 공동시장은 물론, 합의된 또는 단일한 경제정책, 기술 규제 및 표준화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세계경제의 국가-산업 간 생산 및 거래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한국-산업과 EAEU 국가-산업 간의 연계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수직분업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 권역간 경제협력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에 기초하여 양 권역간 경제협력 전략 및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량분석을 통해 과거 한국-EAEU 간에 이루어져왔던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양 권역간에 활성화되어 있는 연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 권역간 경제협력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산업 및 무역 정책 또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 기능과 시장 작동의 결과 그리고 세계경제 현실에서의 교역과 생산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분석 자료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2절에서는 한국과 EAEU 3국의 대세계 및 대 상대국 주력 수출산업에 대하여 개관한다. 이후 3절 및 4절에서는 한국과 EAEU 3국의 타이프 1 및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을 정량화하여 설명한 후, 마지막 5절에서는 한-EAEU 경제협력 관련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제3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다지역산업연관표(MRIO: Multi-Region Input-Output Table)이다. 2020년 9월 ADB가 발표한 2008 및 2018년 불변 표를 사용하여 분석한다.[149] 동 세계산업연관표는 과거 표와 달리 홍콩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63국가 · 권역, 35개 산

149)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 12).

업으로 작성되었다.[150]

본 연구에서는 Wang, Wei, and Zhu(2013, 이하 WWZ 2013)[151]의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r국 i산업의 s국으로의 수출을 [그림 3-1]과 같이 분해한다.[152] 분해 항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r국 i산업의 s국으로의 수출은 해외에서 소비된 국내 부가가치(DVA: domestic value-added absorbed abroad),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RDV: value-added first exported but eventually returned home), 외국 부가가치(FVA: foreign value-added)와 순수중복항(PDC: pure double counted terms) 등 4개의 큰 항목으로 분해된다.

해외에서 흡수된 국내부가가치(DVA)는 다시 r국 i산업의 s국으로의 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_FIN, T1),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_INT, T2), 중간재로 s국에 수출된 후 제3국에 중간재로 재수출된 후 3국에서 소비된 경우의 국내 부가가치(DVA_INTrex1, T3), 중간재로 s국에 수출된 후 3국에 최종재로 재수출되어 소비된 경우의 국내 부가가치(DVA_INTrexF, T4), 3국에 중간재로 재수출된 후 3국에서 다시 수출된 경우의 국내 부가가치(DVA_INTrex2, T5)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환류된 국내부가가치(RDV)도 다시 최종재 형태로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RDV_FIN, T6),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최종재 형태로 환류된 부가가치(RDV_FIN2, T7) 및 중간재 형태로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RDV_INT, T8) 등 3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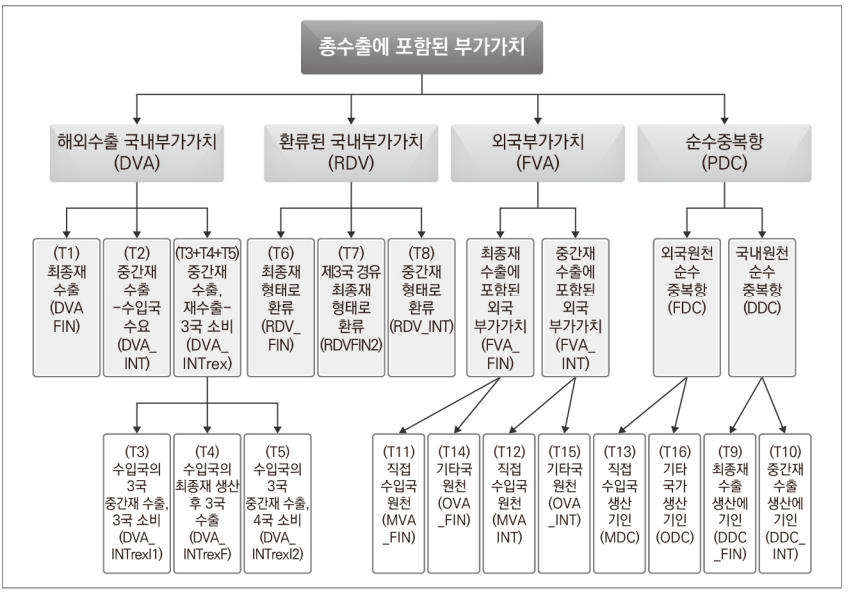
150) 63국가 · 권역은 그리스,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디브,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싱가포르 및 기타 세계이다.
35개 부문은 1차 산업, 광업, 가공식품, 섬유 · 의류, 가죽제품, 목제품, 종이 · 인쇄출판, 코크 · 정유 · 핵연료, 화학 · 제약,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 전기전자 · 광학, 수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 건설, 수송기기 도소매, 도매, 소매, 숙박 · 음식,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운송지원, 통신 · 우편, 금융,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 국방, 교육, 보건 · 복지, 기타 서비스 및 고용 자영업이다.

151) Wang, Wei, and Zhu(2013).

152) 이하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이창수(2019), p. 24 및 이창수 외(2018) pp. 93~94 참고.

r국 i산업의 s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외국 부가가치(FVA)는 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s국(수출 대상국)의 부가가치(MVA_FIN, T11)와 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제3국 원천의 외국 부가가치(OVA_FIN, T14)와 그리고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s국(수출 대상국)의 부가가치(MVA_INT, T12)와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제3국 원천의 외국 부가가치(OVA_INT, T15) 등 4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MVA_FIN(T11)과 MVA_INT(T12)는 r국이 s국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후 다시 최종재 또는 중간재 형태로 수출한 s국 부가가치이고, OVA_FIN(T14)와 OVA_INT(T12)는 r국이 r, s가 아닌 제3국의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후 다시 최종재 또는 중간재 형태로 s국으로 수출할 때 포함된 제3국의 부가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순수 중복항(PDC)은 2개 항목의 외국원천 순수 중복항과 역시 2개 항목의 국내원천 순수 중복항 등 4개 세부항목으로 구별된다.

그림 3-1. r국 i재의 s국으로의 수출의 분해



자료: Wang, Wei, and Zhu(2013), pp. 23-24, 이창수(2019), p. 9.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의 WWZ 분해에 기초하여 다음 2가지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EAEU 3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 수출 증대 효과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주력 산업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의 러시아 수출 또는 러시아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파악하고자 한다. WWZ 분해 항목 중 FVA(러시아 수출에 포함된 외국 부가가치)의 국가별 원천을 추적하여 이 FVA 중 한국 수입 비중을 계산하면, 러시아 특정 산업의 대세계 수출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부가가치의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러시아 대세계 수출의 FVA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의 비중이 높을수록 러시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의 러시아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 비중이 낮다면 러시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양국간 경제 연관성의 발전 잠재력도 크지 않을 것이다. 3절에서 타이프 1 수직 분업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EAEU 3국의 대상대국 수출이 유발하는 타이프 2 수직분업 정도이다. [그림 3-1]의 DVA_INTrex(중간재 수출-재수출-제3국소비, DVA_INTrex1 + DVA_INTrexF + DVA_INTrex2) 비중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대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이 한국에 수출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타이프 2 수직분업 정도를 정량화한다. 이 비중이 크다면 러시아의 대한국 광물 수출은 수입국(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또한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되는 한, 즉 세계적인 GVC 구조가 지속되는 한, 향후 지속 성장할 가능성 및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비중이 크지 않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속 성장을 희망할지라도 수입국(한국)의 입장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세계시장의 역할이 제약된 환경에서는 러시아의 광물 수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만 남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한국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한 성장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4절에서 이와 같은 타이프 2 수직분업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종합하면 타이프 1 수직분업 지표를 통해 러시아(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

하는 한국(러시아)의 러시아(한국) 수출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 타이프 2 수직분업 지표를 통해서는 러시아(한국)의 대한국(러시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러시아)의 제3국 수출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두 지표 모두 강한 연계성을 보인다면 그 산업에서의 상호협력 요구 강도 및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 전 세계적인 GVC 구조 속에서 세계시장 수요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타이프 1 및 타이프 2 연계성 모두 작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당연히 양국간 상호협력 강도 및 발전 잠재력은 작을 것이다. 셋째, 타이프 1 수직분업 강도는 크나 타이프 2 수직분업 강도가 작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국간 상호협력 정도 및 발전 잠재력은 첫째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이 때의 발전 잠재력 제약요인은 수입국의 낮은 GVC 편입 정도이고 발전 잠재력의 성장요인은 수출국의 강한 세계시장 참여도이다. 여하튼 타이프 1 수직분업 특성상 수출국이 특별한 상대국가와의 협력정책을 실시할 유인이 작을 뿐 아니라[153] 타이프 2 수직분업의 낮은 강도는 양국간 교역이 수입국 시장의 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타이프 1 수직분업 강도는 작지만 타이프 2 수직분업 강도가 큰 경우이다. 이 경우 양국간 상호협력 정도 및 발전 잠재력은 첫째의 경우보다는 물론 작을 것이다. 이 경우 발전 잠재력의 제약요인은 수출국의 세계시장 참여 정도이고 발전 잠재력의 상승요인은 수입국의 강한 GVC 편입 정도이다. 여하튼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상 수출국이 특별한 상대국가와의 협력정책을 실시할 유인이 큰 특징과 함께,[154] 세계시장 참여 정도가 낮아 양국간 교역이 수출국의 시장 활용 능력에 의해 제약받는 특징을 갖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러시아 관계가 셋째 경우에 해당하며,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 러시아-한국 관계는 대체적으로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153) 무역의 관점에서는 서술한 바와 같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양국간 무역이 수입국의 수출국 투자와 연계된 경우가 있다.

154) 수입국을 경유하여 전 세계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MRIO 2008 및 2018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순위는 8위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8년 0.2% 및 2018년 0.1%이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2008 및 2018년 모두 0.0%이다.

[표 3-1]은 ADB MRIO 2008 및 2018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대세계,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의 산업별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대세계 수출의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 광학(2018년 26.7%), 화학 · 제약(11.2%), 수송기기(9.7%), 금속(9.0%), 코크 · 정유 · 핵연료(8.8%), 기계(4.8%) 및 기타 사업서비스(3.8%)이다. 대러시아 수출의 주력 산업은 수송기기(30.5%), 전기전자 · 광학(12.9%), 화학 · 제약(9.4%), 금속(9.3%), 기계(7.4%), 섬유 · 의류(4.4%), 코크 · 정유 · 핵연료(4.0%) 및 기타 사업서비스(2.2%)이다. 대러시아 수출의 주력 산업은 대세계 수출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대세계 수출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송기기와 기계의 수출 비중이 높고 전기전자 · 광학 비중은 낮다. 둘째, 섬유 · 의류의 수출비중 또한 높다. 다음 절에서는 대러시아 수출 주력 산업 각각의 수출을 분해하고 타 권역 수출의 분해 결과와 비교하면서 GVC 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대카자흐스탄 수출의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 광학(2018년 22.6%), 화학 · 제약(13.0%), 금속(8.5%), 코크 · 정유 · 핵연료(8.3%), 기계(7.9%), 수송기기(5.1%, 2008년은 11.7%) 및 기타 사업서비스(4.9%)이다. 대세계 및 대러시아 수출 구조와 비교할 때 수송기기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계 산업의 수출 구성비가 대러시아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세계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주력 산업을 보면 전기전자 · 광학(2018년 13.4%), 가공식품(12.4%), 화학 · 제약(12.0%), 코크 · 정유 · 핵연료(10.6%), 수송기기(6.1%), 금속(6.0%) 및 기계(4.7%)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같이 수송기기 비중이 대세계 및 대러시아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여타 경우와 다르게 가공식품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표 3-1.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단위: %)

	한국의 대세계 수출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산업별 점유율(%)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산업별 점유율(%)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1차산품	0.6	0.5	10.5	12.0	0.8	0.6	0.8	0.7	5.2	3.5
광물	0.3	0.2	39.7	36.8	0.1	0.1	0.2	0.2	0.7	0.3
가공식품	1.1	1.3	12.0	13.6	1.1	1.4	1.6	1.7	14.7	12.4
섬유-의류	2.4	2.3	35.3	35.4	4.0	4.4	1.2	2.0	2.7	2.9
가죽제품	0.3	0.3	28.5	32.5	0.3	0.4	0.1	0.2	0.1	0.2
목제품	0.1	0.2	21.9	23.2	0.2	0.2	0.4	0.4	0.2	0.2
종이-인쇄출판	1.4	0.6	23.9	22.3	0.9	0.4	1.9	0.7	2.5	0.9
코크-정유-핵연료	7.0	8.8	40.1	39.4	2.9	4.0	4.3	8.3	9.9	10.6
화학-제약	10.6	11.2	38.4	36.2	8.6	9.4	10.5	13.0	10.5	12.0
플라스틱	1.2	1.0	39.9	40.0	1.0	0.9	1.5	1.7	0.9	0.9
비금속광물	0.5	0.5	27.8	30.4	0.3	0.3	1.2	1.6	4.3	0.9
금속	12.0	9.0	37.4	35.2	11.2	9.3	11.9	8.5	6.6	6.0
기계	4.8	4.8	35.9	33.5	5.7	7.4	9.7	7.9	5.2	4.7
전기전자-광학	22.7	26.7	43.5	41.6	10.6	12.9	18.6	22.6	7.9	13.4
수송기기	12.8	9.7	40.8	37.8	35.9	30.5	11.7	5.1	6.6	6.1
기타 제조업	0.6	0.9	33.8	33.4	0.7	1.0	1.0	1.6	0.5	0.8
전기-가스-수도	1.6	2.5	22.5	21.0	1.3	2.2	1.4	2.5	1.5	2.5
건설	0.2	0.1	1.1	0.9	0.1	0.1	2.5	0.9	0.2	0.2
수송기기 도소매	0.3	0.3	23.7	26.2	0.3	0.3	0.2	0.3	0.3	0.3
도매	1.8	2.4	23.9	26.8	1.6	2.1	1.5	2.0	1.6	2.1
소매	2.4	2.6	23.6	26.7	2.3	2.2	2.1	2.1	2.3	2.2
숙박-음식	0.9	0.8	14.8	13.7	0.6	0.6	1.4	2.1	0.8	0.7
육상운송	1.4	1.3	20.6	21.2	1.3	1.2	1.4	1.3	2.9	2.8

표 3-1. 계속

	한국의 대세계 수출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산업별 점유율(%)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산업별 점유율(%)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해상운송	1.0	0.8	49.8	47.6	0.2	0.2	0.4	0.5	0.6	0.7
항공운송	1.0	0.6	46.7	41.8	0.2	0.2	0.4	0.4	0.5	0.5
운송지원	1.4	1.3	30.7	30.1	1.0	1.1	1.2	1.3	1.7	1.9
통신-우편	0.4	0.6	16.6	18.7	0.3	0.4	0.4	0.6	0.5	1.1
금융	2.1	2.0	15.7	15.6	1.9	1.9	2.5	2.2	2.0	2.0
부동산	0.9	0.7	8.4	7.2	0.6	0.6	0.8	0.7	0.8	0.8
기타 사업서비스	4.1	3.8	24.1	23.4	2.7	2.2	5.3	4.9	2.9	2.7
공공행정-국방	0.1	0.1	0.8	0.8	0.1	0.1	0.1	0.1	0.8	1.6
교육	0.1	0.2	1.8	2.3	0.1	0.1	0.1	0.1	0.1	0.1
보건-복지	0.1	0.2	1.9	2.4	0.1	0.2	0.1	0.2	0.2	0.5
기타 서비스	1.8	1.6	14.7	12.4	1.1	1.3	1.5	1.5	1.6	1.5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MRIO 2008 및 2018 자료를 사용하여 EAEU 3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이 11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2018년 현재 한국 수출 비중은 2.2%로 2008년 1.6%보다 높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한국이 19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1.0%로 2008년 0.8%보다 조금 높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한국이 21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0.50%에 지나지 않는다(표 3-2, 표 3-3 및 표 3-4의 패널 B).

다음 EAEU 3국의 대한국 수출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러시아의 대세계 주요 수출 산업은 광물(2018년 28.0%), 육상운송서비스(10.9%), 도매(10.3%), 코크 · 정유 · 핵연료(9.6%), 금속(7.4%), 전기 · 가스 · 수도(6.7%)이고, 대한국 주요 수출 산업은 광물(27.1%), 코크 · 정유 · 핵연료(12.5%), 도매(9.0%), 육상운송(8.4%), 금속(8.0%), 전기 · 가스 · 수도(6.5%) 및 1차산품(6.3%)이다.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 품목과 대한국 수출 품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대한국 수출의 경우 1차산품 수출 비중이 크다는 것, 그리고 코크 · 정

유 · 핵연료 수출 비중이 대세계 수출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 차별적인 사항이다(표 3-2 패널 A).

카자흐스탄의 대세계 주요 수출 산업은 광물(2018년 40.0%), 도매서비스(17.3%), 금속(13.1%), 육상운송(8.6%), 기타 사업서비스(2.9%), 코크 · 정유 · 핵연료(2.7%) 및 1차산품(1.8%)이다. 대한국 주요 수출 산업은 금속(31.9%), 광물(30.5%), 도매서비스(14.8%), 육상운송(8.6%), 기타 사업서비스(2.4%) 및 코크 · 정유 · 핵연료(2.1%)이다. 카자흐스탄의 대세계 수출과 비교할 때 금속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 광물의 비중이 다소 낮다는 점, 그리고 1차산품의 수출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표 3-3 패널 A).

키르기스스탄의 대세계 주요 수출 산업은 금속(2018년 25.5%), 1차산품(21.3%), 소매서비스(9.3%), 육상운송(5.7%), 공공행정 · 국방(4.8%), 광물(4.5%), 건설(4.3%) 및 가공식품(4.0%)이다. 대한국 주요 수출 산업은 금속(35.2%), 1차산품(11.8%), 공공행정 · 국방(9.0%), 소매서비스(8.2%), 육상운송(7.6%), 통신 · 우편(3.9%), 건설(3.7%) 및 광물(3.5%)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대세계 수출과 비교할 때 광물의 비중이 낮다는 점, 금속의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1차산품과 공공행정 · 국방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3-3 패널 A).

표 3-2. 러시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단위: %)

패널 A. 주요 수출 산업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러시아의 한국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1차산품	1.0	1.4	5.9	11.9	2.6	6.3
광물	22.5	28.0	46.6	46.3	23.3	27.1
가공식품	0.3	0.6	2.1	5.0	0.6	1.4
섬유-의류	0.1	0.1	4.3	9.1	0.0	0.0
가죽제품	0.0	0.0	2.3	5.7	0.0	0.0
목제품	0.5	0.6	21.7	30.8	0.4	0.5
종이-인쇄출판	0.9	1.1	21.7	31.5	1.2	1.3

표 3-2. 계속

(단위: %)

패널 A. 주요 수출 산업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러시아의 한국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코크-정유-핵연료	7.9	9.6	28.8	34.4	6.5	12.5
화학-제약	2.8	3.0	29.2	33.6	1.7	2.1
플라스틱	0.6	0.7	19.5	24.4	0.6	0.5
비금속광물	0.5	0.5	8.8	12.4	0.5	0.3
금속	8.2	7.4	30.3	35.0	12.6	8.0
기계	2.5	1.5	23.6	23.8	2.1	1.0
전기전자-광학	0.9	1.1	17.0	22.6	0.8	0.7
수송기기	1.3	1.2	14.0	16.3	0.9	0.8
기타제조업	0.2	0.3	9.3	17.2	0.2	0.2
전기-가스-수도	4.9	6.7	23.5	27.3	4.6	6.5
건설	0.6	0.3	1.7	1.8	0.5	0.3
수송기기 도소매	1.1	0.7	17.0	16.8	1.1	0.7
도매	15.7	10.3	29.5	27.3	14.1	9.0
소매	3.6	2.7	17.1	16.8	2.9	2.4
숙박-음식	0.2	0.2	5.5	5.8	0.2	0.2
육상운송	11.5	10.9	40.0	38.6	10.2	8.4
해상운송	0.2	0.2	27.1	30.3	0.1	0.1
항공운송	0.6	0.6	20.1	21.4	0.5	0.5
운송지원	1.7	1.9	20.4	21.2	1.4	1.6
통신-우편	1.4	1.5	15.8	16.6	1.2	1.3
금융	1.1	0.8	8.1	10.2	1.1	0.8
부동산	1.0	1.4	7.4	8.1	0.9	1.3
기타 사업서비스	3.7	2.2	14.0	14.1	4.9	2.0
공공행정-국방	1.9	2.0	8.2	10.2	1.8	1.9
교육	0.1	0.0	0.6	0.7	0.0	0.0
보건-복지	0.0	0.0	0.2	0.2	0.0	0.0
기타 서비스	0.5	0.4	7.4	8.2	0.5	0.4

패널 B. 주요 수출 국가								
	기타 세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폴란드	영국
2008	20.8	5.1	8.1	9.0	67.0	1.0	3.5	3.4
2018	25.7	10.6	7.1	6.7	6.1	4.8	3.4	2.7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	스페인	키르기스스탄
2008	4.8	5.8	1.6	1.4	4.1	2.2	2.2	0.2
2018	2.7	2.4	2.2	1.9	1.9	1.8	1.4	0.3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표 3-3.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단위: %)

패널 A. 주요 수출 산업						
	카자흐스탄의 대세계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카자흐스탄의 한국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1차산품	1.8	1.8	17.2	9.9	0.8	0.4
광물	43.2	40.0	48.1	43.2	44.7	30.5
가공식품	1.1	1.2	12.6	10.1	0.6	0.4
섬유-의류	0.3	0.1	51.2	17.2	0.1	0.1
가죽제품	0.0	0.0	0.0	48.6	0.0	0.0
목제품	0.0	0.0	19.7	23.0	0.0	0.0
종이-인쇄출판	0.1	0.1	17.3	21.2	0.1	0.1
코크-정유-핵연료	3.8	2.7	43.5	35.7	3.1	2.1
화학-제약	0.3	1.0	36.9	31.8	0.3	0.5
플라스틱	0.2	0.2	26.2	14.9	0.2	0.1
비금속광물	0.3	0.4	22.8	13.5	0.4	0.3
금속	8.5	13.1	42.7	37.7	14.3	31.9
기계	0.5	1.1	33.3	31.5	0.4	0.7
전기전자-광학	0.2	0.3	27.7	29.4	0.2	0.0
수송기기	0.7	0.2	39.1	21.7	0.6	0.0
기타제조업	0.2	0.0	36.2	12.4	0.3	0.0
전기-가스-수도	0.9	1.6	17.9	16.4	0.9	1.2
건설	3.3	1.2	11.7	4.2	3.1	0.9
수송기기 도소매	0.8	0.2	30.2	6.6	0.5	0.1
도매	11.5	17.3	39.7	37.3	8.5	14.8
소매	1.5	0.6	20.9	4.3	1.1	0.5
숙박-음식	0.8	0.1	30.4	5.1	1.0	0.1
육상운송	7.5	8.6	37.3	24.5	7.6	8.6
해상운송	0.1	0.2	41.2	28.9	0.1	0.2
항공운송	0.4	0.5	35.5	21.9	0.3	0.4
운송지원	2.1	1.7	34.3	25.9	1.8	1.5
통신-우편	1.3	0.7	22.6	9.8	1.1	0.6
금융	2.6	1.3	23.8	16.9	2.4	1.1
부동산	1.8	0.3	9.8	1.6	1.6	0.2
기타 사업서비스	3.3	2.9	23.8	19.2	3.2	2.4
공공행정-국방	0.4	0.0	7.3	0.0	0.1	0.0
교육	0.0	0.0	1.4	0.3	0.0	0.0
보건-복지	0.1	0.0	2.5	1.0	0.1	0.0
기타 서비스	0.3	0.3	10.4	4.8	0.4	0.2

표 3-3. 계속

(단위: %)

패널 B. 주요 수출 국가								
	기타 세계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2008	17.6	13.8	0.6	8.1	67.0	3.9	7.5	5.4
2018	15.9	14.2	11.3	10.3	9.3	4.4	4.1	4.0
	루마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일본	키르기스스탄	한국
2008	1.6	1.4	2.3	2.1	2.4	1.7	0.6	0.8
2018	2.6	2.2	1.9	1.9	1.8	1.3	1.2	1.0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표 3-4.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 산업과 수출 대상국

(단위: %)

패널 A. 주요 수출 산업						
	키르기스스탄의 대세계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키르기스스탄의 한국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1차산품	13.0	21.3	18.6	19.6	9.0	11.8
광물	1.2	4.5	39.7	48.3	0.6	3.5
가공식품	4.1	4.0	16.3	27.9	1.7	1.2
섬유-의류	4.1	1.9	41.3	47.7	2.0	0.2
가죽제품	0.4	0.1	47.3	36.4	0.1	0.2
목제품	0.3	0.0	27.9	25.0	0.3	0.0
종이-인쇄출판	0.4	0.2	38.6	26.9	0.2	0.3
코크-정유-핵연료	2.5	0.2	35.7	13.8	1.5	0.2
화학-제약	0.6	0.3	44.7	34.4	0.2	0.1
플라스틱	1.7	0.6	29.7	34.4	1.7	0.6
비금속광물	2.1	2.3	34.7	33.6	1.0	2.1
금속	29.4	25.5	46.5	47.8	39.1	35.2
기계	1.1	0.2	35.6	26.3	0.3	0.1
전기전자-광학	0.2	0.0	43.8	18.8	0.0	0.0
수송기기	0.5	0.2	46.7	39.2	0.0	0.0
기타제조업	0.7	0.4	40.5	45.2	0.4	0.0
전기-가스-수도	2.4	1.5	22.6	12.5	2.1	1.5
건설	2.1	4.3	8.2	6.7	1.6	3.7

표 3-4. 계속

(단위: %)

패널 A. 주요 수출 산업						
	키르기스스탄의 대세계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수출/(수출+내수)(%)		키르기스스탄의 한국 수출의 산업별 점유율(%)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수송기기 도소매	1.5	0.2	22.9	21.1	1.5	0.2
도매	1.1	2.1	21.4	18.1	1.1	1.8
소매	7.9	9.3	22.0	17.2	4.3	8.2
숙박-음식	0.5	0.7	8.7	8.1	0.4	0.7
육상운송	2.2	5.7	16.7	27.9	8.7	7.6
해상운송	0.0	0.1	24.2	28.1	0.0	0.1
항공운송	0.1	0.3	28.0	28.0	0.1	0.4
운송지원	0.5	1.7	24.5	28.0	1.3	2.6
통신-우편	0.6	3.1	5.7	18.4	0.9	3.9
금융	1.7	2.0	18.4	21.2	2.2	2.5
부동산	6.4	1.0	44.4	14.9	5.2	0.9
기타 사업서비스	2.1	1.0	43.9	15.5	1.9	0.9
공공행정-국방	8.5	4.8	40.9	29.1	10.3	9.0
교육	0.1	0.2	0.8	1.8	0.0	0.1
보건-복지	0.0	0.0	0.7	0.7	0.0	0.0
기타 서비스	0.0	0.2	0.9	5.1	0.0	0.2

패널 B. 주요 수출 국가								
	기타 세계	러시아	카자흐스탄	스위스	중국	독일	미국	터키
2008	52.5	6.4	7.0	6.8	67.0	3.7	2.8	0.7
2018	45.9	11.6	8.0	6.7	5.4	3.6	2.6	1.8
	태국	프랑스	인도	일본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2008	1.1	1.2	0.7	0.9	1.0	1.1	0.5	0.4
2018	1.1	1.0	0.9	0.9	0.8	0.7	0.6	0.5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앞 절에서는 한국과 EAEU 3국의 대세계 수출 주요 산업과 함께 한국-EAEU 국가 간 수출 주요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번 절과 다음 절에서는 전 절에서 도출된 수출 각각을 WWZ 방식으로 분해한 결과, 즉 타이프 1 수직분업 지표(FVA의 원천 국가별 비중)와 타이프 2 수직분업 지표(DVA_INT의 재수출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EAEU 3국 간의 GVC 연관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3-5]는 EAEU와 한국의 대세계 수출 주력 산업별로 FVA의 주요 원천국가의 비중을 요약하고 있다. 표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원천 국가 · 권역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인도, 러시아, EAEU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ASEAN-9,[155] EU27국가이고, 표의 3번째 열(FVA)는 각 행의 제 1 수출대상국 수출에 있어서의 FVA비중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세계 수출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 광학(2018년 26.7%), 화학 · 제약(11.2%), 수송기기(9.7%), 금속(9.0%), 코크 · 정유 · 핵연료(8.8%), 기계(4.8%) 및 기타 사업서비스(3.8%)이다. 이 순서대로 FVA 원천국가 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한국의 대세계 총수출의 26.7%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 광학의 수출 100%에서 FVA 비중은 약 39%이고, 이 39%에서 러시아 및 EA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이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 및 EAEU의 부가가치 정보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러시아 및 EAEU의 대한국 수출의 정보이다. 결국 대세계 수출의 FVA 비중(셋째 열)이 높을수록 그리고 러시아 및 EAEU 국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러시아 및 EAEU 국가의 대한국 수출 유발(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이 증가할 것이다.

155) 미얀마를 제외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및 필리핀 등 아세안 9개국.

[표 3-5]에 따르면, 첫째, 코크 · 정유 · 핵연료(8.8%), 화학 · 제약, 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 · 광학의 순으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러시아 및 EAEU 국가의 대한국 수출 유발효과(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가 컸다. 둘째,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발견되는 한국과 EAEU 간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의 대부분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연계성이다. 즉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의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작다. 셋째,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러시아 간 타이프 1 수직분업연계성 정도는, 코크 · 정유 · 핵연료를 예외로 한다면, 중국, 일본, 미국과의 연계성 정도에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유럽의 중요 개별 국가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에 따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하면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인위적인 정책 없이도 시장의 결정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향후에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러시아 간의 이러한 흐름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EAEU 및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FVA의 원천국가 비중과 타이프 1 수직분업

(단위: %)

		FVA[1]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인도	러시아	EAEU[2]	ASN9	EU27
한국	전기전자-광학	38.7	25.1	15.5	0.0	6.5	1.5	3.9	1.2	2.3	2.3	7.2	10.8
한국	화학-제약	50.8	10.5	11.8	0.0	6.5	1.6	3.5	2.3	4.6	4.6	5.8	10.3
한국	수송기기	54.5	19.8	14.9	0.0	7.5	2.3	5.1	1.5	2.7	2.7	4.9	14.4
한국	금속	44.5	13.1	11.4	0.0	4.0	1.7	2.6	1.4	4.2	4.3	4.2	8.6
한국	코크-정유-핵연료	71.5	3.6	2.4	0.0	2.9	1.9	1.3	0.9	6.1	6.1	4.6	5.7
한국	기계	46.8	18.8	14.6	0.0	6.3	2.0	4.9	1.4	2.9	3.0	4.9	14.4
한국	기타 사업서비스	18.6	15.0	10.1	0.0	8.0	2.1	3.4	1.6	3.0	3.0	7.4	10.8
한국	섬유-의류	33.9	21.3	11.2	0.0	6.4	1.6	3.6	3.0	2.7	2.8	6.5	11.7
한국	가공식품	52.0	10.2	6.3	0.0	10.2	1.2	2.5	2.5	2.8	2.8	8.7	9.1
러시아	광물	4.0	9.7	3.0	2.4	3.6	2.8	14.5	1.2	0.0	0.2	1.6	40.7
러시아	육상운송	8.2	10.2	4.7	3.5	3.4	2.8	15.2	1.7	0.0	0.2	1.5	41.1
러시아	도매	4.9	9.8	3.4	2.6	3.5	2.6	12.9	1.2	0.0	0.2	1.8	37.6
러시아	코크-정유-핵연료	7.7	8.9	2.6	2.2	3.3	2.7	13.3	1.1	0.0	0.3	1.5	38.6

표 3-5. 계속

(단위: %)

		FVA[1]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인도	러시아	EAEU[2]	ASN9	EU27
러시아	금속	5.7	9.3	2.7	2.1	3.1	2.7	12.4	1.1	0.0	0.5	1.8	36.5
러시아	전기	11.0	9.5	2.7	2.2	3.3	2.7	13.3	1.1	0.0	0.3	1.7	38.1
러시아	1차산품	14.4	7.0	2.4	2.0	2.9	2.2	10.0	1.6	0.0	0.3	2.3	29.9
카자흐스탄	광물	9.1	6.6	2.1	1.1	4.0	2.2	4.3	1.0	23.9	24.1	2.1	15.1
카자흐스탄	도매	6.1	7.6	2.8	1.3	7.6	5.0	6.1	1.0	14.6	14.7	4.1	18.1
카자흐스탄	금속	2.2	6.4	1.6	0.9	3.5	1.8	3.4	0.7	41.5	41.7	1.9	11.6
카자흐스탄	육상운송	9.0	6.9	2.1	1.5	4.0	1.9	3.8	0.9	22.5	22.7	2.1	14.1
카자흐스탄	기타 사업서비스	15.4	7.4	2.0	1.2	5.0	2.7	6.6	1.0	16.8	16.9	2.3	16.5
카자흐스탄	코크-정유-핵연료	17.8	6.2	2.1	1.1	4.6	2.3	4.0	1.2	20.7	21.1	3.1	13.9
카자흐스탄	1차산품	9.9	7.1	1.2	0.8	2.9	1.3	3.9	0.8	39.4	40.7	1.7	13.0
키르기스스탄	금속	25.5	19.0	1.1	0.9	2.5	0.6	1.8	0.4	33.4	33.5	0.7	6.2
키르기스스탄	1차산품	14.4	22.5	1.5	0.9	4.7	0.9	3.2	0.6	18.3	18.5	1.3	8.2
키르기스스탄	소매	18.7	17.7	1.0	0.7	2.7	0.6	1.9	0.4	26.8	26.9	0.9	6.2
키르기스스탄	육상운송	39.1	16.4	1.3	0.9	2.8	0.6	2.2	0.6	28.0	28.1	1.1	7.4
키르기스스탄	공공행정-국방	21.2	16.1	1.8	0.8	4.2	0.7	2.5	0.6	31.8	31.9	1.3	8.0
키르기스스탄	광물	23.5	15.1	1.5	0.8	3.6	0.7	1.9	0.6	20.8	21.3	1.3	7.0
키르기스스탄	건설	42.7	21.5	1.6	0.9	2.9	0.7	2.0	0.5	24.8	24.9	1.3	7.2
키르기스스탄	가공식품	56.1	13.9	1.2	0.9	3.4	0.7	2.9	0.6	24.4	24.7	1.2	8.5

주: 1) 제1 수출 대상국 수출에 있어서의 FVA 비중임.
2)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이고, 아세안9은 미얀마를 제외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및 필리핀 등 아세안 9개국임.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다음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세계 수출 주력 산업은 광물(2018년 28.0%), 육상운송서비스(10.9%), 도매(10.3%), 코크·정유·핵연료(9.6%), 금속(7.4%), 전기(6.7%)이다. [표 3-5]는 이 순서대로 러시아 대세계 수출의 FVA 원천 국가 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 대세계 수출의 FVA 비중(셋째 열)은 4.0~14.4%로 한국과 비교하여 아주 작다. 따라서 러시아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 등 관심 권역의 대러시아 수출 유발 정도 즉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도 작다. 둘째, 러시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5% 정도이다. 카자흐스탄과 키

르기스스탄의 합계인 0.2~0.5%에 비하면 매우 높다. 즉 러시아-한국 연계성이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와의 연계성보다 크다. 셋째, 러시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독일 및 EU 27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15.2% 및 29.9~41.1%이다. 러시아 경제가 한국, 중국, 미국 등의 국가보다는 독일 및 EU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러 관계가 러시아-EU 관계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 카자흐스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세계 수출 주력 산업은 광물(2018년 40.0%), 도매서비스(17.3%), 금속(13.1%), 육상운송(8.6%), 기타 사업서비스(2.9%), 코크 · 정유 · 핵연료(2.7%) 및 1차산품(1.8%)이다. [표 3-5]는 이 순서대로 카자흐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 원천 국가 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카자흐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 비중(셋째 열)은 2.2~17.8%로 러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한국 등 주요 관심 국가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유발 정도, 즉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도 작다. 둘째, 카자흐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1.3% 수준으로 러시아의 2.0~3.5%와 비교할 때 1/3 정도이다. 즉 카자흐스탄의 대세계 수출이 한국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유발하는 정도는 러시아의 경우와 비교해도 더 작다. 셋째, 카자흐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러시아 및 EAEU(러시아 + 키르기스스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6~41.5% 및 14.7~41.7%이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기본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EU 27국 및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0~16.5% 및 2.2~17.8%로 양 권역과의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관성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러시아, 독일 포함 EU, 중국, 미국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아주 작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카자흐스탄 경제 연관성이 카자흐스탄-러시아, 카자흐스탄-EU 관계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세계 수출 주력 산업은 금속(2018년

25.5%), 1차산품(21.3%), 소매서비스(9.3%), 육상운송(5.7%), 공공행정 · 국방(4.8%), 광물(4.5%), 건설(4.3%) 및 가공식품(4.0%)이고, [표 3-5]는 이 순서대로 키르기스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 원천 국가 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키르기스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 비중(셋째 열)은 14.4~56.1%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달리 매우 높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주요 관심국가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유발 정도, 즉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은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실제 키르기스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러시아와 EAEU(러시아 + 카자흐스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3~33.4% 및 18.5~33.5%이다. 키르기스스탄 경제가 기본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중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1~22.5% 및 6.2~8.5%로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달리 유럽경제와의 연결성은 약한 반면 중국과 연결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셋째,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대세계 수출의 FVA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7~0.9% 수준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우보다도 작다. 즉 키르기스스탄의 대세계 수출이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을 유발하는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러시아 및 중국과 타이프 1 수직분업 고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아주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키르기스스탄 경제 연관성이 키르기스스탄-러시아, 키르기스스탄-중국 관계 정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앞 절에서는 타이프 1 수직분업 특성에 주목하였다. 본 절에서는 특히 타이프 2 수직분업 지표(DVA_INT의 재수출 지표)를 활용하여 양 권역간 경제 연계성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과 EAEU 3국 간 GVC 연관관계의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표 3-6]은 한국의 대EAEU 수출 주력산업별로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WWZ분해 결과를 나타낸다. [표 3-7]~[표 3-9]는 각각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을 주력산업 순서에 따라 WWZ 방식으로 분해한 결과이다. 특히 DVA_INT 재수출(DVA_INTrex1 + DVA_INTrexF + DVA_INTrex2) 항목에 주목하여 타이프 2 수직분업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한국(러시아)의 대러시아(한국) 중간재 수출이 러시아(한국)을 경유하여 다시 제3, 제4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이다. 총 수출액에서의 이 비중이 크면 클수록 한국(러시아)의 러시아(한국)로의 수출이 러시아(한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커진다. 즉 한국(러시아)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 후 러시아(한국)가 재수출하는 비중으로, 최종 수요처 방향으로의 GVC 구조에 편입되어 있을수록 그 비중이 크고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 비중이 크지 않다면 한국(러시아)의 수출이 대부분 러시아(한국)에서 최종 소비되며, 러시아(한국)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한 발전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러시아 수출 주력 산업은 2018년 현재 수송기기(30.5%), 전기전자 · 광학(12.9%), 화학 · 제약(9.4%), 금속(9.3%), 기계(7.4%), 섬유 · 의류(4.4%), 코크 · 정유 · 핵연료(4.0%) 및 기타 사업서비스(2.9%)이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및 대 키르기스 주력 수출산업도 순서만 다를 뿐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156] 단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경우 가공식품도 주력 수출분야이다. [표 3-6]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순서대로 재수출비중(7열)을 포함하여 GVC 분해 결과를 나타낸다.

15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 광학(2018년 22.6%), 화학 · 제약(13.0%), 금속(8.5%), 코크 · 정유 · 핵연료(8.3%), 기계(7.9%), 섬유 · 의류(2.0%), 수송기기(5.1%, 2008년은 11.7%) 및 기타 사업서비스(4.9%)이다.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주력 산업을 보면 전기전자 · 광학(2018년 13.4%), 가공식품(12.4%), 화학 · 제약(12.0%), 코크 · 정유 · 핵연료(10.6%), 수송기기(6.1%), 금속(6.0%) 및 기계(4.7%)이다."

표 3-6. 한국의 대EAEU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단위: %)

수출국	산업	수입국	DVA	DVA _FIN	DVA _INT	DVA 재수출 합계	DVA _INT rexl1	DVA _INT rexF	DVA _INT rexl2	FVA	OVA _FIN	MVA _FIN	OVA _INT	MVA _INT
한국	수송기기	러시아	48.0	29.1	13.6	5.3	3.7	0.8	0.8	51.9	34.4	1.0	16.1	0.4
한국	수송기기	카자흐스탄	46.3	37.5	6.6	2.1	1.2	0.7	0.2	53.7	45.6	0.1	8.0	0.0
한국	수송기기	키르기스스탄	50.5	7.2	33.5	9.8	5.1	3.6	1.0	49.5	8.7	0.0	40.8	0.0
한국	전기전자-광학	러시아	56.1	34.8	15.1	6.2	4.3	0.9	1.0	43.8	29.8	0.7	13.0	0.3
한국	전기전자-광학	카자흐스탄	54.4	41.3	10.6	2.5	1.7	0.4	0.4	45.6	36.2	0.1	9.3	0.0
한국	전기전자-광학	키르기스스탄	59.1	2.6	43.8	12.8	5.9	5.7	1.2	40.8	2.2	0.0	38.5	0.0
한국	화학-제약	러시아	51.1	5.8	28.3	17.1	12.3	1.6	3.1	48.5	7.9	0.4	38.4	1.9
한국	화학-제약	카자흐스탄	47.6	7.6	29.1	11.0	7.5	1.8	1.7	52.3	10.8	0.0	41.4	0.0
한국	화학-제약	키르기스스탄	44.1	26.0	13.2	4.9	2.1	2.3	0.5	55.9	37.1	0.0	18.8	0.0
한국	금속	러시아	48.6	12.9	24.6	11.1	7.8	1.2	2.1	51.1	16.9	0.7	32.1	1.4
한국	금속	카자흐스탄	49.9	11.8	24.8	13.4	9.3	1.9	2.1	49.9	16.0	0.1	33.6	0.2
한국	금속	키르기스스탄	72.2	9.6	10.4	52.2	28.3	16.0	7.9	27.4	13.1	0.0	14.2	0.0
한국	기계	러시아	54.1	33.5	13.4	7.2	5.3	0.8	1.2	45.7	31.8	1.0	12.7	0.4
한국	기계	카자흐스탄	52.5	40.5	8.0	4.0	2.8	0.6	0.6	47.4	39.5	0.1	7.8	0.0
한국	기계	키르기스스탄	57.4	2.8	40.7	13.8	7.1	5.3	1.4	42.6	2.7	0.0	39.8	0.0
한국	섬유-의류	러시아	58.5	31.5	20.6	6.4	4.5	0.9	1.1	41.3	24.3	0.7	15.9	0.4
한국	섬유-의류	카자흐스탄	57.6	35.4	17.9	4.2	2.7	0.9	0.6	42.4	28.1	0.0	14.2	0.0
한국	섬유-의류	키르기스스탄	59.7	41.6	9.1	9.0	1.4	7.4	0.3	40.3	33.0	0.0	7.3	0.0
한국	코크-정유-핵연료	러시아	29.4	7.2	13.6	8.7	6.4	0.8	1.5	70.3	22.8	1.5	43.2	2.8
한국	코크-정유-핵연료	카자흐스탄	29.4	0.3	20.5	8.6	5.8	1.5	1.3	70.5	0.9	0.0	69.5	0.1
한국	코크-정유-핵연료	키르기스스탄	25.8	11.9	10.0	3.9	1.7	1.8	0.4	74.2	40.4	0.0	33.8	0.0
한국	기타사업 서비스	카자흐스탄	83.8	19.8	44.9	19.1	14.1	2.4	2.6	16.0	4.9	0.0	11.1	0.0
한국	기타사업 서비스	러시아	83.8	16.4	47.3	20.0	15.1	1.4	3.5	15.7	3.9	0.1	11.3	0.3
한국	기타사업 서비스	키르기스스탄	81.8	50.9	22.7	8.2	4.0	3.4	0.8	18.2	12.6	0.0	5.6	0.0
한국	가공식품	러시아	47.8	46.9	0.7	0.1	0.1	0.0	0.0	52.2	50.0	1.4	0.8	0.0
한국	가공식품	키르기스스탄	49.5	33.9	12.2	3.5	1.3	1.9	0.3	50.5	37.1	0.0	13.4	0.0
한국	가공식품	카자흐스탄	49.2	29.5	16.8	2.9	1.8	0.8	0.4	50.7	32.3	0.0	18.4	0.0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먼저 한국의 대러시아 제1 수출산업인 수송기기를 살펴보자.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송기기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은 각각 5.3%, 2.1% 및 9.8%이다. 이는 아주 작은 값으로, 한국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이 이 대상 국가들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아주 작음을 의미한다. 즉 EAEU 3국의 수송기기 부문 최종수요 방향으로의 GVC 편입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산 중간재 수입 후 '가공생산-재수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지 소비로 귀결되고 있을 뿐이다.

다음 한국의 대러시아 제2 수출산업인 전기전자 · 광학의 경우,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이 각각 6.2%, 2.5% 및 12.8%로 수송기기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한국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이 이 대상 국가들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아주 작다. 역시 대상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특성이 강한 결과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제3 수출산업인 화학 · 제약의 경우,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은 각각 17.1%, 11.0% 및 4.9%로 앞의 산업과 비교하여 중간재 재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한국의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이 이 두 국가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앞의 경우보다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제4 수출산업인 금속의 경우는 화학 · 제약의 경우와 유사하다.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은 각각 11.1%, 13.4% 및 52.2%로 중간재 재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대키르기스스탄 중간재 재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이 다시 키르기스스탄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아주 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제5 수출산업인 기계의 경우는 수송기기 및 전기전자 · 광

학의 경우와 유사하다.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은 각각 7.2%, 4.0% 및 13.8%로 중간재 재수출 비중이 낮다. 한국의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 그 곳에서 최종 흡수되고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이 이들 대상 국가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는 아주 작다.

한국의 대러시아 제6 수출산업인 섬유 · 의류의 경우도 기계, 수송기기 및 전기전자 · 광학의 경우와 같다.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이 각각 6.4%, 4.2% 및 9.0%로 중간재 재수출 비중이 낮다. 역시 한국의 이 국가들로의 수출이 대부분 그 곳에서 최종 흡수되고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는 작은 특성을 보인다.

한국의 대러시아 제7 수출산업인 코크 · 정유 · 핵연료의 경우도 섬유 · 의류, 기계, 수송기기 및 전기전자 · 광학의 경우와 같다.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및 대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은 각각 8.7%, 8.6% 및 3.9%로 중간재 재수출 비중이 낮다. 역시 그 곳에서 최종 소비되고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는 작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대카자흐스탄 7대 수출산업인 기타 사업서비스이다. 대카자흐스탄 및 대러시아 중간재 재수출 비중은 각각 19.1% 및 20.0%로 대러시아 화학 · 의약의 경우와 비슷하게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동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및 대러시아 수출이 이들 대상 국가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2대 수출산업인 가공식품이다. 대키르기스스탄 및 대러시아 중간재 재수출 비중은 각각 3.5% 및 0.1%로 모든 주력산업 중에서 가장 낮은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 가공식품 수출의 최종 귀착지가 거의 대부분 이들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EAEU 수출 주력 산업별 중간재 재수출 비중 지표로 타이프 2 수직분업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러시아 화학 · 의약 수출, 대키르기스스탄금속 수출, 그리고 대러시아 및 대카자흐스탄 기타 사업서비스 수출 정도에서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 부문들에서의 한국 수출이 이 국가의 제3국 수출을 유발하고 있었다. 기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에서는 이러한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이 약했는데, 한국의 EAEU 수출이 대부분 EAEU 권역 안에서 최종소비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EAEU 국가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한국의 이들 국가로의 수출도 증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향후 양국간 교역 발전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한국 주요 수출 산업은 광물(27.1%), 코크 · 정유 · 핵연료(12.5%), 도매(9.0%), 육상운송(8.4%), 금속(8.0%), 전기(6.5%) 및 1차산품(6.3%)이다. [표 3-7]은 이 순서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을 분해한 후 재수출비중(7열)을 포함한 중요 분해 항목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대한국 제1 수출산업인 광물의 분해 결과를 보면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이 52.2%에 달한다. 이는 아주 큰 값으로 러시아 산 중간재 수입 후 '가공생산-재수출-3국에서 최종소비'의 타이프 2 수직분업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러시아의 대한국 중간재 형태 수출이 한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아주 크며, 따라서 향후에도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GVC 구조 속에서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질서 체계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러시아 중간재 수출이 한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수출 연계 효과가 큰 원인이 한국의 최종수요 방향으로의 GVC 편입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경우 이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이 약해 러시아 내수만이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의 경우 타이프 2 수직분업 비중이 46.4%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하다.

표 3-7. 러시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단위: %)

수출국	산업	수입국	DVA	DVA_FIN	DVA_INT	DVA 재수출 합계	DVA_INT rexl1	DVA_INT rexF	DVA_INT rexl2	FVA	OVA_FIN	MVA_FIN	OVA_INT	MVA_INT
러시아	광물	한국	95.8	0.0	43.6	52.2	32.1	12.9	7.2	3.6	0.0	0.0	3.5	0.1
러시아	광물	카자흐스탄	91.9	9.4	36.1	46.4	33.5	1.7	11.2	3.8	0.7	0.0	2.8	0.2
러시아	광물	키르기스스탄	92.8	28.2	47.1	17.5	7.6	8.2	1.7	6.2	2.3	0.0	3.9	0.0
러시아	코크-정유-핵연료	한국	90.9	24.6	35.1	31.3	19.1	7.5	4.7	8.6	3.5	0.1	4.9	0.1
러시아	코크-정유-핵연료	카자흐스탄	86.9	0.7	59.9	26.2	17.9	3.2	5.1	8.7	0.1	0.0	7.6	1.0
러시아	코크-정유-핵연료	키르기스스탄	87.6	56.2	24.0	7.5	3.7	2.9	0.8	11.5	8.1	0.0	3.4	0.0
러시아	도매	한국	95.9	0.0	43.6	52.2	32.1	12.9	7.2	3.5	0.0	0.0	3.4	0.1
러시아	도매	카자흐스탄	92.4	85.6	4.4	2.3	1.7	0.2	0.5	7.3	6.6	0.4	0.3	0.0
러시아	도매	키르기스스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러시아	육상운송	한국	93.6	0.4	42.5	50.7	31.2	12.6	6.9	5.8	0.1	0.0	5.5	0.2
러시아	육상운송	키르기스스탄	88.3	50.8	29.0	8.4	3.8	3.8	0.8	10.8	6.9	0.0	3.9	0.0
러시아	육상운송	카자흐스탄	88.0	7.9	50.8	29.2	20.9	2.6	5.6	8.0	1.0	0.1	6.4	0.5
러시아	금속	한국	88.2	-0.1	44.6	43.7	19.6	17.9	6.1	10.5	0.0	0.0	10.3	0.2
러시아	금속	카자흐스탄	82.1	5.1	51.8	25.1	18.1	2.1	4.9	13.5	1.1	0.2	10.7	1.6
러시아	금속	키르기스스탄	85.9	1.7	12.1	72.1	44.8	15.2	12.1	3.3	0.4	0.0	2.9	0.0
러시아	전기	한국	51.0	0.0	33.2	17.8	9.4	5.7	2.7	6.3	0.0	0.0	6.2	0.1
러시아	1차산품	한국	85.7	74.3	9.5	2.0	0.8	0.9	0.2	14.2	12.4	0.2	1.6	0.0
러시아	1차산품	카자흐스탄	85.4	52.5	30.0	2.9	1.1	1.5	0.3	14.0	8.3	0.6	4.7	0.4
러시아	1차산품	키르기스스탄	85.3	66.9	14.7	3.7	1.5	1.8	0.4	13.8	11.3	0.0	2.5	0.0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러시아의 대한국 제2 수출산업인 코크 · 정유 · 핵연료에서의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은 31.3%로 광물보다는 20%포인트 작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재수출 비중보다는 훨씬 높아 러시아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한국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내수는 물론 타이프 2 수직분업에 기반하여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대한국 제3, 제4 및 제5 수출산업인 도매, 육상운송 및 금속의 경우도 광물의 경우와 유사하게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이 아주 강하다.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이 각각 52.2%, 50.7% 및 43.7%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동 부문에서의 러시아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한국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내수는 물론 타이프 2 수직분업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한국 제6 및 제7 수출산업인 전기 및 1차산품은 반대의 경우이다. 이 산업들에서의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은 각각 17.8% 및 2.0%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 수요 방향으로의 GVC 구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내수가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즉 러시아의 전기 및 1차산품 수출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최종 소비되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한 성장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 산업은 금속(31.9%), 광물(30.5%), 도매서비스(14.8%), 육상운송(8.6%), 기타 사업서비스(2.4%) 및 코크 · 정유 · 핵연료(2.1%)이다. [표 3-8]은 이 순서로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출을 분해한 후 재수출비중(7열)을 포함한 중요 분해 항목을 나타낸다.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제1 수출산업인 광물의 분해 결과를 보면 대한국 수출 및 대러시아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이 각각 8.4% 및 31.9%이다. 대러시아 수출의 경우 타이프 2 수직분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대한국 수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한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형태이다. 즉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수출은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크지만, 대한국 수출의 경우는 중간재 재수출 형태의 연계효과가 거의 없다. 향후 대러시아 수출은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국 수출은 한국에서의 소비가 증진되지 않는 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표 3-8.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단위: %)

수출국	산업	수입국	DVA	DVA_FIN	DVA_INT	DVA 재수출 합계	DVA_INT rexl1	DVA_INT rexF	DVA_INT rexl2	FVA	OVA_FIN	MVA_FIN	OVA_INT	MVA_INT
카자흐스탄	광물	러시아	91.4	32.3	27.2	31.9	24.3	1.6	6.0	8.1	3.3	1.1	2.8	0.9
카자흐스탄	광물	키르기스스탄	89.3	33.6	40.1	15.6	6.2	8.0	1.4	10.0	4.6	0.0	5.4	0.0
카자흐스탄	광물	한국	85.9	54.6	22.8	8.4	3.9	3.2	1.3	10.5	7.4	0.1	3.1	0.0
카자흐스탄	도매	러시아	92.8	0.0	64.0	28.7	20.4	3.0	5.3	6.1	0.0	0.0	5.2	0.9
카자흐스탄	도매	한국	93.1	2.2	57.1	33.8	16.3	12.4	5.1	5.6	0.2	0.0	5.4	0.1
카자흐스탄	금속	러시아	89.0	55.1	20.1	13.8	9.3	1.5	3.0	10.5	4.5	3.2	1.6	1.2
카자흐스탄	금속	한국	94.0	0.0	42.9	51.1	26.6	16.5	8.0	5.9	0.0	0.0	5.9	0.1
카자흐스탄	금속	키르기스스탄	97.9	0.2	9.3	88.4	48.4	26.2	13.9	1.3	0.0	0.0	1.3	0.0
카자흐스탄	육상운송	러시아	90.5	24.6	45.8	20.1	14.0	2.2	3.8	8.7	2.4	0.7	4.4	1.3
카자흐스탄	육상운송	키르기스스탄	89.2	61.7	20.4	7.1	3.2	3.2	0.7	10.1	7.6	0.0	2.5	0.0
카자흐스탄	육상운송	한국	91.4	16.3	51.4	23.7	12.2	8.2	3.4	8.3	2.0	0.0	6.2	0.1
카자흐스탄	기타사업 서비스	러시아	84.5	28.4	41.1	15.0	11.0	1.3	2.8	15.0	5.1	1.0	7.4	1.5
카자흐스탄	기타사업 서비스	키르기스스탄	82.4	74.7	6.1	1.6	0.8	0.7	0.2	17.4	16.1	0.0	1.3	0.0
카자흐스탄	기타사업 서비스	한국	85.1	27.1	38.5	19.5	9.6	7.3	2.6	14.1	5.8	0.1	8.2	0.1
카자흐스탄	코크-정유 -핵연료	러시아	81.9	51.4	19.9	10.6	7.9	0.8	1.9	17.8	10.2	2.7	3.9	1.0
카자흐스탄	코크-정유 -핵연료	키르기스스탄	81.8	27.4	41.3	13.1	6.6	5.1	1.4	17.1	6.8	0.0	10.3	0.0
카자흐스탄	코크-정유 -핵연료	한국	87.6	1.4	47.5	38.7	19.7	13.9	5.1	12.2	0.3	0.0	11.7	0.1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제2 및 제3 수출산업인 도매 서비스 및 금속의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은 각각 33.8% 및 51.1%로 높은 수치이다.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한국의 제3국 수출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며, 향후에도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출이 내수는 물론 타이프2 수직분업에 기반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금속 부문에서 이 경향

성이 도매의 경우보다 더 크다.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제4, 제5 및 제6 수출산업인 육상운송, 기타 사업서비스 및 코크 · 정유 · 핵연료의 경우를 보면, 코크 · 정유 · 핵연료는 금속처럼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이 강하지만 육상운송 및 기타 사업서비스는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이 코크 · 정유 · 핵연료보다 약하다. 3개 수출산업의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은 각각 23.7%, 19.5% 및 38.7%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에서와 같이 코크 · 정유 · 핵연료 부문에서의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한국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크며,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 산업은 금속(35.2%), 1차산품(11.8%), 공공행정 · 국방(9.0%), 소매서비스(8.2%), 육상운송(7.6%), 통신 · 우편(3.9%), 건설(3.7%) 및 광물(3.5%)이다. [표 3-9]는 이 순서로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을 분해한 후 재수출 비중(7열)을 포함한 중요 분해 항목을 보여준다.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 주요 품목 중 제1 수출산업인 금속의 분해 결과를 보면 대한국 수출 및 대카자흐스탄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이 각각 17.9% 및 34.4%이다. 대카자흐스탄 수출의 경우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이 강하나 대한국 수출의 연계성은 카자흐스탄 경우의 절반 정도이다. 즉 키르기스스탄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지만, 대한국 수출의 경우는 중간재 재수출 형태의 연계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국수출은 한국에서의 소비가 증진되지 않는 한 그렇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3-9.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

(단위: %)

수출국	산업	수입국	DVA	DVA_FIN	DVA_INT	DVA 재수출 합계	DVA_INT rexl1	DVA_INT rexF	DVA_INT rexl2	FVA	OVA_FIN	MVA_FIN	OVA_INT	MVA_INT
키르기스스탄	금속	러시아	68.0	65.4	1.5	1.1	0.7	0.1	0.2	32.0	20.9	10.5	0.5	0.2
키르기스스탄	금속	카자흐스탄	78.6	11.3	32.9	34.4	25.1	2.8	6.5	21.2	4.3	1.1	12.5	3.3
키르기스스탄	금속	한국	72.2	28.5	25.8	17.9	8.2	7.4	2.3	26.0	13.5	0.1	12.2	0.1
키르기스스탄	1차산품	러시아	75.8	68.2	6.7	0.8	0.4	0.3	0.1	24.2	18.0	4.0	1.8	0.4
키르기스스탄	1차산품	카자흐스탄	76.2	35.8	36.4	4.0	1.5	2.1	0.4	23.3	9.0	2.5	9.2	2.6
키르기스스탄	1차산품	한국	64.7	27.9	23.1	13.7	7.0	4.9	1.9	16.5	8.9	0.1	7.4	0.1
키르기스스탄	소매	러시아	81.2	16.6	45.9	18.8	13.2	2.2	3.4	18.7	3.6	1.3	10.1	3.7
키르기스스탄	소매	카자흐스탄	76.9	76.9	0.0	0.0	0.0	0.0	0.0	23.1	15.5	7.6	0.0	0.0
키르기스스탄	소매	한국	73.9	7.4	39.5	26.9	13.6	9.6	3.7	14.0	2.2	0.0	11.7	0.1
키르기스스탄	공공행정-국방	러시아	81.5	4.1	51.3	26.1	18.6	3.2	4.3	18.3	0.9	0.4	11.6	5.4
키르기스스탄	공공행정-국방	한국	82.5	14.4	38.2	29.9	16.2	9.7	4.0	17.4	4.7	0.0	12.5	0.1
키르기스스탄	공공행정-국방	카자흐스탄	75.1	75.1	0.0	0.0	0.0	0.0	0.0	24.9	19.5	5.4	0.0	0.0
키르기스스탄	건설	카자흐스탄	56.7	8.7	43.6	4.4	3.3	0.5	0.7	43.2	6.0	1.2	29.9	6.1
키르기스스탄	건설	러시아	62.1	0.1	45.6	16.4	11.7	1.8	2.8	37.8	0.1	0.0	28.3	9.3
키르기스스탄	건설	한국	64.8	7.9	33.7	23.3	12.0	8.0	3.2	34.3	6.5	0.1	27.5	0.2
키르기스스탄	광물	카자흐스탄	83.0	7.5	36.7	38.8	27.3	4.3	7.1	16.0	2.0	0.8	9.6	3.7
키르기스스탄	광물	러시아	78.5	14.6	42.9	20.9	15.2	2.1	3.6	20.8	4.2	1.1	12.3	3.2
키르기스스탄	광물	한국	25.9	12.3	7.9	5.7	2.9	1.8	0.9	7.3	4.4	0.0	2.8	0.0
키르기스스탄	가공식품	카자흐스탄	43.5	36.0	6.9	0.7	0.4	0.2	0.1	56.4	32.5	14.9	6.2	2.8
키르기스스탄	가공식품	러시아	43.6	30.4	12.4	0.8	0.6	0.1	0.1	56.3	30.3	9.8	12.3	4.0
키르기스스탄	가공식품	한국	14.8	8.5	3.7	2.6	1.4	0.9	0.4	16.0	11.0	0.1	4.8	0.0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20a, 2020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2)를 토대로 저자 계산.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 제2, 제6 및 제7 품목인 1차산품, 광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도 금속의 경우와 유사하다. 대한국 수출의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이 각각 13.7%, 5.7% 및 2.6%로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이 강하지 않다.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이 중간재 재수출과 연계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제3, 제4 및 제5 수출산업인 소매, 공공행정·국방 및 건설은 어느 정도의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산업에 있어서의 중간재 재수출 비중(DVA_INTrex)이 각각 26.9%, 29.9% 및 23.3%이기 때문이다. 최종 수요 방향으로의 GVC 연계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한국의 내수가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키르기스스탄의 대한국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는 점과 MRIO의 키르기스스탄 통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세심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AEU의 대한국 수출 주력산업별 중간재 재수출 비중 지표로 타이프 2 수직분업 정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광물, 코크·정유·핵연료, 도매, 육상운송, 금속 부문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금속, 도매, 코크·정유·핵연료에서 중간재 재수출에 기반한 강한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 부문들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수출이 한국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는 정도가 컸다.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이 산업들에서는 향후에도 최종 수요 방향으로의 GVC 구조에 기반하여,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질서 체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타 이 국가들의 대한국 주력 수출산업에서는 이러한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이 약했는데, EAEU의 대한국 수출이 많은 부분 한국 역내에서 최종소비되는 특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최종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EAEU의 대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요약

본 장에서는 WWZ 분해에 기반하여 한국과 EAEU 간 두 가지 연계성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한국과 EAEU 각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타이프 1 수직분업과 상대국의 수출 유발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 EAEU 각국의 대상대국 수출이 유발하는 타이프 2 수직분업과 상대국의 수출 유발효과이다.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전자 · 광학, 화학 · 제약, 금속, 코크 · 정유 · 핵연료, 기계, 기타 사업서비스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에서 대세계 수출이 증가하면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증가한다.[157] 향후에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러시아 간 동 연관성의 강도는 중국, 일본 및 미국과의 연계성 강도에 비해 작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이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광물, 육상운송, 도매, 코크 · 정유 · 핵연료, 금속, 전기 등 러시아의 주력 수출산업에서 대세계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증가하는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이 존재한다. 향후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동 연계성에 따라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한국 간 동 연관성의 강도는 러시아와 독일 등 EU 선진국, 중국 및 미국의 연계성 강도에 비해 작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사이에는 이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이 크지 않았다.

---

157)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시장 거래의 작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거래가 투자 또는 비교우위 무역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또는 사회 문화적 유대성 및 과거의 인위적 정책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EAEU 수출 주력산업에서 타이프 2 수직분업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러시아 화학·의약 수출, 한국의 대키르기스스탄 금속 수출, 그리고 한국의 대러시아 및 대카자흐스탄 기타 사업서비스 수출 정도에서 중간재 재수출을 매개로 한 타이프 수직분업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 부문들에서의 한국의 대EAEU 수출이 상대 국가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고 있다. 이 네 가지 경우는 한국의 이 국가들로의 수출이 이 국가들의 제3국으로의 수출과 연계되고 있어 향후에도 한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EAEU의 대한국 수출 주력 산업별로 타이프 2 수직분업 정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광물, 코크·정유·핵연료, 도매, 육상운송, 금속 부문과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금속, 도매, 코크·정유·핵연료에서 중간재 재수출에 기반한 강한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 8가지 경우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출이 한국의 제3국 수출과 연계되는 타이프 2 수직분업이 존재하였다. 이 8가지 대한국 수출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자연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대세계 수출에서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관성이, 그리고 일부 주력 수출 산업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출에서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이 존재한다. 이 연계성의 강도가 약하지는 않지만 아주 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연계성과 이에 따른 상대국의 수출 유발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양 권역간의 특별한 유대관계 또는 인위적인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발전한 GVC 구조와 한국의 높은 참여 정도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3-10]은 여태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여 나타낸다.

표 3-10. 수직분업 분석 요약 표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이프 1 연계성	타이프 2 연계성			타이프 1 연계성	타이프 2 연계성	타이프 1 연계성	타이프 2 연계성	타이프 1 연계성	타이프 2 연계성
	대세계	대러시아	대카자흐스탄	대키르기스스탄	대세계	대한국	대세계	대한국	대세계	대한국
1차산품					◎	○	○		○	△
가공식품	○	○	○	○					◎	○
광물					△	◎	△	○	○	○
코크-정유-핵연료	◎	○	○	○	○	○	○	◎		
섬유-의류	△	○	○	○						
화학-제약	◎	△	△	○						
금속	○	△	△	◎	○	△	○	◎	◎	△
기계	○	○	○	△						
전기전자-광학	△	○	○	△						
수송기기	○	○	○	○						
전기-가스-수도					◎	○	△			
건설									◎	○
도매					○	◎	△	◎		
소매									○	○
육상운송					◎	◎	○	○	◎	
기타사업서비스	△	△	△	○			○	△		
공공행정-국방									○	○
통신-우편										
보건복지	○	○		○	○					

주: 1) ◎, ○, △, ◦는 각각 아주 강함, 강함, 보통, 약함을 의미함.
2)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은 한국 및 EAEU 각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EAEU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EAEU 또는 한국의 각 수출국으로의 수출) 정도를 위미함. 타이프 2 수직분업은 한국 및 EAEU 각국의 EAEU 각국 및 한국으로의 수출이 유발하는 수입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 정도를 위미함.
자료: 저자 작성.

나.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협력의 큰 방향

본 장의 1절에서 타이프 1 및 타이프 2 수직분업의 강도에 따라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는 두 지표 모두 강한 연계성을 보이는 경우, 둘

째는 두 지표 모두 낮은 강도를 보이는 경우, 셋째는 타이프 1 수직분업 강도는 크나 타이프 2 수직분업 강도가 작은 경우, 넷째는 타이프 1 수직분업 강도는 작으나 타이프 2 수직분업 강도가 큰 경우이다. [표 3-10]의 요약 표를 보면 한국-러시아 관계는 대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셋째 경우에 해당하며,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넷째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양국간 상호협력 정도 및 발전 잠재력의 제약 요인은 러시아의 낮은 GVC 편입 정도이고 성장요인은 한국의 강한 세계시장 참여도이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특별한 경제협력 정책을 실시할 경제적 유인은 크지 않으며,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내수시장 확대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조건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양국간 상호협력 정도 및 발전 잠재력의 제약 요인은 러시아의 세계시장 참여 정도이고 성장요인은 한국의 강한 GVC 연결성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한국과 특별한 경제협력 정책을 실시할 유인이 있다. 또한 러시아의 시장경제 도입과 활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면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카자흐스탄 관계는 기본적으로 한국-러시아 경우와 유사하다. 상호협력의 성장요인과 제약요인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단 한국-러시아의 경우와 비교하여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한국→카자흐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는 기본적으로 한국-카자흐스탄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상호협력의 성장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제약요인은 상대적으로 더 작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결성은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키르기스스탄의 입장에서는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결성이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달리 강하다. 또한 한국→키르기스스탄 수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특성은 카자흐스탄의 경우보다 더 크다.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EAEU 경제협력의 큰 방향은 정부 주도의 의도적인 대규모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의 실행보다는 민간 주도, 시장 주도 및 중소형의 자율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정부는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투자 및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 즉 러시아의 세계시장 수출능력, GVC 등 세계시장 참여도 증진, 한국의 GVC 활용 능력, 한국기업의 러시아 투자 장애요인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 정책적 시사점 2: 현재 시장에서의 중점 협력 산업

[표 3-10]은 협력관계가 이미 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중점 협력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산업군은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 산업군의 수출이 유발하는 EAEU의 대한국 수출 산업이다. 광물, 코크 · 정유 · 핵연료, 금속, 도매, 육상운송이 그 예이다(케이스 1). 둘째 산업군은 한국의 내수로 소비되기 위해 수입되는 산업으로 1차 산품이 대표적이고 광물과 코크 · 정유 · 핵연료도 이에 해당된다(케이스 2). 셋째 산업군은 EAEU 권역에서 소비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EAEU가 수입하고 한국이 수출하는 산업으로 수송기기, 전기전자 · 광학, 화학 · 제약, 금속, 섬유 · 의류 및 가공식품 등이다(케이스 3).

열거한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무역협력에 초점을 맞춰서는 큰 의미가 없다. 첫째, 정부 주도 및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이 산업군에서의 협력방안을 새로이 구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케이스 1, 2 산업군의 광물, 코크 · 정유 · 핵연료, 금속의 경우 이미 진출한 투자기업의 애로요인 해소방안은 투자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관세

인하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케이스 2의 도매, 육상운송은 당해국의 문제일 것이고, 케이스 3의 경우 또한 투자 및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포함하여 대부분 EAEU 측의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정리하면 이미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협력 구조와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투자협력에 초점을 두면 투자 관련 대형 프로젝트 및 투자기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제도 구축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동 산업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 및 관련 정보 제공이다. 둘째는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및 현지 운영과 관련된 장애요인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부간 협력 및 소통체계의 제도화와 관련된 노력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의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하는 것도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고양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 권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라. 정책적 시사점 3: 미래지향적 중점 협력 산업

앞에서는 'picking the winners'의 관점에서 중점 협력 산업을 거론했지만 협력의 방향을 'creating the winners'의 시각에서 보면 앞의 논의와 다른 중점 협력 산업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협력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일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세분화된 산업에서 중소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다양한 중점 협력 산업을 도출할 수 있다. EAEU 측 수요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 디지털 기기, 의약, IT 서비스(통신 · 우편), 의료 · 보건 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158] 디

158) 박정호 외(2017a), pp. 168~172.

지털 기기는 MRIO 분류상 전기전자 · 광학의 세부산업이고, 의약품은 MRIO 분류상 화학 · 의약의 세부산업이며, 의료 · 보건은 MRIO 분류상 보건 · 복지의 세부 산업이라 본 장에서 더 이상의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중점 협력 산업인 기계, IT 서비스(통신 · 우편), 의료 · 보건 서비스에서의 분해 결과를 보면 [표 3-11]과 같다. 첫째, 동 3개 산업에서의 한국의 대EAEU 수출의 대부분은 최종재나 중간재 형태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최종 소비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IT 서비스(통신 · 우편)와 의료 · 보건 서비스의 경우 수출에 포함된 외국 부가가치비중(FVA)이 크지 않으나 기계의 경우 이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동 3개 산업은 물론이고 의약품 및 디지털 기기 부문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양 권역 모두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표 3-11. 한국의 대EAEU 중점 협력 산업 수출의 분해

(단위: %)

수출국	수출산업	수입국	**DVA**	DVA_FIN	DVA_INT	DVA 재수출 합계	DVA_INT rexl1	DVA_INT rexF	DVA_INT rexl2	**FVA**	OVA_FIN	MVA_FIN	OVA_INT	MVA_INT
한국	기계	러시아	**54.1**	33.5	13.4	7.2	5.3	0.8	1.2	**45.7**	31.8	1.0	12.7	0.4
한국	기계	카자흐스탄	**52.5**	40.5	8.0	4.0	2.8	0.6	0.6	**47.4**	39.5	0.1	7.8	0.0
한국	기계	키르기스스탄	**57.4**	2.8	40.7	13.8	7.1	5.3	1.4	**42.6**	2.7	0.0	39.8	0.0
한국	통신-우편	러시아	**77.6**	41.7	26.7	9.2	6.9	0.7	1.6	**22.1**	13.1	0.4	8.4	0.2
한국	통신-우편	카자흐스탄	**78.4**	19.7	46.6	12.2	8.8	1.8	1.7	**21.4**	6.4	0.0	15.0	0.0
한국	통신-우편	키르기스스탄	**77.3**	47.7	22.1	7.5	3.4	3.4	0.7	**22.6**	15.5	0.0	7.2	0.0
한국	보건-복지	러시아	**74.2**	42.1	23.9	8.2	5.9	0.9	1.4	**24.6**	15.1	0.6	8.6	0.3
한국	보건-복지	키르기스스탄	**72.9**	72.3	0.5	0.1	0.0	0.0	0.0	**27.1**	27.0	0.0	0.2	0.0

자료: 저자 계산.

마. 정책적 시사점 4: 한-EAEU FTA

한-EAEU FTA 관련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EAEU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의 타이프 1 수직분업 연계성과 EAEU의 대한국 수출에서의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 등 EAEU로부터의 광물 등 중간재 수입 관세 인하는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러시아 등 EAEU의 對한국 수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수입 관세율은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라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EAEU의 관세 인하 노력 또한 필요하다. EAEU 국가들은 산업구조의 자원 및 에너지 산업 편중성과 제조업의 낮은 발전 및 수입대체 지향성 등의 특성에 따라 FTA를 통한 개방과 자유무역질서 체계에서의 성장이라는 장기 산업발전 전략에 이르지 못하고 단기적인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양권역 간의 타이프 1 및 타이프 2 수직분업 연계성의 다른 측면에는 한국기업의 EAEU 투자 및 이 기업들의 대한국 및 대세계 수출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FTA 논의를 통해 바로 이 투자 및 투자기업 현지 활동에서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향후 양 권역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AEU 특성상 제약 사항이 많은 이 영역에서 투명성 제고, 법의 지배, 거버넌스 개선 등이 요구된다.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한국과 EAEU 간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GTAP 10.0을 이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CGE)[159] 분석을 실시한다. GTAP 모형은 144개 국가(군)와 65개 산업연관표[160]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21개의 1차 산업, 25개의 제조업, 20개의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의 편의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와 산업에 대해 먼저 다음과 같은 재분류 작업을 실시한다.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완전경쟁 재화시장을 가정한다. 모형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모형은 산업간 자유로운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지만, 토지는 산업에 고정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 각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은 주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하다. CGE 모형은 소비에서 Armington(1969) 가정을 채택함으로서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를 불완전대체재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국내재화와 수입재화 간의 불완전대체성을 가정함으로써 전통적 국제무역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를 불변대체탄력성(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나타내고, 양 재화의 대체탄력성 크기는 CGE 모형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아니라 외부에서 추정된 외생변수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가정에는 일부 추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즉 국내재화와 수입재화 간에 존재하는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CGE 모형은 한국산 부품과 러시아산 부품의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한국산 부품과 중국산 부품의 대체탄력성과 같다고 취급한다. 따라서 국가별로 상이한 수입재화간의 대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관세율 인하와 같은 외생변수의 변화로 인한 수

159) CGE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oven and Walley(1992), Francois and Reinert(1997) 등을 참고.

160) GTAP 데이터의 자세한 내용은 Aguiar, Corong, and McDougall(2019) 참고.

입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별 재화의 대체탄력성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위와 같은 가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CGE 모형 내 생산부문은 레온티에프 고정계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즉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성된 복합재(composite goods)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된 본원적 생산요소 간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Leontief production function)를 가정한다.

CGE 모형은 투자와 저축을 내생변수로 취급한다. 저축과 투자 간의 항등식은 자본재 가격의 조정으로 성립된다.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과 한계저축성향의 관계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며, 정부저축은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 개념으로 정의되고, 해외저축은 무역수지 적자로 정의한다.

GTAP 모형에서 한 산업의 수입재화는 무역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된 재화의 복합재로 구성되고, 수입재화량과 국내에서 생산된 공급량의 복합재가 국내수요량으로 정의된다. 모든 거래 가능한 재화에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특정 국가간에 자유무역이 발생하면 관세율 하락을 외생적으로 부여한다. 관세율 하락은 수입재화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그 재화의 국내시장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 투자, 중간투입재로 사용되는 복합재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수입재의 가격하락은 국내재의 상대적 가격상승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국내재의 수요량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재의 가격하락은 국내재의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복합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재 가격하락이 국내재 수요증가로 이어진다.

본 연구처럼 여러 국가간의 관세율 하락에 따른 복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부분균형분석 방법보다 일반균형분석 방법이 더 유용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TAP 모형을 사용한다.

먼저 국가를 한국, EAEU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중국, 일본, EU28, 기타 국가 등 10개의 국가(군)로 분류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국과 EAEU 외에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칠 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중국, 일본을 따로 분류하고, EAEU와 인접한 유럽에 미치는 간접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EU 28개국을 따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모형에 내재되어 있는 65개의 산업을 총 18개 분야로 재분류한다. 5개의 1차 산업, 8개의 제조업, 5개의 서비스업(도매 · 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으로 크게 분류한다. 1차 산업은 곡물, 육류, 수산물, 임산물, 광물로 구분한다. EAEU 회원국의 수출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광물과 1차 산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대분류 수준에서 구분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산업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더 이상 세분류하지는 않는다. 1차 산업에서의 협력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가공식품, 의류 · 직물,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금속, 전기 · 전자, 수송기기, 기타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EAEU는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수송기기, 전기전자, 화학, 금속, 기계, 가공식품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바, 산업분류를 가능한 세세하게 분류하기로 한다.

한국과 EAEU 간의 서비스 무역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EAEU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을 구분지어 본 모형에 반영한다. 서비스업 중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도매업, 육상운송업, 카자흐스탄은 도매업, 육상운송업, 사업 서비스업, 키르기스스탄은 소매업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서비스 산업의 분류를 크게 도매 · 소매업, 운송업, 사업 서비스업, 보건복지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 짓는다.

표 4-1. 국가분류 및 산업분류

국가분류		산업분류	GTAP 분류
한국		곡물	1~8, 23
EAEU	러시아	육류	9~12, 19, 20
	카자흐스탄	수산	14
	키르기스스탄	임산	13
	벨라루스	광물	15~18
	아르메니아	가공식품	21, 22, 24~26
중국		의류 · 직물	27, 28
일본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32~35
EU28		금속	36~39
기타국가		전기 · 전자	40, 41
		기계	42
		수송기기	43, 44
		기타제조업	29~31, 45
		도매, 소매	50
		운송서비스	52~54
		보건복지	64
		사업서비스	56~60
		기타서비스업	46~49, 51, 55, 61~63, 65

자료: 저자 작성.

EAEU 회원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러시아와의 FTA 추진 논의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에 양국은 FTA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협상은 시작되지 못하였고, 2019년에 들어서야 FTA 첫 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협상 분야 또한 제한적이다. 현재 양국은 상품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한정하여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EAEU 간의 FTA에 관한 연구는 윤성학(2018), 정재원(2020) 등이 대표적이다. 윤성학(2018)은 한국과 EAEU FTA의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이들간의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예측하고, 성공적 FTA 체결을 위한 추진전략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정재원(2020)은 GTAP 9 버전의 CGE 모형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

였다. 양국간의 완전관세철폐를 가정한 정재원(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를 통해 한국의 GDP는 0.061%, 수출과 수입은 각각 0.497%, 0.1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TAP 모형에 내재된 양자간 관세율은 [표 4-2]와 같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의 대EAEU 수입관세율보다 EAEU 각 회원국들이 한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수송기기 분야에서의 관세율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EAEU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50.0%, 러시아 27.5% 등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GTAP 모형에서 양자간 관세율을 철폐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한국의 수송기기 분야에는 이득이, EAEU 회원국들에게는 손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EAEU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동 산업의 경쟁력이 한국에 비하여 떨어지고 양자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표 4-2. 한국의 대EAEU 관세율

(단위: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곡물	427.00	0.00	16.60	3.02	0.00
육류	10.00	7.80	0.00	43.10	0.00
수산	19.90	0.00	0.00	0.00	0.00
임산	0.00	0.00	0.00	0.00	0.00
광물	2.47	2.98	0.00	0.21	0.00
가공식품	11.60	2.16	0.00	44.30	5.55
의류 · 직물	9.37	5.29	8.22	11.30	9.22
화학류	3.11	0.35	0.00	0.03	2.29
금속	1.03	1.97	1.04	7.62	2.65
전기 · 전자	4.55	5.60	2.69	0.93	6.85
기계	5.18	5.31	8.00	5.59	8.00
수송기기	0.90	0.42	0.00	6.94	7.30
기타 제조업	2.58	1.77	2.63	6.13	0.00

자료: GTAP 내재 데이터.

표 4-3. EAEU의 대한국 관세율

(단위: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곡물	5.11	4.20	0.01	0.00	0.00
육류	5.74	0.00	4.02	0.00	0.00
수산	6.00	7.10	0.00	0.00	0.00
임산	8.36	0.00	0.00	0.00	0.00
광물	3.81	4.05	3.33	0.00	0.00
가공식품	16.1	19.30	10.30	0.00	9.98
의류 · 직물	7.76	11.90	8.24	8.13	6.72
화학류	7.99	7.97	1.22	9.60	2.62
금속	6.84	8.57	3.66	9.70	1.10
전기 · 전자	4.51	5.83	5.36	3.84	8.30
기계	2.49	2.65	0.94	3.63	1.97
수송기기	27.50	50.0	9.75	14.80	7.60
기타 제조업	8.45	11.6	1.83	5.33	1.25

자료: GTAP 내재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과 EAEU 간의 완전 무역자유화를 가정한다.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과 개도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EAEU 간의 무역협상에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보다는 일정 산업을 보호하는 부분 무역자유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국간의 무역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협상의 배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개방을 가정하기로 한다. 국가별 상이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실제 협상에서는 일부 산업을 완전 개방하고 다른 산업은 보호하는 협상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소 과대 예측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완전개방을 가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개방화에 따른 무역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FTA를 통해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을 구분하고 어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지를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부표 4-1]은 부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추가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 러시아와의 FTA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협상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2는 러시아와의 상품 분야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EAEU 국가들과의 개방률을 50%로 가정한 아주 낮은 수준의 FTA를 가정하였고, 시나리오 3은 러시아와는 동일한 조건의 협상을 하고 나머지 EAEU 국가들과는 완전개방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FTA가 아주 낮은 경제적 이득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개발을 가정하지 않은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의 결과가 러시아의 개발을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결과보다 아주 작게 나타난다.

무역자유화의 단기효과 및 중장기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표준모형(standard model)과 자본축적모형(capital accumulation) 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표준모형은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입 및 그에 따른 생산의 변화 등 관세인하의 일차적 및 직접적 효과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즉 표준모형은 양국간의 관세 인하로 인해 낮아진 수출재화 및 수입재화의 가격을 통해 양국간의 무역창출효과가 일차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자본축적모형은 일차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로 인한 자본이 경제에 축적되고, 생산부문에 재투자되는 과정을 통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표준모형의 결과를 단기적 경제효과,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를 중장기 경제효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EAEU 간의 FTA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표준모형과 자본축적모형의 결과에서 나타난 GDP, 수출, 수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먼저 한국과 EAEU 간의 완전한 관세철폐를 가정한 FTA 체결을 가정하면 한국의 GDP는 약 0.74~1.93% 증가한다.[161] 반면 EAEU의 GDP는 한국보다는 작은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FTA를 통해 한국이 더 큰 무역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AEU 회원국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의 GDP 증가폭이 가장 크다. 카자흐스탄은 표준모형에서 0.19%, 자본축적모형에서 1.15%의 GDP 증가를 보여준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0.12%의 GDP 증가가 이루어진다.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벨라루스는 FTA를 통해 GDP가 소폭 감소한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상품 분야를 제외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관세자유화의 기본적인 시나리오 이외에도 다음의 시나리오에 바탕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 분야를 제외한 FTA 협상(시나리오 3)의 결과와, 추가로 한국과 EAEU 간 완전관세철폐가 아닌 부분철폐(50% 관세삭감)을 가정한 FTA 협상(시나리오 2)의 결과를 부록에 첨부한다. 각 시나리오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러시아와의 상품관세 철폐여부이다. 러시아와 상품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FTA가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EAEU FTA가 역외국인 중국, 일본, EU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 이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GDP 변화는 거의 없으며, 일본만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161) 이 결과는 정재원(2020)의 연구 결과(GDP 0.061% 상승)와는 차이가 있다. 정재원(2020)의 시나리오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표 5-1]의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의 상품교역을 배제한 시나리오에서 GDP 상승률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GDP 상승의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상품교역 자유화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표 4-4. GDP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한국		0.74	1.93
EAEU	러시아	0.01	0.12
	카자흐스탄	0.19	1.15
	키르기스스탄	-0.05	-0.22
	벨라루스	-0.04	-0.12
	아르메니아	0.03	0.03
중국		0.00	0.00
일본		0.00	0.01
EU28		0.00	0.00
기타 국가		0.00	0.00

자료: 저자 작성.

[표 4-5]는 각 모형에 따라 나타나는 국가별 수출입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한국의 수출은 단기에는 소폭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은 시간적 구분 없이 모두 증가한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입의 증가폭보다 수출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무역수지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EAEU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수출과 수입 모두 한국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EAEU 회원국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는 수출이 0.58~0.69% 증가, 수입이 1.93~2.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자흐스탄은 단기적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FTA 발효 이후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외국의 수출입에는 큰 변동은 없으나, 중국의 수출입은 양국의 FTA를 통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한국		-1.35	0.10	0.32	0.56
EAEU	러시아	0.58	1.93	0.69	2.00
	카자흐스탄	-0.11	0.24	0.72	0.41
	키르기스스탄	1.33	-0.31	1.25	-0.43
	벨라루스	-0.16	-0.36	-0.22	-0.44
	아르메니아	-0.04	-0.16	-0.03	-0.05
중국		-0.04	-0.11	-0.03	-0.04
일본		0.01	0.00	0.00	0.01
EU28		0.00	-0.02	-0.01	-0.02
기타 국가		0.01	-0.06	-0.02	-0.04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한-EAEU FTA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이 FTA를 통해서 제일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가공식품, 육류, 수송기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공식품은 18.97~19.80%, 육류는 6.33~6.66%, 수송기기는 약 4.06~5.99%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송기기의 생산증가율은 낮지만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FTA 시 GDP 증가 기여도가 제일 큰 산업은 수송기기 분야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일 큰 피해를 볼 산업은 곡물산업으로서 약 12%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 규모도 대체로 증가한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 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액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도매·소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의 생산 규모가 각각 0.34~2.01%, 0.49~1.16%, 0.35~0.6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6. 한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산업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곡물	-12.09	-12.03
육류	6.33	6.66
수산	1.43	1.63
임산	2.37	2.95
광물	-2.61	-1.00
가공식품	18.97	19.80
의류 · 직물	-0.22	0.72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0.51	0.54
금속	-1.85	-0.07
전기 · 전자	-4.75	-1.80
기계	-3.31	-1.19
수송기기	4.06	5.99
기타제조업	-0.21	0.73
도매, 소매	0.34	2.01
운송서비스	-0.35	0.18
보건복지	0.49	1.16
사업서비스	0.35	0.69
기타 서비스업	0.60	1.85

자료: 저자 작성.

한-EAEU FTA가 EAEU 회원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표 4-7]과 같다. 먼저 러시아는 곡물, 수산, 광물 산업이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기전자,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피해가 다소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생산감소가 나타나고 서비스업은 소폭의 생산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송기기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과의 산업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에 나타나는 산업생산 변화의 특징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와 상반된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증대가 예상되나 서비스업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송기기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우처럼 생산감소가 예측된다. 벨라루스와 아

르메니아의 생산은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벨라루스는 대부분의 1차 산업과 제조업 생산의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폭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EAEU 회원국의 산업생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별 · 산업별로 FTA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는 일률적이지 않다. 일부 국가는 제조업에서 피해를 보는 반면, 일부 국가는 서비스 산업에서 피해를 본다. 한국 또한 산업경쟁력이 없는 1차 산업에서 EAEU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일률적이기보다는 국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별 산업생산의 변화 양상은 다양하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에서 수송기기 분야의 생산 감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수송기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철도, 선박 등 대부분의 수송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EAEU 회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서비스 산업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AEU 회원국 중에서도 개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서비스 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해 이 국가들의 서비스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국가들에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의 선진화된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표 4-7. EAEU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표준모형)

(단위: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곡물	15.78	-0.01	0.31	0.42	0.30
육류	-0.62	0.10	-0.06	0.48	-0.31
수산	0.71	0.03	-0.10	0.08	0.08
임산	-0.29	-0.03	-0.23	0.28	-0.06
광물	0.02	-0.03	0.23	0.32	-0.18
가공식품	-0.58	-0.12	0.11	0.43	-0.05
의류 · 직물	-0.57	-0.39	0.66	0.62	-0.06
화학 · 고무 · 플라스틱	-0.42	-0.34	0.20	-0.15	-0.14
금속	-0.63	-0.54	1.16	0.26	-0.23
전기 · 전자	-0.67	-1.07	0.36	0.44	-0.06
기계	-0.19	-0.22	3.74	0.75	0.44
수송기기	-6.75	-15.46	-7.94	-2.71	-0.84
기타 제조업	-0.42	-0.46	0.36	0.49	-0.28
도매, 소매	-0.06	0.05	-0.29	0.08	-0.01
운송서비스	-0.20	0.02	0.09	0.14	-0.02
보건복지	-0.15	0.04	-0.41	-0.10	-0.01
사업서비스	-0.38	0.07	0.24	0.16	-0.02
기타 서비스업	-0.02	0.14	-0.24	-0.07	-0.02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주변 국가에서 벌어지는 여러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중에서 한국과 EA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GDP, 수출입 및 산업 생산 등에 미치는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EAEU FTA의 발효는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생산 전반에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과 EAEU FTA를 통해 긍정적 수출 효과를 시현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영향 정도를 정리하면, FTA 발효 시 한국 곡물 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육류, 가공식품에 비하여 수송기기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한다면, 비록 수송기기 생산의 증가폭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장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을 세세하게 분류하여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그리고 국가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 국가들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 협력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양자간 완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비교열위 산업인 곡물(쌀 포함)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별 영향평가를 면밀히 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예를 들면 곡물 산업에서의 양허제외 품목을 선별하여 해당 품목의 자유화를 예외로 삼거나 유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

리한 결과를 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송기기 분야는 FTA를 통해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분야인 반면, EAEU 국가들은 동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수송기기 분야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피해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AEU 국가들 중에서도 산업별 발전 정도가 상이하다. 즉 국가간 산업경쟁력이 다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업에서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있는 반면 긍정적 효과를 보는 국가도 존재한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다르게 존재한다. 한국이 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각 국가의 산업별 발달 정도와 개방에 따른 영향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국별 산업별 맞춤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제거 및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유화 의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일련의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제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별로 관세상당치를 가정해야 하며, 그 가정하에 무역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향후 무역자유화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부록]

부록 표 4-1. GDP에 미치는 영향(표준모형)

(단위: %)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3[2]
한국		0.00	0.01
EAEU	러시아	0.00	0.00
	카자흐스탄	0.09	0.19
	키르기스스탄	-0.01	-0.16
	벨라루스	-0.00	-0.01
	아르메니아	-0.00	0.00
중국		0.00	-0.00
일본		0.00	0.00
EU28		-0.00	-0.00
기타국가		0.00	-0.00

주: 1) 시나리오 2는 한국과 러시아는 상품관세 유지, 한국과 나머지 EAEU 국가 간 관세율 50% 삭감 가정.
2) 시나리오 3은 한국과 러시아는 상품관세 유지, 한국과 나머지 EAEU 국가 간 관세철폐 가정.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 · 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EAEU와의 산업협력을 위한 적정 분야 선정은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따랐다. 첫째는 본 연구의 앞선 계량분석 결과이다. 계량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협력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 부문을 선택하였다. 한국과 EAEU 각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타이프 1 수직분업과 한국과 EAEU 각국의 대상대국 수출이 유발하는 타이프 2 수직분업을 통해 의약 · 제약 분야의 산업연계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의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제약과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EAEU와의 전반적인 의료 · 보건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는 현재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EAEU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EAEU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이 주로 천연자원의 채굴과 가공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지는 국가들과 이 국가들에 의존하는 방식을 통해 성장하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대체로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의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 측면에서, 후자의 국가들은 EAEU 가입을 통한 시장 확대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경제발전의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인 EAEU의 시장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명명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한국과 EAEU 간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디지털 경제 및 혁신 산업' 부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EAEU는 디지털 경제 구축을 경제연합체 차원의 중요

한 어젠더로 설정하고, 모든 회원국의 디지털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같이 EA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 무인자율주행차, 디지털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구축 등의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도 미래시장의 선점과 주도를 위해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의 경쟁력은 디지털 하드웨어 분야에 있으며 이와 같은 경쟁력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EAEU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과 상보적인 입장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와 혁신 산업 부문 선정은 양국의 향후 미래협력의 과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그동안 EAEU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안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간의 교역이 다른 경제연합체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주요 원인은 각 회원국이 대체로 자원 · 에너지 의존적인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지만, 수출입 및 통관과 관련한 인프라나 제도의 미비와 절차의 복잡성 등도 교역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는 각 회원국의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AEU 회원국들은 지역 내에서 IT 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여 각 국가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산업을 EAEU 통합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AEU 회원국들의 IT 및 디지털 산업 육성계획과 EAEU 차원의 디지털 경제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 중이다. 먼저 EAEU는 2016년 이후 경제연합 차원에서의 디지털 경제 구축 방향에 대해 세

표 5-1. EAEU의 디지털 어젠더 추진방향

구분	주요 내용
추진 필요성	• 디지털화되지 않은 전통자산의 가치하락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두뇌 유출 방지 •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디지털화의 배경이 되는 전통적인 제도와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상실 • 디지털로 '연계된(connected)' 국가 및 주체와 그렇지 못한 것 사이의 간극을 만들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과 플레이어들의 확산 • 디지털 기술은 국가나 지역 간의 경제통합에서 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와 국가의 성장에 있어 주요 요인, 디지털화는 EAEU의 경쟁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 가능
추진 방향	• 디지털 경제 구축, 포괄적인 현대화, 지역 협력을 통한 EAEU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 인적자원 개발과 글로벌 신경제시스템 및 신시장 발전에서 EAEU 국가들의 참여 • 지역 차원에서 디지털화의 다양한 부수효과 달성 및 소비자와 비즈니스를 모두 끌어들이는 디지털 공간 마련
우선 추진분야	• EAEU 국가들의 법제화 균형과 법적 · 제도적 프레임워크 발전 •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상호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통의 디지털 공간 창조 • 공공부문, 비즈니스 주체와 개인들 간 국제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ICT 기술의 활용과 확대 • EAEU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행과 발전

자료: Navas-Sabater and Petrov(2018), p. 6.

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디지털 어젠더(Digital Agenda)'라는 형식의 추진방향으로 정리하였다.[162)]

디지털 어젠더는 ICT 기술발전과 디지털 경제 구축을 통해 각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EA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과 산업발전, 공동의 디지털 공간 창조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공동체 내에서의 디지털 경제 구축은 EAEU의 우선적인 핵심과제로 논의되어왔는데, 대부분이 자원의존국인 EAEU 국가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경제발전은 ICT 분야의 육성과 연계되어 비자원부문의 수출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163)] 2020년

162) 박지원(2019b), p. 17.

163) Voronina *et al.*(2018), p. 1022.

1월 31일 알마티(Almaty)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회의에서 이사회 의장인 Tigran Sargsyan은 EAEU 회원국은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은 EAEU 회원국 모두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164] EAEU 회원국 모두 디지털 경제 육성과 공동의 시장 창출, 더 나아가 연계된 혁신 산업 육성이라는 명제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EAEU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로 통합하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경제력 격차는 투여되는 재원의 차이로 귀결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발전 단계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러한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165]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디지털 산업발전과 디지털 공간 구축을 위한 EAEU의 추진방향에 가역성을 더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각 국가는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기울이며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EAEU 차원에서의 디지털 경제 육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ICT 기술발전을 통한 디지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7년 7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의 디지털 경제(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생태 인프라 조성과 이와 연계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기술의 육성 및 기존 산업 분야에의 디지털 기술 접목 등을 러시아 경제 디지털화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로 지식 정보화를 위한 공동의 공간 창조, ICT 기술발전, ICT 부문의 경쟁력 확보, 기술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에서 국익 확보 등 5가지를 선정했다.[166] 이후 2018년 1월 발표된 프로그램의 세부 로드맵에 따르면, 법제도 마련, 인재

---

164)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Тигран Саркисян: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страны ЕАЭС должны осуществлять вмест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165) "Eurasian Union's digital dream derailed"(2019. 12.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14).

166)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7a), pp. 1-87.

양성, 정보인프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024년까지 사용할 예산 등 세부 계획이 마련되었다.[167]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4기를 맞은 2018년 5월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과제(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2024 года)' 9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경제 육성과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168]

카자흐스탄 정부도 지난 2017년 12월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계획인 '디지털 카자흐스탄(Digital Kazakhstan)'을 채택하였다. 동 국가계획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인프라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동안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디지털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169]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육성방향으로 크게 5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표 5-2. 카자흐스탄 정부의 디지털 경제 육성방향

목표	주요 내용
경제의 디지털화	국가경제의 전통적인 산업부문을 생산성과 자본집약도를 향상시키는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
디지털 국가로의 이행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기능 전환
디지털 실크로드 실현	데이터의 전송, 저장, 처리를 위한 빠르고 안전한 인프라개발
인적자본 개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창조적 사회 구현
혁신생태계 창조	비즈니스, 학계, 정부의 안정적이고 수평적인 연결을 통해 기술, 기업가 정신,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 구축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17), p. 6.

167) 이후 2019년 5월 28일 '디지털 개발에 관한 정부 상임위원회'를 통해 상기의 4개 분야에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행정의 2개 분야를 추가하였다.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16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2024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169) Цифровой Казахста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육성방향으로 전통적인 산업부문을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화 하고, 국가 서비스의 기능적 전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을 활발히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대체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EAEU의 디지털 어젠더 추진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디지털경제화의 실현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산업별 지표로는, 2022년까지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 49.8% 달성,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30만 명, 인구의 인터넷 사용자 비중을 82.3%까지 향상 등이 있다.[170]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기반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부문 발전에도 힘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스마트 시티 육성이다. 정부는 '누르술탄(Nursultan)' 북쪽의 소도시인 '아크콜(Akqol)'을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스마트 시티의 기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크콜은 누르술탄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구 약 1만 3,000 명의 작은 도시로, 정부는 이 도시를 스마트 기능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8일 나자르바예프 당시 대통령은 아크콜을 방문하여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참관하였다.[17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의 기능이 도시의 주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수직적인 통합과 관리를 통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스마트 시티 방문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동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크콜 시는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도인 누르술탄의 스마트 시티화에 참고가 되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도시의 주민들은 시의 어

170)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7).

171) "Aqkol becomes first smart city in Kazakhstan"(2019. 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느 지역에서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행인들의 움직임과 무기 소지 여부 등을 자동적으로 포착하여 위험 여부를 감지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GPS 시스템 등을 통해 중앙통제소로 집결된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여부, 환경훼손 감시 등의 사회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교통체증이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국가들도 자국 경제의 디지털화와 IT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대체로 유사한 목적과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EAEU와 디지털 경제 구축에 있어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루카쉔코(Lukashenko) 대통령은 2017년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법령(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제8호에 서명함으로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을 갖추게 되었다.[172] 벨라루스 정부는 디지털인프라 마련과 서류 없는 무역시스템 구축, 전자정부시스템의 구현 및 주요 산업영역에서 'Industry 4.0'을 실현하는 것을 단계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173]

특히 최근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IT 서비스 분야에서 EAEU 전체를 조망했을 때, IT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전체 IT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10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에 비해 2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클라우드 시장은 공공부문의 시장 규모가 민간부문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공부문의 성장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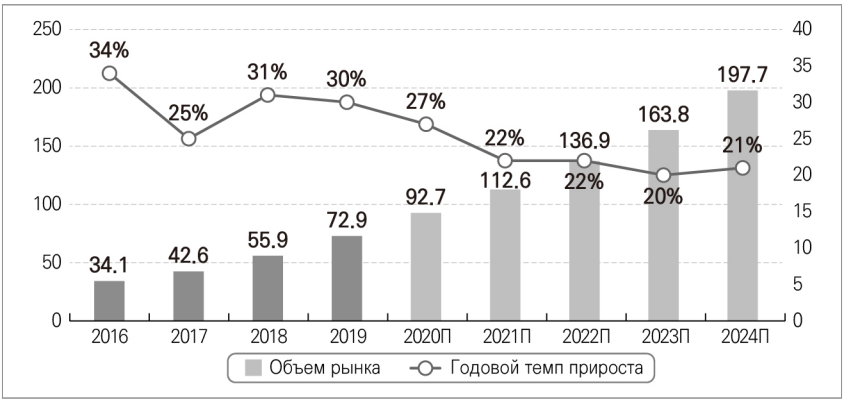
172)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2017), "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173) Stat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Belarus(2017),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Belarus is in line with world trends, by Alexander Shumili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174) "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рынок России)"(2020. 10.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1).

그림 5-1. 러시아 공공부문 IT 클라우드 시장 규모와 성장률

(단위: 억 달러)



주: 막대그래프는 시장 크기(십억 루블)를, 선형그래프는 연간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рынок России)"(2020. 10.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1).

2019년 기준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은 729억 루블을 기록해 전년대비 3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도 927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4년까지 시장 규모가 다시 1,977억 루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성장률도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서버 용량을 갑작스럽게 확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나서면서 금융, 도소매업 등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장이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의 클라우드 시장도 규모는 작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시작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시장 규모는 2배로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175]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가 촉진됨에 따라, 향후 IT서비스 분야에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들이 EAEU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선도적인 진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175) "В Казахстане резко вырос рынок облачных сервисов"(2019. 10.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1).

나. 협력방안

EAEU 회원국과의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회원국의 디지털 인프라 현황과 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발전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정보접근성 지수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이 지표에는 모바일 네트워크 가입자 비중,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비중 등이 포함된다. 2017년 측정된 정보접근성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3. EAEU 가입국의 정보접근성 지표(2017년)

구분	순위	지표
벨라루스	34	7.87
카자흐스탄	43	7.55
러시아	50	7.23
아르메니아	72	6.52
키르기스스탄	114	4.54

주: 1) 정보접근성 지표는 1에서 10까지로 측정되며 측정값이 높을수록 양호.
2) 순위는 전 세계 17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순위 미발표.
자료: ITU(2017), p. 32.

[표 5-3]에서 보이는 것처럼 EAEU 국가들마다 정보 접근성, 즉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 반면,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아직 인프라 구축이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상기 3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발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략적 프로젝트가 마련되어 있고, 협력환경 및 경제적 여건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정부의 발전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재정적 상황이나 기술적 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EAEU 디지털 시장 협력방안도 EAEU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되, 각 국가별로 차등화하여 이원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AEU와 공동의 논의가 가능

한 영역은 경제협력체 차원으로 대응하되, 디지털 역량과 혁신산업에서 상호 보완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들과는 개별적인 협력을 통해 EAEU의 디지털 협력으로 환류시키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분야에서 EAEU와 공동의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 차원에서는 디지털 경제 육성과 혁신산업에 대한 협력이 정상간 의제로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EAEU와 한국 차원에서 다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양국 공동의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EAEU 간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상간의 합의와 선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AEU 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회원국 정부간 국가원수급의 '최고의결회의(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논의를 거쳐 '정부간 의회(The Eurasian Intergovernmental Council)'와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로 하위 의사결정기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EAEU 최고의결기관과 한국 정상간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합의문에서 시작해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정상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실무그룹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협의체에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분야에 대해 실무적으로 조사, 연구, 및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틀과 로드맵을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첫째, 각 산업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 분야별로 개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개별 협의체 구성은 각 부문의 협력에 구체성을 더하고, 각 사업별 추진에 추동력을 마련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협의체에는 정부 부문의 참여가 있어야 하겠지만, 해당 분야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 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AEU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경제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들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디지털 경제 구축과 기업혁신에서 민간기업

을 제외하고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국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셋째, 각 부문의 구체적인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EAEU와 한국정부가 펀드 형태의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EAEU는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명확하게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각 과제에 따라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보완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EAEU 차원에서 공동의 협력 분야로 우선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개발과 디지털플랫폼 공간에서의 협력 강화이다. 인적자원개발은 EAEU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디지털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AEU와 한국의 디지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국가가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공동의 인적자원 교육과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디지털 하드웨어와 인프라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EAEU 국가들의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국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한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공간의 주요 사례로 삼을 만한 것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한 협력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수출입을 연계해 주는 비즈니스 플랫폼(Sberbank's Online Business Partners)을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온라인상의 B2B 또는 B2C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의 상당수가 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제품의 전용 온라인 판매몰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EAEU 국가들의 디지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EAEU 내에서의 다른 비즈니스 시장 선점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들은 기본적인 디지털 인프라는 일정 수준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국가들과는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인 협력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2035' 전략을 통해서 주요 혁신산업 부문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인항공기, 무인자율주행차, 디지털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등의 혁신산업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176] 러시아 최대의 IT 기업중 하나인 '얀덱스(Yandex)'와 한국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는데, 양사는 지난 2019년 3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협력의정서를 교환한 이래,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러시아는 2020년 6월 4세대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는데, 2020년 말까지 총 100대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177] 얀덱스는 무인택시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현대모비스는 이에 필요한 자율주행 센서와 제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가 강점을 갖고 중점 육성하려는 분야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를 우선적인 협력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산업협력은 대기업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한·러 혁신플랫폼'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해 놓았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한·러 혁신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178]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러시아 혁신산업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76) NTI 203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1).

177) "Яндекс представил беспилотный Hyundai Sonata"(2020. 6.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1).

178) 박지원(2020), pp. 47~48.

특히 러시아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육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모스크바 카네기센터(Carnegie Moscow Center)'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열세이기는 하나, 발전의 우선순위에서 제조업이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AI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생성, 데이터 액세스 및 품질 향상, AI 프로젝트를 위한 하드웨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179] 한국의 제조업 역량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

표 5-4. 러시아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

구분	주요 과제
1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 지원
2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3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 향상
4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
5	러시아 시장 내 인공지능 기술 시장 확보와 기술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향상
6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관리 체계 구축

자료: "О развит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3).

카자흐스탄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9월 누르술탄(Nursulatan)에 위치한 나자르바예프 대학교(Nazarbayev University) 내에 '스마트 시스템 · 인공지능 연구소(The Institute of Smart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를 설립하고[180]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연구소를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등을 이곳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마민(Askar Mamin) 총리는 2020년 1월

179) Markotkin and Chernenko(2020. 8. 5),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180) The Institute of Smart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31일 알마티에서 열린 '디지털 알마티: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미래' 포럼에서 향후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서비스 부문에서 약 150억 달러, 자원채굴 분야에서 약 9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81] 그는 AI 도입에 있어서 보편적인 규정의 도입, 데이터 전송과 통합 등에서의 정책 수립, 연구 등의 분야에서 EAEU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카자흐스탄의 일부 대기업은 AI 시스템을 기업활동에 제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향후 도입 분야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CELL은 2019년부터 AI 기반의 음성로봇을 고객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182]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수도인 누르술탄에 거점을 둔 사업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누르술탄은 경제수도인 알마티(Almaty)보다는 경제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혁신산업 부문에서는 협력 여건과 성장 가능성이 알마티에 비해 더 뛰어나다. 특히 디지털 산업 및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Astana

표 5-5. Astana Technopolis 경제특구 추진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내용
진행	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 및 개발(Center for Bioenergy Research 社) 스마트시티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Computer Vision Technologies 社) 누르술탄시 다기능 도로 건설(CGK Astana 社) DNA 검사(Microread Technology Kazakhstan 社) 심혈관질환 검사 및 치료장비 생산(Educated Medical Solution 社) 원격 작물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EGISTIC 社)
입주 추진	항암 백신 생산(Froceth 社) 환경정화 기술 활용 친환경 제품생산(Eco Standart.kz 社)

자료: Astana Technopol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1).

181) "Kazakhstan mull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2020. 2.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182) "Kazakhstan's K-cell Adopts AI-based Voice Robot for Customer Service"(2019. 7.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0).

Technopolis 경제특구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동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의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매우 늦은 2017년 11월 추가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누르술탄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누르술탄에 존재하는 기존의 경제특구인 'Astana New City'의 경우, 현재는 전통적인 산업의 부품생산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학의 연구 기능과 맞물려 기술 개발과 혁신상품 생산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동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은 기업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제특구를 통해 해당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벨라루스 역시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육성에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도 이러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시장 진출에 용이하다. 벨라루스 정부는 2005년 9월 '하이테크 파크(Hi-Tech Park)'라는 명칭의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경제특구의 목적은 ICT 산업을 벨라루스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여 추진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입주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여 최첨단 IT 기술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주를 허가하였으나 2014년 이후 입주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후 진입장벽을 낮춰 IT서비스, 정보보안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양적인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6. 벨라루스 하이테크 파크 신규 입주기업과 수출 금액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신규 입주기업 수 (개)	15	19	33	268	319	236
수출액 (백만 달러)	70.6	82.1	100.0	140.0	220.0	n.a

자료: Hi-Tech Pa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하이테크 파크에 신규로 입주한 기업 수는 2015년 15개, 2016년 19개, 2017년 33개로 사실상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 268개, 2019년에는 319개로 크게 증가하며 최근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수출금액도 2017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2억 2,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2020년 11월 현재 총 입주기업 수는 969개, 총 근로자 수는 약 6만 5,000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벨라루스 경제활동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며 이들의 총 생산금액은 GDP의 3.5%에 이른다.[183]

사실상 하이테크 파크는 벨라루스의 IT 산업 및 이와 연계된 신산업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입주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동산세, 토지세, 장비수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주고, 근로소득세도 13%대신 9%를 적용하여 감면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벨라루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인 IT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경제특구 내에 우수한 IT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상호 정보 및 기술교환 등의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벨라루스 IT 기술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벨라루스 양국은 지난 2017년 3월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에 '한-벨라루스 IT 협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전자무역시스템, 디지털국가기록보관소 등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와 공동 기획·추진해왔다.[184] 이보다 앞선 2014년 9월 하이테크 파크 내에 한국은 '한-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ITC)'를 개소하였으며 신규창업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과

183) Hi-Tech Pa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184)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한국의 IT 및 문화 복합 체험공간으로 활용되어왔다.[185] 한국정부는 벨라루스 현지에 협력센터 등을 구축하고 IT 분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향후 협력방향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협력방향인 IT 문화 체험은 실용성이 약하고, 디지털 기록보관소 및 전자무역시스템 등도 사실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지난 수년 간 양국이 IT 분야 협력의 기초를 다져온 만큼,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IT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 스타트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선발된 한국의 스타트업에게 하이테크 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벨라루스의 스타트업이 한국의 스타트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협력 기회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협력분야도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4년 소프텍 벨라루스(Softeq Development FLLC., 이하 소프텍) 社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동 사는 펌웨어, 웹,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웃소싱 전문 업체로 sk하이닉스는 이 회사 펌웨어 사업부의 기술, 인력, 자산 등을 인수해 낸드플래시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186] 이러한 인수는 sk하이닉스와 소프텍이 약 1년간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상호신뢰가 기반이 되었다.

185) 「한-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 통해 정보화협력」(2014. 9.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5).
186) 「SK하이닉스, 소프텍 벨라루스 펌웨어 사업부 인수」(2014. 6.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2. 제조업 부문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에너지자원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EAEU 국가들에게 제조업 육성이라는 과제는 그들의 경제정책과 방향을 논함에 있어서 비켜갈 수 없는 숙원이자 염원이다.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가 갖는 대외의존성과 불안정성은 EAEU 국가들로서는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약 30여 년간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같은 것이었다. 비단 자원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EAEU 내에서 자원의존 국가인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역시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주요 EAEU 국가들은 현실적으로는 원자재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EAEU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정도를 보면 러시아나 벨라루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187]

표 5-7. EAEU 국가별 제조업 평가

구분	생산구조(structure of production)		생산요인(drivers of production)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러시아	5.71	35	5.30	43
벨라루스	n.a.	n.a.	n.a.	n.a.
카자흐스탄	4.19	62	4.74	61
아르메니아	4.10	65	4.43	70
키르기스스탄	3.73	76	3.43	96

주: 각 지표 값은 1-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결과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순위는 100개 국가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The World Economic Forum(2018), p. 12.

187) 다만 세계경제포럼의 국별 조사대상에서 벨라루스는 제외되었는데, 벨라루스는 경제 규모가 크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자국 내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 석유화학, IT 등의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되어 있다. 또한 생산요인과 관련된 과학, 수학 등의 인적자원도 우수하여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생산의 규모와 복잡성을 통해 측정하는 생산구조 측면에서 러시아는 100개국 중 35위를 차지했으며 점수로는 5.71을 나타냈다. 또한 생산기술, 인적자원, 제도, 무역 및 투자, 수요환경 등을 평가하는 생산요인 측면에서는 순위와 점수가 각각 43위, 5.30에 그쳤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여건은 더 좋지 않은데,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도 양 부문 모두에서 60~7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생산요인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를 기준으로 상세한 세부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적자원 부문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육의 질(11위) △지식기반 노동자 비중(13위) △여성의 사회적 참여(15위) 등이 특히 우수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사이버보안(11위) △그린필드 투자(11위) △FDI유입(12위) 등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부부문의 제도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와 맥을 같이 하듯이, EAEU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 금액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5-8. EAEU 제조업 생산 총금액 및 세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러시아	220,000	222,000	224,833	228,149
벨라루스	13,352	13,332	13,900	14,775
카자흐스탄	19,378	19,505	19,998	20,433
아르메니아	1,146	1,203	1,276	1,347
키르기스스탄	818	862	891	894
EAEU 총합	254,694	256,902	260,898	265,598
전 세계 총합	12,248,878	12,594,786	13,078,360	13,542,605
EAEU 비중(%)	2.08	2.04	1.99	1.96

자료: Kolomeytseva(2020), p. 16.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은 2015년 약 2,200억 달러 수준에서 2018년에는 2,28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증가도 정부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다만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소국의 경우, 어느 정도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EAEU가 발효된 2015년에는 약 8억 1,800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8억 9,400만 달러로 9.3% 성장했는데, 이는 EAEU 가입을 통한 러시아 시장에 대한 무관세 효과와 러시아 내 저가 의류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의류생산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188] 러시아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은 2015년 7,17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1억 7,1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는데 의류제조 분야가 큰 역할을 했다.[189]

EAEU 국가들은 최근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 수립으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자원투입 메카니즘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2014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미국과 EU 등은 2013년 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Euromaidan)' 사태 및 이에 따른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을 빌미로 2014년 러시아에 대한 단계적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대한 반제재 형태로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수입대체산업화(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정책을 전면에 부각시키기 시작했다.[190]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은 2014년 9월 20개 주요 육성 분야와 약 2,000여 개의 추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가운데

188) 박지원(2018), p. 324.

189) 위의 자료, p. 323.

190) 당시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정책을 촉발시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였으나 그 이외의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당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경기가 침체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해외로의 자본유출(capital flight)과 준비기금(reserve fund)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동 정책의 추진으로 외환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가 추진해오던 제조업육성과 산업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입대체화정책이 서구와의 대립을 통해 전면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지원(2016), pp. 15~21.

핵심 산업으로 선정된 5개 육성 분야는 조선, 의료, 제약, 무선전자, 항공 등인데, 이 산업들은 모두 산업적인 중요도가 높으나 러시아 내에서의 생산 비중이 낮은 산업들이다.

러시아 정부는 또한 같은 해 12월 '러시아 연방의 산업정책(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декабря 2014 г. N 488-ФЗ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제정하여 수입대체화 정책을 포함한 산업화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규정하였다. 이 법안에서 러시아 정부는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량 및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191] 산업화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여 현재의 에너지 의존 수출구조를 자국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변환시킨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전략은 자국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점유를 자국산으로 대체(import substitution)하는 것에 더해 이렇게 경쟁력이 갖춰진 자국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export promotion)까지 일련의 과정을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7월 승인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제조업 발전전략(СВОД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에서도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 확대라는 과제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192] 즉 러시아의 산업 육성과 제조업 성장이라는 과제는 현재의 자원의존적인 러시아의 경제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기본 정책 목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의 큰 틀 안에서 주요 산업마다 별도의 구체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그 특

19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декабря 2014 г. N 488-ФЗ,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8).

19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0), pp. 8-9.

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점 육성산업 가운데 하나인 조선산업의 경우,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조선산업발전 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судостроения на 2013 - 2030 годы)'에서 각 분야별 재정 투입과 육성목표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산업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항공, 에너지 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별도의 산업육성안을 추진 중이다.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손쉬운 원자재 채굴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자국 내 산업기반은 사실상 발전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유전인 '카샤간(Kashagan)' 유전의 채굴시작과 CPC 파이프라인의 가동, 중국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추가로 개통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193] 원자재 의존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카자흐스탄은 원자재 중심의 경제성장 경로를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0년대에 채택한 '카자흐스탄 2030 전략(Kazakhstan 2030 strategy)'에서 정부는 원자재 부문의 양적 · 질적인 발전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기조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2012년 12월 정부가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을 '카자흐스탄 2050 전략(Kazakhstan 2050 strategy)'으로 전환하면서부터이다. 새로운 전략 채택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기존의 채굴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다각화하여 제조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본 2050 전략에서는 제조업 육성에 있어, 2020년까지 비에너지부문의 수출을 2배, 2040년까지는 3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194]

---

193) Najman *et al.*(2005), p. 3.

194)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 -2050≫: Нов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состоявшегося государ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9).

2050 전략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단계로 '국가혁신·발전 촉진 프로그램 2010-2014(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форсированному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0-2014 годы)'을 2010년 3월 대통령령으로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로는 △산업다각화와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우선적인 산업부문의 발전 △경제에서의 우선 분야와 투자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한 사회효율성 강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합리적인 국토의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한 경제성장의 구심체 마련 △경제의 우선순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보장 등이 제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산업다각화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해왔다.[195]

2014년까지의 1단계 프로그램에 이어,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2단계 산업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2019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5-2019 годы)'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지난 2014년까지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4년간 총 6,439억 960만 텡게(tenge)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다.[196]

정부는 2020년부터 3단계 산업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육성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며, 2019년 12월 동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3단계 프로그램의 목표는 2단계에서 개선된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7,807억 9,710만 텡게를 투자하는

195)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4).
19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14), p. 2.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197] 다만 3단계 프로그램은 거시경제적인 목표만 제시할 뿐, 산업군별로 구체적인 정책의 전개 방식과 자원 투입 내역은 드러나 있지 않아 향후 구체화된 전략전개의 방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EAEU 내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을 보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계획을 마련한 이후의 자원배분 채널링(channeling)이 다양한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산업 관련 투자지원기관으로는 '산업개발펀드(IDF: Industrial Development Fund)'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 Russia Direct Investment Fund)'이 있다. 전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제조업 육성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러시아의 산업 현대화를 목적으로 2014년 설립한 것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후자인 러시아 직접투자기금은 러시아 내 산업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 만들어진 기관으로, 설립 당시 투입된 10억 달러의 자본을 기반으로 자국기업 및 해외기업의 직접투자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러시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적기관을 통한 재원 투입에 적극적이다. 카자흐스탄은 바이테렉(Байтерек)이라는 국영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위 자회사인 카자흐스탄 산업은행(Банк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다무 펀드(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Даму), 카즈텍벤처스(QazTech Ventures) 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198]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재원 투입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과 같이 천연자원 판매를 통해 얻은 재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이를 산업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AEU 회원국 중에서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와 같은 경우 러시아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방식의 대규모 재원 축적과 공공기관을 통한 분배 방식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19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19), pp. 2-3.

198) Байтерек Холдин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6).

실제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국가 차원의 촘촘한 제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04년 벨라루스 정부가 발간한 '2020년까지 벨라루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eriod to 2020 of the Republic of Belarus)' 보고서에서도 산업에서 정부의 우선순위는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나노 테크놀로지와 나노기술,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바이오 테크놀로지 · 제네릭스, 과학 및 서비스 분야 육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199] 벨라루스는 EAEU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와 함께 기본적인 제조업이 발전된 국가이다. 다만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불과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기보다는 몇 가지 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소수의 산업군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EAEU 국가들은 대부분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나 벨라루스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벨라루스는 EAEU의 대외 FTA에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벨라루스의 제조업 중에서는 2018년 기준, 단일 산업으로는 음식료 생산이 가장 높은 비중인 25.8%를 나타내고 있다. 뒤를 이어 석유정제산업과 연관된 분야인 석유화학제품(17.6%), 화학제품(10.8%), 고무 · 플라스틱(7.9%) 등이 산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표 5-9. 벨라루스의 제조업 생산에서 산업군별 비중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음식료(담배포함)	27.4	29.6	27.9	25.8
섬유, 의복, 가죽	4.0	4.6	4.4	4.0
목재, 종이	3.7	4.5	4.7	5.1
석유화학제품	18.8	15.0	15.9	17.6

199)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of Belarus(2004), p. 34.

표 5-9. 계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화학제품	11.9	9.5	10.1	10.8
제약, 의료	1.3	1.4	1.4	1.3
고무, 플라스틱	8.5	8.8	8.6	7.9
금속가공	7.2	7.1	7.4	7.6
컴퓨터, 전자기기, 광학용품	1.5	1.8	1.9	1.7
전기 장비	2.8	3.2	3.0	2.8
기계제작	5.5	6.4	7.3	8.0
자동차, 운송기기	3.4	3.8	3.3	3.6
기타	4.0	4.3	4.1	4.0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DB 자료(검색일: 2020. 12. 10).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으로 '나프탄(Naftan)'이 있는데 이 기업은 1958년 소비에트 시기에 처음 공장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생산량의 약 6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설비 현대화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제품군의 확장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200] 동 기업과 더불어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화학기업으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작기업인 '슬라브네프트(Slavneft)'의 자회사인 '모지르(Mozyr Oil Refinery)'라는 기업이 있으며 1975년 공장을 가동한 이래, 매년 약 8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하고 있다. 양 기업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하고 있는데, 두 기업의 수출총액이 벨라루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나 된다.[201] 석유화학 분야는 구 소련 시대부터 이어져온 산업적 기반이 중심이 되었으며 현재는 벨라루스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석유화학 산업은 러시아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

200) Naft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201) "Belarus's Role in East European Energy Geopolitics"(2020. 1.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0).

아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최근 양국간 원유공급 가격 분쟁과 같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산업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

이 외에도 대외경쟁력을 가진 벨라루스의 산업은 기계 제작 분야이다. 기계 분야에서도 농기계, 트랙터, 광산용 덤프트럭 등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광산용 덤프트럭 생산기업 '벨라즈(Belaz)'는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203] 여러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다. 또한 상용차 및 트랙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스크 자동차 공장(MAZ)'은 소비에트 시대부터 상용차를 생산해온 기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트럭을 생산하는 상용차 부문의 대기업이다.

다른 EAEU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더 미약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제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17년 공개한 '2018-2040년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2018-2040)' 문건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사회, 경제, 행정 부문에서의 포괄적인 성장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유지, 지역간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의 강화 및 질적 개선, 생산 잠재력의 개선 등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 및 산업 부

202) 소비에트 붕괴 이후,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왔고, 이는 벨라루스 석유화학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벨라루스향 에너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므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종종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초에도 원유가격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간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벨라루스는 소량이지만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203) Belarus Gover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1).

문의 발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현대화 △고품질 석유화학제품 생산 △건축자재 생산 △보석 가공 부문 육성 △경공업 클러스터를 통한 의류 생산 등을 주요 육성 산업 분야로 보고 있다.[204]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제시한 위의 산업 분야 중 현재 기준에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분야는 의류생산 정도이다. 나머지는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내에서 가치사슬이 조밀하게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들로 사실상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혀진다. 다만 본 문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자국의 산업발전과 산업가치사슬을 EAEU나 '일대일로'와 같은 지역 또는 글로벌 협력체제 안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205] 이와 같은 키르기스스탄의 인식은 사실상 현재 산업기반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체의 테두리 안에서 의존적인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드러낸다. 2017년 말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2018년 4월에 상기 국가발전 프로그램은 '2018-2022년간 키르기스스탄의 발전 프로그램 - 연합, 신뢰, 창조(Development Program of the kyrgyz Republic 'Unity, Trust, Creation' for the period 2018-2022)'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요 육성 산업분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비 생산 △엔지니어링 제품 △농식품 가공 및 식품 생산 △의류 생산 등이다.[206]

아르메니아는 인구가 약 300만 명에 지나지 않아, EAEU 내 인구 소국인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다양한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르메니아의 산업군별 총생산금액을 보면 음식료, 기초금속, 비금속광물, 보석가공 등의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204) The Kyrgyz Republic(2018a), pp. 47-52.

205) *Ibid.*, p. 47.

206) The Kyrgyz Republic(2018b), p. 10.

표 5-10. 아르메니아의 산업군별 · 연도별 총생산금액

(단위: 백만 드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음식료(담배 포함)	476,399.8	512,267.3	777,898.4	854,807.6	928,129.6
섬유, 의복	10,027.5	10,839.2	17,469.2	23,636.3	29,081.5
가공금속제품	10,176.7	10,407.3	12,393.0	14,087.4	18,370.1
화학제품	9,153.2	8,715.2	11,605.9	16,603.4	18,825.2
제약	7,634.3	8,098.9	9,602.6	9,548.3	9,662.7
고무, 플라스틱	25,040.1	26,700.9	31,148.0	35,511.1	37,567.8
기초금속	153,201.8	152,550.6	174,928.3	173,752.0	167,827.1
비금속 광물	43,279.4	34,248.0	44,741.0	61,564.5	68,921.1
컴퓨터, 전자기기, 광학용품	5,259.3	6,382.7	7,721.3	9,558.8	10,884.9
전기 장비	4,778.8	7,292.9	18,460.9	14,782.3	18,145.3
기계 · 장비	3,546.3	3,357.0	3,845.0	5,874.8	5,224.6
가구	3,484.9	2,756.2	3,509.5	5,226.7	7,195.5
미디어 인쇄, 복제	14,063.0	13,478.2	14,452.9	19.182.5	22.821.6
보석	18,086.5	34,342.2	49,628.6	51,543.8	48,302.9

자료: 아르메니아 통계청, DB 자료(검색일: 2020. 12. 12).

2019년을 기준으로 아르메니아의 제조업 분야 가운데 가장 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 부문으로 총 생산금액은 9,281만 2,960만 드람(dram)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5년 대비 약 2배 성장한 결과이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으로 몰리브덴, 레늄, 금, 은, 아연, 구리 등의 광물과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현무암, 대리석, 용회석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있어, 이를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의 산업발전계획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아르메니아 정부 프로그램(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7~2022)'에 잘 나타나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공급 주도(supply-led)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수출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공급 역량을 갖추는 것을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207]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도 EAEU의 회원국으로서 EA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208] 다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략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 2월 의회에서 승인된 정부 프로그램(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에서도 IT산업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공 산업으로만 육성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209] 하지만 수출 주도형 경제를 추진하는 아르메니아의 정책을 고려할 때, 주로 금속가공, 식품생산, 기계설비 제작, 귀금속 가공 등의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르메니아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에 포함된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산업화를 위한 재원 투입과 실행방안 등이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EAEU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20년 'EAEU 경제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연간 EAEU 국가들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5% 성장하면서 세계 평균인 0.7%를 상회했다.[210]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가 2018년 2.9%에 이어 2019년에 2.4% 성장에 그쳤으나, 아르메니아가 9.0%, 키르기스스탄이 6.9%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이 가장 개선된 산업 분야로는 제약(18.3%), 금속가공(8.9%), 전기-광학(7.7%), 가구(6.4%)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211]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EAEU 국가들의 산업생산이 급락하고 전반적인 제조업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207)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2017), p. 47.
208) *Ibid.*, p. 48.
209)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2019), pp. 52-53.
210)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20a), pp. 4-7.
211) *Ibid.*, p. 10.

나. 협력방안

제조업 부문과 관련한 대EAEU 협력의 주요 원칙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은 제조업 협력을 우리 기업의 전체 EAEU 시장 진출을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생각하되, 개별국가의 수요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EAEU 국가들이 각자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체로 시장을 보호하는 방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이들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가치에 충실하고 있지만, 산업화를 위한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EAEU 회원국들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를 통한 기술발전과 산업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EAEU 국가들이 제조업 육성정책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EAEU 국가들의 구체적인 제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으로서 해당 시장 진출과 현지투자를 모두 염두에 두는 협력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진출 국가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각 국가별 협력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

표 5-11. 러시아 산업단지의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단지 개발지역(수)	40	42	46	51	60
거주자(명)	1,153	1,674	1,870	2,121	2,882
일자리(개)	70,943	83,368	104,872	125,601	148,766
투자유치 총면적(㏊)	17,484	21,015	22,035	23,572	31,017
생산시설 면적(천 ㎡)	3,956	4,062	5,192	7,733	11,503
생산투자유치액(십억 루블)	745	858	983	1,111	1,217
인프라투자유치액(십억 루블)	145	163	178	220	244

자료: Association of Industrial Parks(2019), p. 17.

시아의 경우 디지털 및 신산업 부문에서와는 달리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의 발전에 산업단지(industrial par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산업단지의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러시아 내에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역의 수가 40개에서 60개로 증가하였으며 거주 인원과 일자리도 각각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산업단지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각 지역에서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러시아경제특구(SEZ)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산업단지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주요 육성 분야가 있으며 세제혜택도 각각 달라 절대적인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특별경제구역에 비해 다소 불리한 지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212] 하지만 특별경제구역은 지정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입주조건이 까다로워서, 지방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기업의 경우 인접한 산업단지 입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산업협력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산업단지가 특별경제구역에 비해 덜 조명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특별경제구역의 경제적 성과가 다소 미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업단지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산업단지의 설립 및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주관부처는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입주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회원사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관은 '러시아 산업단지협회(AIP: Association of Industrial Parks of Russia)'이다. 동 협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외국기업의 진출 입주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시장 진출과 제조업 협력에 유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212) 특별경제구역의 세제혜택이 대체로 소득세, 지방세, 토지세 등을 면제해 주는 반면, 산업단지는 소득세를 일부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제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은 산업 분야에 따라 IDF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구분 없이 제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IDF의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산업과 불가한 산업은 다음과 같다.

표 5-12. IDF의 지원 및 미지원 분야

지원 산업 분야		지원 불가 분야
바이오 산업 관련 식품생산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제약 및 의약품 재료 제조 비금속 및 광물 제품 제조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 타지에서 조립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기타 차량 및 관련 장비 제조	섬유 및 의류 제조 목재 가공 및 코르크 제품 제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금속 생산 전기장비 제조 가구 제조 조립기계 및 장비수리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 제품 제조 기타 완제품 제조	건물 및 구조 건설 과학 연구 부동산 취득 군용 물품 제조 대출 및 대출이자 지급을 위한 대출

자료: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6).

상기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러시아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IDF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 조건은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 기계류의 생산, 부품의 개발 및 생산 등의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금리는 연 1~5%, 대출기간은 5년~7년이며, 대출금액은 5,000만~5억 루블에 이른다.[213]

러시아 정부는 또한 외국계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14] 러시아에 제조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러시아 정부와 투자에 관해 1:1

213)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6).
214) 박지원(2020), pp. 56~57.

로 협상할 수 있다. '특별투자계약'은 투자자와 러시아 연방정부, 지방정부 3자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투자자는 러시아 내 투자를 통해 제품생산을 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계약 내용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구법에 따른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이었으나 신법은 15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투자금액이 500억 루블을 상회할 경우 20년까지 계약 기간이 보장되었으며, 기존 7억 5,000만 루블이었던 최소 투자금액 제한도 폐지되었다. 동 제도는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해외로부터 약 50여 건의 대형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특별투자계약에 따르면 각각 2%와 18%에 이르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며 기타 부가세 등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부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5-13. 일반 세율과 특별투자계약 세율 비교

구분		일반 세율	특별투자계약
법인세	연방세	2%	0%
	지방세	18%	0%
부가세	연방세	20%	계약에 따라 상이
사회보장기금	연방세	30% 내외	
재산세	지방세	~2.2%	
토지세	지방세	0.3~1.5%	

자료: 박지원(2020), pp. 56~57.

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지방의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러시아처럼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협력이 좀 더 유효하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보다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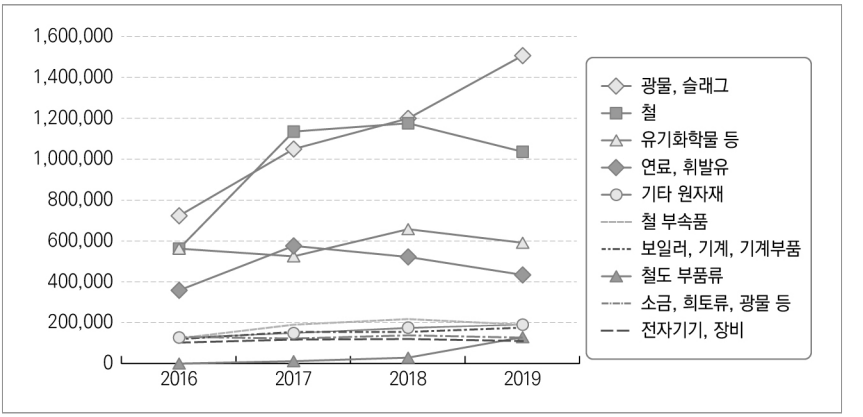
업 발전이 미약하고 경제특구 내에 제조업 입주기업이 적어 클러스터를 통한 집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의 제조업 협력을 위해서는 제도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분야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제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고 자국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여전히 카자흐스탄 시장의 많은 부분은 외국산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원배분 우선순위, 산업기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시장의 협소성으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EAEU라는 경제공동체를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수출을 보면, 2016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금액은 증가해왔으나 주로 제조업 생산품이 아닌 광물, 철 등 원자재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 1위 품목인 광물 · 슬래그의 경우 2016년 수출은 7억 2,400만 달러 수준에서 2019년에는 15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철의 경우도 201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5년 5억 5,10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수출품목 3~4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기화학물이나 연료 · 휘발유 등도 최근의 수출금액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출 비중은 크다.

반면 제조업 생산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은 보일러 · 기계 · 기계부품류, 철도 부품류, 전자기기 · 장비류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보일러 · 기계 · 기계부품류의 대러 수출은 2016년 1억 6,40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해 EAEU 가입 이후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자기기 · 장비 분야도 유사한 모양새이다. 다만 철도 부품류의 경우에는 2016년 18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1억 2,700만 달러로 수출이 급상승하면서 제조업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카자흐스

그림 5-2.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2016~19년)

(단위: 천 달러)



자료: IHS Markit, DB 자료(검색일: 2021. 5. 19).

탄의 '악토베 철도 부품공장(Aktobe Rail and Beam Plant LLP)' 등 신규 철도부품 공장이 2015년 완공되었고,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215]

이와 같이 EAEU의 틀 내에서는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등 소국과의 제조업 협력의 경우, 시장을 해당 국가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러시아를 포함한 EAEU 전반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시장과 밀접히 연관시켜 제조업을 육성하는 국가가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석유화학, 기계, 상용차 등의 제조업이 발전했으며 이와 같은 주요 생산제품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인구가 작은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통해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15) '악토베 철도 부품공장' 설립 당시, 러시아의 '스베르방크(Sberbank)' 카자흐스탄 법인은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azakhstna Development Bank)과 공동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공장 설립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 내 운송망 개발 등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철도 부품류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Kazakhstani railway rails 'charted the way' to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9).

중국기업 중 일부가 벨라루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벨라루스의 시장 자체의 매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인접한 EAEU 가입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벨라루스와 중국 정부 간 합작을 통해 2016년 12월 준공한 'Great Stone 산업단지'는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 벨라루스 내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되었다. 입주한 기업들은 대체로 기계, 전자·정보통신, 소재가공 등의 중국기업이 많은데[216] 벨라루스 정부도 해당 분야의 기업 유치를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처럼 러시아 시장 진출을 전제로 한 중국의 대벨라루스 투자가 아직까지는 크게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대표적인 중국의 자동차 제조기업 중 하나인 '지리(Geely)' 자동차는 벨라루스와 합작으로 'BelGee' 社를 설립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 2017년에는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는 등 벨라루스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합작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약 90%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 시장에서의 판매는 예상보다 저조하다.[217] 지리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승용차라는 품목 자체가 러시아 시장 진입에 적합한 상품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해 약한데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에서의 낮은 생산원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및 아르메니아와의 제조업 협력도 이처럼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EAEU 가입국으로서 이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자국산업 육성과 러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연계하는 것이며 소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216) Great Ston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2).

217) "China's Geely targets Russian market with new Belarus plant"(2017. 1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2).

이 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요인을 배재한다면, 해당 시장만으로 제조업에 투자 및 협력을 하는 것은 시장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운영과 성장에 제한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 EAEU 소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와 협력에 신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가 경제연합체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자국시장 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대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타국산 상품이 자국 시장을 빠르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응해왔다. EAEU 내에서 러시아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지만 아직까지는 해결은 요원하다. 상품의 종류와 자국 시장의 침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EAEU 내의 소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폭넓게 수용하기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카자흐스탄의 철도 부품류와 키르기스스탄의 의복류의 대러시아 수출이 EAEU 가입 이후 폭증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해당 러시아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EAEU 소국을 통한 제조업 투자는 품목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몇몇 산업분야에서 러시아 중심의 협력은 전망이 밝은데, 유망한 분야로 러시아의 조선 산업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군함 등의 제조에 강한 러시아는 상업용 선박 제조에는 경쟁력이 약해 자국 내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고부가가치 선박은 수입에 의존해왔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LNG 운반선 15척을 구매한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극 LNG 개발 등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선박 수요가 늘면서 자국 내 조선 산업의 발전 필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조선소인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를 중심으로 '볼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생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표 5-14. 러시아 볼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2021. 1 기준)

입주기업	주요 사업 내용
즈베즈다 콤플렉스	연간 33만 톤 규모의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극동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건설촉진 기업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주택 건설
비케이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주택 건설
트러스트	식당 건설
사브피르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해양설비 생산
비지트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주택 건설
호텔 프라이드	호텔 건설
즈베즈다 기술	해양기술 설비 시스템 구축
크즈시	해양구조물 건설
스트로이 서비스	건축자재 생산
자임카	다기능 피트니스 단지 건설 및 운영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3)에서 저자 정리.

아직까지 상기 선도개발구역에 많은 기업이 입주한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관련 기업의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도 선박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이 동 선도개발구역에 진출하여 러시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체계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상기의 선도개발구역에 직접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한 기업은 인근의 '아르쫌(Artsom)' 市에 20여 명 규모의 소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용접봉을 생산하고 즈베즈다 조선소에 납품하고 있다. 조선 산업과 관련한 현지 생산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발주량의 감소와 낮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경쟁국의 추격으로 인해 한국의 조선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소 기자재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218] 우리 중소기업이 극동지역에 진출하여 현지 산업생태

218) 산업통상자원부(2018), p. 14.

계에 편입된다면 양국간 산업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조선 산업뿐만 아니라, EAEU 각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3. 의료 · 보건 산업

가. EAEU 산업 현황 및 배경

EAEU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의료 · 보건 산업 분야의 전망이 밝은 이유는 동 분야 및 연관 산업에서 EAEU 국가들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현재는 낙후되어 있지만 향후 시장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전 세계 9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의료시스템 평가에서 EAEU 국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표 5-15. 2020년 국가별 의료시스템 평가

순위	국가명	지수(health care index)
1	대만	86.42
2	대한민국	82.26
3	프랑스	80.68
4	일본	80.23
5	덴마크	80.17
53	카자흐스탄	60.94
59	벨라루스	60.03
63	러시아	58.01

자료: Numbe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7).

EAEU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카자흐스탄이 전체 국가 중 53위를 차지했으며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각각 59위와 63위로 나타났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100위 안에 있지 않았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EAEU 국가들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이 국가들의 의료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장비 등도 노후화되었고 관련 시장인 의료기기 및 제약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성장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AEU 국가들은 사회주의 시스템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의료법상 공공의료기관에는 연방기관과 연방주체 산하 보건기관, 연방과학아카데미, 기타 의료기관 및 국영 제약기업 등이 포함되는데,[219] 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의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 역시 의료부문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지만,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해 장비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국 내 주요 제약 생산이 미미하여 협력수요가 크다는 점 등이 의료 관련 시장에서 한국과의 향후 협력 전망을 밝게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방역 및 보건 시스템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 분야의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여건으로 들 수 있다.

국가별로 동 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러시아의 경우 보건의료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찾는 202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219)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7).

표 5-16. 러시아의 보건의료 시장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보건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86.5	85.8	87.8	85.3	93.8	96.9	99.8	104.3
전년대비 성장률(%)	24.6	-0.8	2.4	-2.9	9.9	3.3	3.0	4.5
GDP대비 비중(%)	5.5	5.2	5.2	5.4	5.3	5.3	5.2	5.2

자료: Fitch Solutions(2020), p. 14.

연도별 보건의료비 지출을 보면, 2017년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24.6%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시장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회복과 정부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2021년부터 성장세를 이어가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년대비 성장률이 각각 9.9%와 3.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대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보건 의료비 지출은 5.2~5.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보건 · 의료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정부가 의료 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2월 「보건 · 의료 증진(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약 34조 9,100억 루블을 관련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였다.[220]

표 5-17. 「러시아 보건 · 의료 증진(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프로그램의 투입예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투입 예산 (조 루블)	3.88	3.96	4.14	4.30	4.43	4.58	4.73	4.89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7b), p. 1.

22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7b), p. 1.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8개 부문으로 구분된 각각의 하위 프로그램에 배분되어 집행되는데, 구체적인 분야로는 △1차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 △심혈관 질환 감소 △암 발병률 감소 △현대적인 아동 의료 인프라 시스템 마련 △의료인 육성 △국가 의학 연구센터 네트워크 개발 및 혁신적인 의료기술 도입 △통합 건강정보 시스템 마련 △의료 서비스 수출 등이다.[221]

하지만 정부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한 의료부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예산이 충분히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되고 있으나 고가 장비를 운영하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 장비의 유지·수선에 대한 서비스 부재, 수입된 외국산 장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로 장비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222]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계획의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 개선 가능한 것으로, 향후 러시아 정부의 충실한 프로그램 집행 여부에 따라 개선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및 연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제약 산업의 육성에서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는 제약 분야 발전을 수입대체화 전략 중 최우선 순위로 간주하고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정부의 육성프로그램 수행에서 잘 드러나 있다.

---

221)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7).
222) 박지원(2019a), p. 5.

표 5-18. 제약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구분	제약전략 2020	의약 · 의료산업 발전 국가프로그램
기간	2009~20년	2013~24년
예산	총 1,776억 2,000만 루블(하기 포함) - GMP 도입: 360억 루블 - 의약품 개발: 1,064억 루블	총 583억 1,804만 루블 - 2019년: 70억 5,864만 루블 - 2020년: 69억 8,901만 루블 - 2021년: 67억 9,194만 루블 - 2022년: 71억 63만 루블 - 2023년: 74억 2,336만 루블 - 2024년: 77억 6,075만 루블
목표	- 2020년 기준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점유율 50% - 국내 생산 제품 중 혁신 의약품 비중 60% - 2008년 대비 의약품 해외수출 8배 증가 - 국내 생산 일반 의약품 원재료의 50% 이상, 전략 의약품의 경우 85% 이상을 자국산 원재료 사용	- 매출액 기준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19)46%, ('20)50%, ('24)53% - 의약품 수출(억 루블): ('19)530, ('20)750, ('24)1,100 - 생산성 증가율: ('19)17.7%, ('20)7.1%, ('24)12.1% - 정부승인 전략 의약품 및 필수 의약품의 국내생산 비중: ('19)90%, ('20)90%, ('24)93%
주요 내용	- 의약품 관련 첨단기술 발전 - 첨단 생명공학 관련 의약품의 국내 생산 - 국내 제약사의 의무적 GMP 도입 - 가정용 일반 의약품 및 혁신 의약품 생산	- 정부에 의해 매년 승인되는 주요 필수 의약품 목록 중 130개 약품의 대체 - 7개 혁신 약품의 국가등록 - 7개 제약 R&D 센터 설립 - 주요 질병 관련 의약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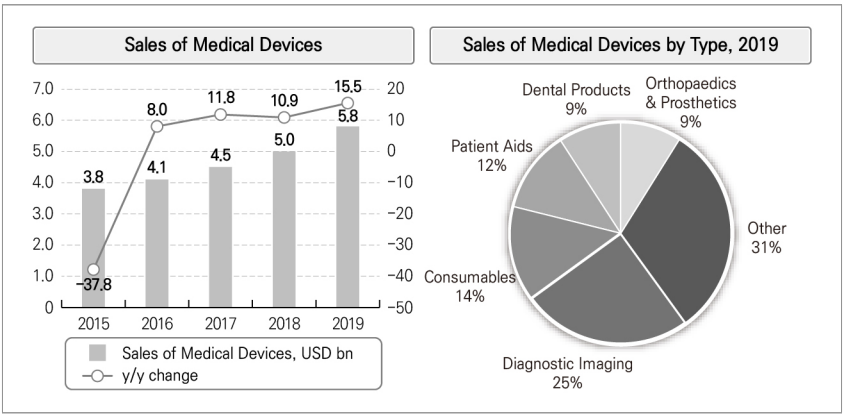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09), pp. 1-70;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4), pp. 1-98.

「제약전략 2020(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프로그램은 제약산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에 종료되었다. 이후 2024년까지 계속될 「의약 · 의료산업발전 국가프로그램(Развитие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2013 - 2024 годы)」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장의 성장세에 더해 러시아에서는 의료기기 시장도 가파르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림 5-3. 연도별 의료기기 매출액 및 판매 카테고리

(단위: GDP 대비 %)



자료: Fitch Solutions(2021c), p. 67.

의료기기의 러시아 내 매출액은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2015년 연간 판매액은 약 3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 45억 달러, 2019년에는 5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9년은 2018년도에 비해 15.5%의 연간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최근의 높은 성장은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와 민간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커진 사실에 기인한다.[223] 여기에 코로나19 이후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은 더욱 견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 가운데서도 영상진단장비(Diagnostic Imaging)의 판매가 2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고, 이어 소모품(14%)과 환자보조용품(12%), 치과용품(9%) 등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약시장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의료기기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은 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 결과 영상진단장비의 약 65%, 소모품과 치과용품의 각각 약 70%와 80%를 외국으로부터

223) Fitch Solutions(2021c), p. 67.

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224] 즉 대체로 외국기업들이 시장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고 있어 러시아 로컬 기업의 경쟁력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는 의료보건 시스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 보건·의료 전 분야에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서비스와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또 다른 EAEU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 도입 이후 CIS 국가 가운데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함께 향상되었다. 지난 2015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 주도 국민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제도 도입 방향을 설정하였다.[225]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사회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지불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가 '의료보험펀드(Фонд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사회의료보험 제도 도입에는 한국의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은 지난 2016~17년 카자흐스탄의 의료보험시스템 도입에 관한 '지식공유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수행을 통해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운영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226] 카자흐스탄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시스템 일부를 받아들여 자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에 활용하였다.

---

224) *Ibid.*, p. 67.

225) "Обязательное социа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7).

22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KDI(2017), pp. 84-131.

하지만 [표5-19]에서 보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러시아의 추세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연도별로 완만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은 2020년 이후에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9.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구분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보건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5.09	5,49	5.63	6.03	6.88	7.62	8.50	9.38
전년대비 성장률(%)	3.9	7.9	2.5	7.1	14.1	10.7	11.7	10.3
GDP 대비 비중(%)	3.1	3.1	3.1	3.7	3.8	3.9	4.0	4.0

자료: Fitch Solutions(2021b), p. 14.

2020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6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7.1%의 성장을 보이겠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4년에는 93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대 이후 이런 가파른 성장세와 보건시장 확대에는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개선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2024년까지 GDP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면적인 의료보험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의료인의 진료수준, 의료행정의 비효율성, 보건의료 예산 활용의 비적절성 등 의료서비스의 문제, 현장과 동떨어진 의료장비 구매, 의료장비 활용 문제 등 여전히 개선돼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227] 특히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고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소도시나 지방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전

227) Fitch Solutions(2021b),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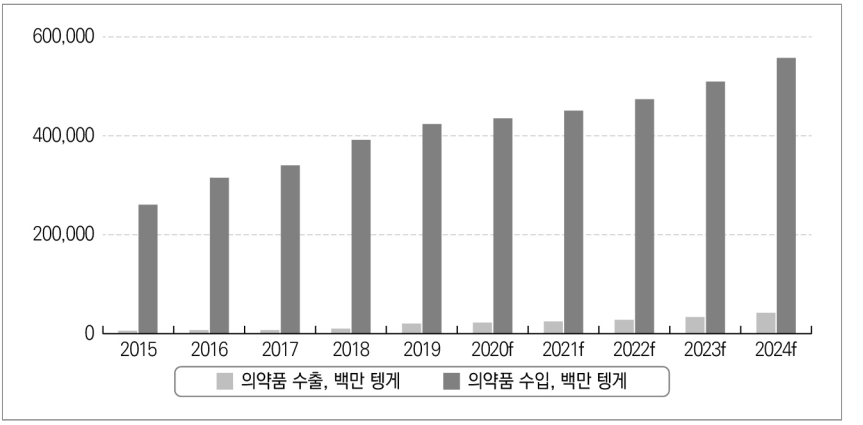
문 의료인조차도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간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의[228] 문제는 여전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및 화상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으나 인프라 등의 문제로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제약시장이나 의료기기 시장의 상황도 러시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수준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의약품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의약품 수입액은 약 4,262억 텡게(11억 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5,589억 텡게(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출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229]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대외 수입 의존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5-4. 카자흐스탄의 의약품 수출입

(단위: GDP 대비 %)



자료: Fitch Solutions(2021b), p. 23.

228) 최정희(2020), p. 7.

229) Fitch Solutions(2021b), p. 23.

벨라루스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도 전반적으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원유의 재가공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벨라루스 경제의 부정적인 미래 전망이 시장의 성장에 하방압력을 가해[230] 달러 대비 벨라루스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화 표시 시장은 대체로 정체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31]

표 5-20. 벨라루스 보건의료 시장

구분	2017	2018	2019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보건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3,33	3.56	3.89	3.78	3.19	3.11	3.22	3.37
전년대비 성장률(%)	13.2	6.9	9.4	-3.1	-15.5	-2.7	3.6	4.7
GDP 대비 비중(%)	6.1	5.9	6.5	7.1	7.2	7.2	7.2	7.2

자료: Fitch Solutions(2021a), p. 12.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11월 '세계은행'으로부터 보건의료 시장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억 2,500만 달러의 차관 공여를 승인받았다. 정부는 이 차관을 통해 '국가 보건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를 수행하도록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벨라루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e-health 시스템 구축 및 임상 솔루션 지원 시스템 도입 △비전염성 질병 관리 역량 강화 △신생아 관리 시스템 현대화 등이다.[232] 본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230) Fitch Solutions(2021a), p. 11.

231) 벨라루스 루블화 기준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성장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8.7%에 이르지만, 벨라루스 루블화의 평가 절하가 반영된 성장은 같은 기간 0.7%에 불과하다. Fitch Solutions(2021a), p. 11.

232) The Republican Scientific and Practical Center of Medical Technologies, Informatiza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of Public Healt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1).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제약 시장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비중이 매우 낮아 외국산 제품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나 벨라루스는 자국 내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5-21. 벨라루스 제약 시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 규모(백만 달러)	502.2	537.4	501.7	594.6	608.1	645.8
전년대비 성장률(%)	n.a.	6.4	-6.1	19.3	2.3	6.2
수출(백만 달러)	162.2	142.7	157.0	205.1	239.6	287.3
생산 중 수출 비중(%)	32.3	26.7	31.2	34.5	39.4	44.5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 26.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은 2014년 약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정도였으나 2016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19년에는 6억 4,580만 달러에 달했고, 생산품의 수출 비중은 44.5%까지 달했다. 생산품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의 대표적인 제약기업으로 'Belmedpreparaty' 社가 있는데, 1929년 소비에트 시기에 설립된 기업으로 벨라루스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4개의 자회사에서 약 3,000명의 직원이 350여 개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233]

벨라루스 제약시장이 어느 정도는 자국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 반면, 의료기기 시장은 대체로 외국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시장과 유사한 사업환경을 보이고 있다. 의료 소모품 등 일부 품목은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기타 제품의 생산은 많지 않으며 생산품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벨라루스 의료 관련 시장의 특징은 벨라루스의 일

233) Belmedprepara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1).

반적인 제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 자국 생산제품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EAEU 체제하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에 대한 시장 접근의 용이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동 시장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앞선 EAEU 국가들의 환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국가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단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세계은행과 기타 국제기관들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약 4,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234] 아르메니아도 세계은행의 보조를 받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나. 협력방안

의료·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EAEU는 아직 대외적으로 경제연합체 차원의 단일화된 법규나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EAEU 공동의 인증 및 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협력방안은 EAEU 시장 전체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하되, 단기적으로는 각 국가별 상황과 환경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EAEU 시장의 통합과정 추이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인 전략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자국 내에서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해서만 의료서비스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EAEU 국가들의 까다로운 규정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의료기관 위탁경영 및 컨설팅이다. 한국의 높은 의료서비스 질과

234) The World Bank(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1).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CIS 지역으로부터의 유입되는 다수의 의료관광 환자들로 인해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지도는 EAEU 지역 내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한국 의료기관들이 해외로부터 자국의 병원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의뢰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EAEU에 대한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도 활발하다. 한국의 '선병원'은 벨라루스의 민스크에 2018년 설립된 '가즈프롬 메디컬 센터(Gazprom Medical Center)'의 컨설팅 및 위탁경영 운영자로 2015년 선정되었는데, 메디컬 센터 건립 단계부터 설계 디자인, 의료 장비 선정 및 관리, 의료진 및 간호, 행정 인력의 교육,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맡게 되었다.[235] 선병원은 병원 개원 후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게 된다.

위탁경영이나 병원 컨설팅 방식으로의 진출은 시장 진출에 따른 투자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과 대체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 특성상 의료기기나 제약 분야의 동반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바메드(VAMED)' 병원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 그룹은 병원의 설립, 인력관리, 운영, 의료기기 공급, 의료교육 및 훈련, IT 솔루션 제공 등 의료기관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AEU 국가 중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진출해 있다.[236] 동 그룹은 기본적으로 의료 컨설팅과 병원 설립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료기기 공급 및 IT 분야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흥국에서의 병원 설립에 절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바메드의 사례는 우리 의료기관들이 EAEU에 진출할 때도 초기

235) 「대전 선병원, 벨라루스에 2조 2천억 규모 의료시스템 수출 쾌거」(2015.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3).

236) VAM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3).

에는 단순 컨설팅이나 병원 운영에 집중하다가 점차 보건의료와 관계된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의 진출 분야 확대를 고려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서비스 분야의 또 다른 진출 방식은 한국 의사의 면허로 현지 진료가 가능한 의료특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EAEU의 가장 큰 의료 시장인 러시아는 자국 내 진료 활동 시 한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나 정부가 지정한 의료특구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국제 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법령(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제정하여 외국기관의 자국 내 진출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현재 스콜코보 경제특구 안에 '모스크바 국제 의료클러스터(Moscow International Medical Cluster)'가 지정되어 있다. 연방법에서 규정한 국제 의료클러스터의 제정 목적은 의료기술의 품질을 제고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연구 및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다.[237] 이 법에 따르면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을 위한 R&D 센터 등도 설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한국의 분당 서울대병원은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스크바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클러스터 내에 2021년까지 약 300병상 규모의 최첨단 종합병원을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238] 이 의료 클러스터 내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다사 메디컬 센터(Hadassah Medical Center)'가 진출하여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

---

237)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 15).

238) 「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에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2018.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3).

그림 5-5. 러시아 의료클러스터 내 이스라엘 병원(좌) 및 분당서울대병원 조감도(우)

자료: "«Приходите к нам лечиться»: в Сколково открываются филиалы известных зарубежных клиник Подробне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9).

카자흐스탄의 경우 현지 병원에 소속된 병원의 형태인 '원내원' 방식의 진출이 독립된 형태의 진출보다 인가와 관련한 부담이 적고,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239)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경우 EAEU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민간부문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데다가,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2013년 4월 중앙정부 및 지방의 물품, 공사, 서비스 조달 부문의 공공수요에 대응하여 조달 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달의 실행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제44-fz를 제정하였다.240) 이후 공공입찰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전자공시사이트(http://zakupki.gov.ru)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동 사이트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및 연방 재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모든 조달계획이 고시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러시아 정부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공입찰 계획이 기관별로 상세히 게시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다.

2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pp. 108~109.

240) "О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е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товаров, работ, услуг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ужд"(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7).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 부족한 일부 품목에 대해 러시아 내 등록과정을 대폭 완화하여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용이하게 풀어주었고, 2020년 6월까지 의료용 마스크, 보건용 가운, 진단기기, 환자용 모니터, 산소측정기 등을 간소화 품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의료용 물품과 의료기기에서 EAEU산 제품의 의무 사용비율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서는 시장 진출이 더 까다로워졌다.[241]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러시아 정부에서 외국계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2월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해외 의료용 제품 45종의 정부조달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242] 본 법령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입찰 참여 시, 원산지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EAEU 국가가 아닌 경우 정부조달 품목에서 제외한다.

표 5-22. 러시아의 외국산 의료용품 정부입찰 금지품목

구분	해당 품목
의료용 직물(4종)	의료용 의류, 수술복, 향균 휴지 등
의료장비(17종)	CT, X-ray, 심전도 기록기, 수혈기, 각종 측정 장비 등
각종 반응 키트(13종)	효소, 혈액, 고분자 등 각종 생체 정보 측정용 키트

자료: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9).

상기 품목은 대체로 외국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한 품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의료기기와 의료용 용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아로서는 자국이나 EAEU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대체로 외국시장에 조달 기회를 주지 않는 반면,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241) МЕДИТЭКС,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Итоги 2020 года”(2020. 12. 28),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4).

24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9).

는 불가피하게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외국산 입찰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이나 단독투자를 통해 반드시 EAEU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야만 공공입찰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벨라루스도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의료기기 분야에서 공공입찰의 영역이 매우 큰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입찰에서 벨라루스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의 경쟁을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표 5-23. 벨라루스 내 의료기기 생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실, 바늘, 호스, 캐뉼라(백만 개)	177.1	226.2	313.3	287.5	286.1
혈액투석기 및 투열성 장비(천 개)	13,013	12,833	211	190	274
의료용 피복, 수혈 및 마취장비(천 개)	13,007	14,358	11,082	8,808	10,204
수술용, 실험용 살균기(개)	20,591	5,544	18,119	21,429	21,812
컨택트 및 안경용 렌즈(천 개)	642	471	699	423	314

자료: National Statistical Commettee of the Republic of Belarus(2019), p. 251.

벨라루스의 의료기기 생산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주로 기본적인 의료기기 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정밀한 의료기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벨라루스에서 부상하는 분야는 임플란트 및 치과 기자재인데, 2019년 기준 전체 수입금액 약 2,000만 달러 중 한국산의 비중이 51%에 달할 정도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으며 치과기기/부자재(3D 덴탈스캐너, 브라켓, 기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243)]

EAEU에 대한 최근 한국의 의료기기 및 기자재 수출 동향은 다음과 같다.

2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 47.

표 5-24. 한국의 대EAEU 의료기기 및 기자재 수출

(단위: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내과 · 외과 · 치과 · 수의용 기기(9018)	54,875,384	77,575,624	88,951,249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범용기기(9019)	2,928,622	3,930,276	5,150,670
기타 호흡기, 가스마스크(9020)	13,344	37,486	76,514
정형외과용 기기(9021)	39,890,080	55,310,625	68,425,710
엑스선 기기, 촬영장치(9022)	15,717,522	27,511,467	36,730,585
합계	113,424,952	164,365,478	199,334,728

주: 괄호 안은 HS code를 나타냄.
자료: IHS Markit, DB 자료(검색일: 2021. 5. 19).

2017년 전체 수출금액은 1억 1,3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1억 6,4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2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도 감소하는 특정 품목 없이 대체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카자흐스탄의 의료 바이어들은 모니터링 장비, 맥박산소측정기, 흡인기(aspirator),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디지털 온도계,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 등의 수요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44]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시장의 기회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2018년부터 이행중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하에 있다. 본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R&D 강화 △수출 지원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의 제약산업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나[245] EAEU와의 협력 강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이 계획하는 신약 개발 R&D 활성화 및 연구 분야에서 러시아와 공동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 제

244) 「카자흐스탄 바이어에게 듣는 의료기기 시장동향」(2020. 10.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5).
245) 보건복지부(2017), pp. 26~93.

약 분야에서 러시아의 주요 정책과제도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에 있는 만큼, 양국이 접점을 찾아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신약 개발에 있어 러시아의 신약 물질이 풍부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수출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EAEU 제약시장의 적극적인 진출 기반 마련이다. EAEU의 제약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거점 설립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EAEU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우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제약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글로벌 invest fair 등에서 러시아와의 협업 추진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사안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하지만 제약 분야의 특성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드는 일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할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한국의 대EAEU 제약 산업 협력도 대체로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전망도 밝다.

표 5-25. 한국의 대EAEU 의약품 수출

(단위: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추출물로 장기요법용의 것(3001)	1,016,614	3,512,414	6,831,873
인혈, 치료용 · 진단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물품, 백신(3002)	5,483,299	7,677,926	8,801,688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제(3003)	2,578,516	1,663,022	2,296,673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3004)	14,482,899	13,662,596	10,693,959
탈지면 · 거즈 ·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3005)	1,597,503	1,617,410	1,776,982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3006)	7,515,418	8,288,919	9,413,222
합계	32,674,249	36,422,287	39,814,397

주: 괄호 안은 HS code를 나타냄.
자료: IHS Markit, DB 자료(검색일: 2021. 5. 19).

EAEU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2017년 3,26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3,642만 달러, 2019년에는 약 4,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향후 유망한 수출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체용 백신(30020)'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 품목의 대EAEU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5-26. 한국의 대EAEU 인체용 백신(30020) 수출

(단위: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러시아	-	98,577	595,984
벨라루스	513,821	15,990	708,227
카자흐스탄	432,200	354,420	167,634
아르메니아	259,300	246,912	8,400
키르기스스탄	-	252,000	431,520
합계	1,205,321	958,899	1,911,765

자료: IHS Markit, DB 자료(검색일: 2021. 5. 19).

국가별로는 금액의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9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EAEU 전체에 대한 수출금액이 200만 달러 가까이 되었다. 인체용 백신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 치료제인 「스푸트닉 V(Спутник V)」의 한국 생산이 시작되었고,[246]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다시 러시아로 수출되면서 성공적인 백신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EAEU의 공공조달 시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백신 분야에서 동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단기간의 시장 진입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약품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근 벨라루스의 법규 개정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는 2019년과 2020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자국 보건복지부가 공공조달하는 외국산 의약품의 원산지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

246)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начала производить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Спутник V'" (2020. 12. 0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15).

데, 개정 이전에는 한국산 의약품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통상 1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조달과정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247]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에 까다로운 장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의료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국가의 의료시장은 아직 다른 EAEU 국가들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KSP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과 EAEU 간 FTA 협상은 진행 중에 있지 않다. 2016년 양자간 민간 공동연구 및 결과 보고회 등을 가졌고, 2017년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에는 합의하였지만, 이후의 진행 과정은 지지부진하다. 다만 EAEU 회원국이자 중심국가인 러시아와 양자간의 서비스 분야 FTA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부각되는 양자간의 이슈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EAEU와의 FTA 추진 시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한국의 시각이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양자간 FTA 추진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측의 셈법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FTA 추진 초기부터 상품을 중심으로 한 FTA를 염두에 두었다. 즉 러시아, 나아가 EAEU라는 단일 시장에 대해 한국제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시장 중심(market oriented)'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한국의 이와 같은 방식은 대체로 한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견지했던 시각에 충실한 것으로 FTA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 21.

반면 러시아, 나아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같은 EAEU 회원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는 자국시장 보호라는 관점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 EAEU 국가들 모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나 적극적인 시장개방형 국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 추구에 익숙한 국가들이다. 과거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CIS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역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앞다투어 시행하면서 FTA의 효과를 희석시키기도 했다. 당연한 귀결로, 지역 내의 많은 FTA는 사문화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CIS 국가들은 FTA를 통한 수출확대보다는 자국시장 보호가 우선적인 과제임을 체득하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EAEU 출범 이후에도 발전의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회원국간 비관세장벽을 통한 자국시장 보호의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2015년부터 지속된 수입대체화 전략과 자국 산업 육성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인해 러시아로서는 단순한 상품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EAEU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국의 산업을 다각화하고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계기로 수입대체화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각 산업별로 단계적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7월 승인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제조업 발전전략'에서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수출확대라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2010년부터 5개년 단위로 계속되어온 '산업·혁신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제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벨라루스의 경우 소비에트 시대부터 발전해왔던 석유화학, 상용차, 기계 등

의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했으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EAEU 체제 내의 적극적인 편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의 협력은 EAEU의 가장 큰 시장인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기본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지방별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활용하되 IDF의 투자지원과 정부와의 특별투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러시아 이외 EAEU 국가와의 제조업 협력 역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명확하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 EAEU 내에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므로 EAEU에 참여한 소국을 통한 제조업투자는 품목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 가운데 있다. 많은 국가들이 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연관된 신산업 분야의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주요 EAEU 국가들도 산업화를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에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으나 신산업의 영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한국도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신성장 산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EAEU 모두 해당 관점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때, 양국이 상호협력을 통해 보완할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디지털 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근간이 되는 IT 소프트웨어와 응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더 포괄적으로는 수학, 물리, 기초과학 등에서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IT 하드웨어 부문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IT

기술을 응용한 하드웨어 제작기술 수준은 매우 높다. 따라서 양국이 디지털 경제 구축과 신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산업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EAEU와의 FT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러시아와 논의 중인 서비스 · 투자 FTA도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AEU 내에서 디지털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는 러시아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한-러 서비스 · 투자 FTA'를 EAEU와의 디지털 · 혁신산업 협력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간주하고 양국간 해당 분야 협력을 위한 밀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의료 · 보건 분야 협력은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EAEU 국가들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지만,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장비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국 내 주요 제약 생산이 미미하여 협력수요가 크다는 점 등이 의료 관련 시장에서 한국과의 향후 협력전망을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방역 및 보건 시스템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보건 · 의료 산업과 관련 분야의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의료서비스 협력 방식은 의료기관의 현지 의료기관 위탁경영 및 컨설팅이나 의료특구에 대한 직접 진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이 모스크바의 의료특구에 입주한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는 EAEU 국가들의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감안하면 공공입찰을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다만 공공입찰에서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외국산보다는 로컬제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최근 한국의 대EAEU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인체용 백신은 단기적으로 양국간 협력에 유망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표 5-27. 한국의 대EAEU 협력방안

협력 분야	EAEU 전체	개별 국가
디지털 경제, 신산업	• EAEU와의 디지털 협력 기초 합의문 채택 • 실무그룹 구성과 논의: 인적자원 및 디지털 플랫폼 협력 분야	• 러시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테크노폴리스를 활용한 기업 진출 • 벨라루스: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
제조업	• 현지 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의 협력방안 마련	• 러시아: 산업단지와 IDF 기금 활용 • 기타 소국: 러시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분야 선정(높은 비관세장벽 고려)
의료 · 보건 산업	• 현지 의료기관 위탁경영 및 컨설팅 • 2022년 EAEU 의료기기 공동인증에 대응	• 러시아: 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 신약개발 협력 • 벨라루스: 의료기기, 의약품 공공조달 참여, 백신 분야 수출 확대 •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KSP를 통한 의료 협력 기반 구축

자료: 저자 작성.

한-EAEU 간 산업협력에서 공동의 가치 추구를 촉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한 부문이다. EAEU 국가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제조업 역량을 확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공공기관 · 대기업이다. EAEU 국가들은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전통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정부부문의 관여가 높게 나타나는 데다가, 시장경제 도입 이후에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통계청의 2020년 1월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8년 기준 20.2%로, 2017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48] 선진국의 경우 대다수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체로 50%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러시아 경제의 대기업 편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

248) "Росстат зафиксировал снижение дол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в экономике"(2020. 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25).

로나 이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푸틴 4기 정권의 출범 시에도 이러한 편중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중소기업 육성이 포함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 2,5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사업 환경 개선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 △주요 고객을 위한 구매시스템 개선 △금융혜택에 대한 접근 간소화 △도시환경 개선, 과학기술, 사회, 환경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가속화 시스템 구축 △중소 수출업자 지원 시스템 현대화(비에너지 부문 비중 10% 이상 확대) △농민 지원시스템 구축 및 농업협력 발전 △새로운 세제혜택 도입 등의 과제가 실행 중이다. 카자흐스탄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프로그램과 보조금 지급 등의 노력을 계속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은 EAEU 국가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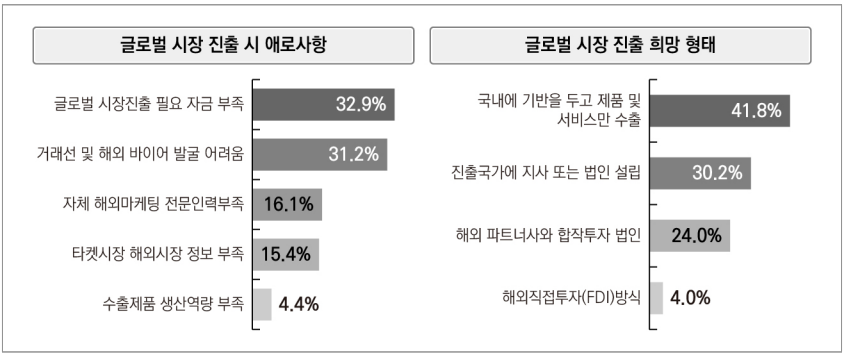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선진국 '추격' 전략을 통해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 경제체질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대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확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아닌, 기업 인수와 자체적인 투자 증대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은 점차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의 문제는 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EAEU FTA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이 과정에서 EAEU 국가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국간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기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기반을 마련한다면 중장기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해결책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EAEU를 단순한 상품 수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기업 진출 시 동반하는 형태의 진출이 아니라 현지 기업과 산업간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의 협력을 이루어낸다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상품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기업의 제품생산 가치사슬

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해당 산업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화에 따른 지역 가치사슬 재편이라는 추세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EAEU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우리와 산업 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베트남, 미국 등에 대한 산업의존도를 어느 정도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조직적 경험과 자금 및 인력이 충분치 않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의 56.2%는 해외 진출 시 단순히 국내 기반의 상품 판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출 국가에 직접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거나(30.2%), 해외파트너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24.0%),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방식(4%)으로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의사를 표명하였다.[249] 이러한 설문 결과는 과거처럼 완제품의 수출만을 염두에 두거나 대기업의 해외진출 시 동반 진출하는 방식의 비교적 소극적인 진출을 추진하던 중소기업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림 5-6.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희망 형태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2019. 8. 19).

24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2019. 8. 19).

또한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거래선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31.2%)과 △타겟으로 하는 시장정보의 부족(15.4%)이 거론되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면 해외 진출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과 현지 생산가치사슬 참여, 산업 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EAEU 간의 FTA 체결에 대한 구조적인 장벽이 점차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소련 해체 이후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1994~99)는 1994년 3월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 연합' 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1995년 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관세동맹에 대한 협정' 서명과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참여, 1996년 3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의 '경제 및 인문 분야에서 통합 심화에 대한 조약' 서명과 타지키스탄의 참여, 1999년 2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에 대한 조약' 서명까지 이어졌다. 1단계에서는 통합의 단계(관세동맹→단일경제공간)가 규정되고,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핵심 국가 그룹(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이 형성되었다.

2단계(2000~11)는 2000년 10월 EAEC 설립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9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단일경제공간 형성에 대한 협정' 서명과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탈, 2007년 10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단일관세영역 창설 및 관세동맹 형성에 대한 조약'과 '관세동맹위원회에 대한 조약' 서명,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의 형식적 작동 개시와 2011년 7월 완전한 작동 개시까지 이어졌다. 2단계에서는 비록 우크라이나가 참여했다가 이탈하기는 했지만, 핵심 국가 그룹의 참여하에 통합의 첫째 단계인 관세동맹 작동이 완료되었다.

3단계(2011~15)는 2011년 1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대한 조약'과 '유라시아경제통합에 대한 선언' 서명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단일경제공간 작동 개시, 2012~14년 3개국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EAEU 조약안 작성 회의, 2014년 5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EAEU 조약 서명과 해당 조약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2014년 10월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대한 조약' 서명과 2014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의 EAEU 가입에 대한 조약' 서명, 2015년 1월

EAEU 창설과 아르메니아의 가입, 같은 해 8월 키르기스스탄의 가입까지 이어졌다. 3단계에서는 핵심 국가 그룹의 참여하에 통합의 둘째 단계인 단일경제공간 형성에서 더 나아가, 탈소비에트 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경제연합체의 출범을 통해 통합의 셋째 단계인 경제연합 창설이 완료되었다.

EAEU의 기본원칙은 널리 인정되는 국제법원칙 존중, 회원국의 정치구조 특성 존중, 회원국들의 호혜적 협력과 국가이익의 평등 및 고려 보장, 시장경제 및 공정경쟁의 원칙 준수, 이행기 종료 후 예외 및 제한 없는 관세동맹 작동이고, 기본목표는 회원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 조건 조성, 상품 · 서비스 · 자본 · 노동자원의 단일시장 형성 추진, 국가 경제의 전면적 현대화와 협업 및 경쟁력 제고이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기본목표에 기초하여 EAEU 조약 및 EAEU 차원의 국제조약들이 설정한 범위 및 규모에서 EAEU는 권한을 부여받고, 경제의 기타 영역에서 회원국들은 EAEU의 기본원칙 및 기본목표에 따라 조화 또는 합의된 정책 실현을 추진한다. 현재 EAEU의 회원국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총 5개국이고, 옵서버는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 총 3개국이다. EAEU의 기관으로는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 회원국 정부 수반들로 구성된 '유라시아정부간이사회', 회원국 정부 부수반들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회원국의 동등한 대표성 원칙에 따라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회원국이 2명씩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된 'EAEU 법원'이 있다.

EAEU는 현재 EU 다음으로 높은 통합 수준에 있는 통합체 중 하나로서 통합 및 거시경제, 금융, 산업, 무역, 디지털화, 관세 협력, 경쟁 및 반독점규제, 기술규제, 에너지 및 교통 분야 등에서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첫째, 회원국 가입 및 옵서버 지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고, 통합과정의 향후 발전 지향을 제시했으며,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정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공동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과 회원국들의 법률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유라시아 공작기계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고, 러시아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차원의 프로젝트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허용했으며,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협업을 위한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을 조성했다. 넷째, 베트남, 이란, 세르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무역·경제협정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협력협정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다섯째, 'EAEU 디지털 의제'를 설정한 데 이어 'EAEU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 'EAEU 관세법'을 새로 제정하고, 효율적인 관세 협력을 위해 '통관단일창구' 메커니즘과 EAEU 관세영역 내 상품 추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일곱째, 경쟁의 공통 원칙 및 규칙 준수에 대한 통제 방식을 규정했고, 경쟁 분야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분야별 시장에서 경쟁에 대한 연구 및 조치도 수행하고 있다. 여덟째, 2016~19년 추가로 13개 기술 규제를 채택하고, 2016~17년 추가로 9개 기술 규제 표준 목록을 채택했으며, 정기적으로 표준 혁신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홉째, 공동전력시장, 석유·석유제품 공동시장, 가스 공동시장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통합된 교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경제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무르고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탈소비에트 지역의 유일한 경제통합체로서 인구 약 1억 8,000만 명, GDP 약 2조 달러를 포괄하면서 지난 6년간 경제통합을 진전시켜온 EAEU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한국의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2019년 기준 EAEU의 역외 무역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다음으로 결코 작지 않으며, 한국과 EAEU 간 무역액은 비록 2019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5~18년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EAEU의 역외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광물제품, 역외 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계 · 장비 · 교통수단, 화학제품인데, 이 품목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및 수출 품목인바, 한국과 EAEU 간 무역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EAEU와의 무역 확대는 무역상대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EAEU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간절하다. EAEU 회원국들은 지난 6년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왔고, 이미 한국기업들도 주로 제조업에 투자하면서 현지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EAEU는 각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규제 표준화를 통해 단일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 분야에서 기술 개발, 디지털 경제 발전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AEU 차원의 경제통합 심화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에서 입지를 확보한 수많은 한국기업에 시장 및 가치사슬 확대, 물류 루트 다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역시 한국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담보된다면 EAEU 차원의 공동시장은 물론, 합의된 또는 단일한 경제정책, 기술 규제 및 표준화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가. 한-EAEU 경제협력 전략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은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의도적인 대규모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의 실행보다는 민간 주도 및 시장 주도의 자율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적 간섭(functional intervention)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동 경제협력 전략의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안한다.

나. 현재 시장에서의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

GVC 분석에 의하면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산업협력 중점 분야는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산업군은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 산업군의 수출이 유발하는 EAEU의 대한국 수출 산업이다. 광물, 코크 · 정유 · 핵연료, 금속, 도매, 육상운

송이 그 예이다(케이스 1). 둘째 산업군은 한국의 내수로 소비되기 위해 수입되는 산업으로 1차 산품이 대표적이고 광물과 코크 · 정유 · 핵연료도 이에 해당된다(케이스 2). 셋째 산업군은 주로 EAEU 권역에서 소비되기 위해 한국이 수출하고 EAEU가 수입하는 산업으로 수송기기, 전기전자 · 광학, 화학 · 제약, 금속, 섬유 · 의류 및 가공식품이다(케이스 3).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① 동 산업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제고 및 관련 정보 제공이다. ②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및 현지 운영 관련 장애요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부간 협력 및 소통 체계의 제도화 노력이다. 특히 현지 투자 및 현지 운영 장애요인 영역에서 투명성 제고, 법의 지배, 거버넌스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대 EAEU 수입품(케이스 1산업)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 등 EAEU로부터의 광물 등 중간재 수입관세 인하는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러시아 등 EAEU의 對한국 수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수입 관세율이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라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셋째, EAEU의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 또한 필요하다. EAEU는 자원 및 에너지 산업 편중적인 산업구조, 제조업의 낮은 발전 및 수입대체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과 자유무역질서 체계에서의 성장이라는 장기 산업 발전 전략에 이르지 못하고 단기적인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세인하가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탈피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에 대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 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하는 것도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고양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 권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 미래 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

[표 5-27]은 'creating the winners'의 시각에서 그리고 세분화된 산업에서의 중소형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중점 협력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요약 · 정리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디지털 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근간이 되는 IT 소프트웨어와 응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IT 하드웨어 부문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디지털 경제 구축과 신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재 EAEU 국가 경제에서 공공-대기업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국가들은 민간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하는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또한 경제체질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중소기업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한국 중간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기업의 제품생산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방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 가치사슬 재편이라는 추세에 참여하면서 양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EAEU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육성정책과 수입대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조업 육성의 방향성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즉 러시아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기타 국가들은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의 공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제조업 협력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러시아와의 제조업 협력 방안으로 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생산공정 자동화 등 생산 전 과정에서의 산업협력을 제안한다.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으로는 한국의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하는 방안 및 한국시장에서는 활용 폭이 좁은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의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라.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별 개방도 확대의 FTA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EAEU 간의 수준 높은 FTA가 달성될수록 더 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수송기기, 가공식품,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곡물산업은 다소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의 대부분은 러시아와의 상품분야 개방을 통해 달성된다. 한국은 EAEU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는 개별적으로 상품분야를 제외한 다소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EAEU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를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FTA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개방도가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향후 재협상을 통해 개방도를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재협상 단계에서 협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방을 추구하기보다는 국가간 협력을 연계하여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FTA 추진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방이익 극대화보다는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 및 그로 인한 긍정적 경제효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한-EAEU FTA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CGE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곡물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비교우위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 예를 들면 수송기기 분야에서 기술지원 협력을 제공하여 EAEU 국가의 뒤처진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라나는 반대급부로 FTA를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1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 투자 분야의 논의에서 시작하여 상품시장 개방까지의 중장기적인 FTA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협상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두 국가의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략적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한-러 서비스 · 투자 FTA를 EAEU와의 디지털 · 혁신산업 협력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간주하고 양국간 해당 분야 협력을 위한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연관된 디지털 ·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도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상품 부문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대한 FTA 단계로 이행하는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2021 벨라루스 진출전략』.

박정호, 염동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2017a.『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7b.「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호, 정민현, 강부균, 정동연, 김초롱, 제성훈, 세르게이 루코닌, 예카테리나 자클랴즈민스카야. 2019.『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지원. 2016.「신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 Global Strategy Report 16-0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_____. 2018.「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평가와 대내외 과제」.『중소연구』, 제42권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_____. 2019a.「러시아 시장환경과 경제협력: 의료기기」. Global Market Report 19-0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_____. 2019b.「유라시아경제연합과 디지털경제: 경제연합의 촉매요인 분석」.『중소연구』, 제43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_____. 2020.「한·러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신모델 구축: 화학·제약산업을 중심으로」. Global Strategy Report 20-0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건복지부. 2017.『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8.『조선산업 발전전략』.

윤성학. 2018.「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주요 쟁점과 추진전략」.『Acta Russiana』, 제10호.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이재영, 곽성일, 이철원, 민지영, 제성훈, P. Kadochnikov, E. Gherman, E. Rogatnykh, A. Knobel, T. Aliev, A. Sokolyanskaya. 2015.『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 2017.『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수, 이홍식, 강문성, 김한성, 송백훈. 2018.『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수. 2019.「한-아세안 GVC 무역의 특성과 시사점」.『국제통상연구』, 제24권 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재원. 2020.「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KERI Insight』, 20-02. 한국경제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중소벤처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동향분석 결과」. 보도자료. (8월 19일)

최정희. 2020.「카자흐스탄 보건의료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KHIDI 보건산업 브리프 No. 3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GHKOL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사례집』.

[영문 자료]

Aguiar, A., E. Corong, and R. McDougall. 2019. "Guide to the GTAP Data Base, Chapter 2 in the GTAP Data Base: Version 10." *Journal of Global Economic Analysis*, 4(1).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Oxford University Press.

Armington, P. S.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Staff Papers, 16(1).

Association of Industrial Parks. 2019. "Industrial Parks of Russia Issue 6."

Chang, H., H. Pack, S. Parker, D. Perkins, and M. Woo-cumings. 1999. "Industrial Policy and East Asia -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 University of Cambridge.

Dragneva, Rilka and Kataryna Wolczuk. 2017. *The Eurasian Economic Union: Deals, Rules and the Exercise of Power*. Chatham House.

Fitch Solutions. 2020. "Russ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3.

_____. 2021a. "Belaru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1.

_____. 2021b. "Kazakhsta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Q1.

_____. 2021c. "Russia Pharma & Healthcare Sector 2020/2021." *EMIS Insights Industry Report*.

Francois, J. F. and K. A. Reinert. 1997.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A Handboo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7.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7~2022."
_____. 2019.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ITU. 2017.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Vol. 1.
Jones, L. and I. Sakong. 1980.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Massachusettes: Harvard University Press.
Kolomeytseva, Angelina. 2020. "Industrial growth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manufacturing output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EAEU)." UNIDO,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3.
Kovaleva, Valentina Danilovna, Lilia Fedorovna Suhova, Zarema Ruslanovna Kochkarova, Mikhail Gennadevich Rusetskiy, and Viktoriya Ivanovna Bykova. 2018. "Eurasian Economic Intergation: Problems and Prospects." *Academy o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Issue 4.
Lall, S. 1994. "Does the Bell Toll for Industrial Policy?" *World Development*, Vol. 22, No. 4.
Lorenz, D. 1993. "Europe and East Asia in the context of regionalization: theory and economic policy."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4, No. 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KDI. 2017.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 with Kazakhstan: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Kazakhstan: Focusing on the Housing Guarantee System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ajman, Boris, Richard Pomfret, Gael Raballand, and Patricia Sourdinp. 2005. "How are Oil Revenues redistributed in an Oil Economy? The Case of Kazakhstan." The University of Adelaide Working Paper 2005-18.
National Statistical Commettee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19.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Belarus."
Navas-Sabater, Juan and Oleg V. Petrov. 2018. "The EAEU 2025 Digital Agenda: Prospects and Recommendations." *Overview Report*. The World Bank.
Nazarbayev, N. A. 2012. "STRATEGY KAZAKHSTAN 2050: NEW POLITICAL

COURSE OF THE ESTABLISHED STATE."
Shoven, B. and J. Walley. 1992. *Applying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Kyrgyz Republic. 2018a. "Development Program of the kyrgyz Republic 'Unity, Trust, Creation' for the period 2018-2022."
_____. 2018b.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2018-2040."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of Belarus. 2004.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eriod to 2020 of the Republic of Belarus."
The World Economic Forum. 2018. "Readiness for the Future of Production Report 2018."
Voronina, T. V., N. N. Yevchenko, A. B. Yatsenko, and D. M. Madiyarova. 2018. "Peculiarities of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of Economie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States."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 Vol. 11(2).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ng, Z., S.-J. Wei, and K.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 No. 19677.
Wonnacott, P. and M. Lutz. 1989. "Is there a case for free trade areas?" In J. Scott ed.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14. *Doing Business 2015.*
_____. 2019. *Doing Business 2020.*
Yeliseyeu, Andrei. 2019.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xpectatio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노문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2014.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 еский союз.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Цифры и факты.*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_____. 2019. *5 лет Евразийск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юзу*. Деловой экспресс.

_____. 2020a.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АЭС в январе-декабре 2019 года."

_____. 2020b.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в цифрах: крат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 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_____. 2014. "Развитие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мышл енности, на 2013 - 2024 годы."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7. "Цифровой Казахстан."

Петросьян, А. Р., В. С. Перебоев, А. В. Кузнецов, А. М. Ахунбаев, Т. Ш. Дауранов, А. Е. Чкония, А. А. Сухова, В. Ю. Саламатов, Д. Ю. Антонова, Е. К. Башкирова, М. А. Воробьев, Р. М. Губенко, Е. С. Князькина. 2019.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2019*. ЦИИ ЕАБР.

Пивовар, Е. И. ed. 2018.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постсовет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 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ыпуск I. Украинистика*.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 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20 - 2025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7a.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 № 1632-р.

_____. 2017b.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_____. 2020. "СВОД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5-2019 годы и о внесении дополнения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9 марта 2010 года № 95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Шаукенова, З. К., С. К. Кушкумбаев, М. Т. Лаумулин, А. К. Назарбетова, Г. А. Бимаганбетова, А. А. Арзикулов eds. 2019. *25 лет идеи евразий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Н.А. Назарбаева (в оценках экспертов КИС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Казахста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온라인 자료]

「대전 선병원, 벨라루스에 2조 2천억 규모 의료시스템 수출 쾌거」. 2015. 『국민일보』. (3월 23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264755(검색일: 2021. 1. 13).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https://www.erdc.ru(검색일: 2021. 1. 13).

문화체육관광부. 2017.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3월 29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61(검색일: 2020. 11. 25).

「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에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 2018. 『Medical Observer』. (6월 25일).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01(검색일: 2021. 1. 13).

「카자흐스탄 바이어에게 듣는 의료기기 시장동향」. 2020. 『kotra 해외시장뉴스』. (10월 26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5348(검색일: 2021. 1. 15).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 높아졌다」. 2020. 『경향신문』. (9월 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32210005(검색일: 2021. 2. 5).

「한-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 통해 정보화협력」. 2014. 『시작정보통신신문』. (9월 25일).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52(검색일: 2020. 11. 25).

「SK하이닉스, 소프텍 벨라루스 펌웨어 사업부 인수」. 2014. 『SK하이닉스 뉴스룸』. (6월 5일). https://news.skhynix.co.kr/921(검색일: 2020. 11. 25).

"Aqkol becomes first smart city in Kazakhstan." 2019. *Astana Times*. (January 18). https://astanatimes.com/2019/01/aqkol-becomes-first-smart-city-in-kazakhstan(검색일: 2020. 11. 20).

Asian Development Bank. 2020a. "MRIO 2018 (constant)." MRIO.adbx.online (검색일: 2021. 1. 12).

_____. 2020b. "MRIO 2008 (constant)." MRIO.adbx.online(검색일: 2021. 1. 12).

Astana Technopolis. http://technopolis.kz/en/projects/residents/(검색일: 2020. 11. 21).

Belarus Government. https://www.belarus.by/en/business/brands-of-belarus(검색일: 2020. 12. 11).

"Belarus's Role in East European Energy Geopolitics." 2020. *Jamestown Foundation.* (January 31). https://jamestown.org/program/belarus-role-in-east-european-energy-geopolitics(검색일: 2020. 12. 10).

Belmedpreparaty. https://www.belmedpreparaty.com/factory/(검색일: 2021. 1. 11).

"China's FTA with the EAEU Will Improve Market Access, EU Transhipments." 2018. *China Briefing*. (May 17).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s-fta-eaeu-will-improve-market-access-eu/(검색일: 2021. 2. 5).

"China's Geely targets Russian market with new Belarus plant." 2017. *Reuters*. (November 18). https://uk.reuters.com/article/us-china-belarus-autos/chinas-geely-targets-russian-market-with-new-belarus-plant-idUSKBN1DH23F(검색일: 2020. 12. 22).

"Eurasian Economic Union: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2018. *New Eastern Europe.* (January 9). https://neweasterneurope.eu/2018/01/09/8767/(검색일: 2021. 2. 5).

"Eurasian Union's digital dream derailed." 2019. *Eurasianet*. (December 18). https://eurasianet.org/eurasiian-unions-digital-dream-derailed (검색일: 2020. 11. 14).

"Greater Eurasia Five Years 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Action." 2019.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May 10). https://russiancouncil.ru/en/blogs/GreaterEurasiaEnglish/five-years-on-the-eurasian-economic-union-in-action/(검색일: 2021. 2. 5).

Great Stone. https://www.industrialpark.by/rezidenty.html(검색일: 2020. 12. 22).
Hi-Tech Park. https://www.park.by/(검색일: 2020. 11. 25).
"How Russian Manufacturers Can Access China, India and The EU Markets Via The EAEU Free Trade Agreements." 2019. *Russian Briefing.* (September 20).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n-manufacturers-can-access-china-india-eu-markets-via-eaeu-free-trade-agreements.html/#print(검색일: 2021. 2. 5).
"Kazakhstan mull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Azernews.* (February 3). https://www.azernews.az/region/161227.html(검색일: 2020. 11. 20).
"Kazakhstan's K-cell Adopts AI-based Voice Robot for Customer Service." 2019. *The Fast Mode.* (July 22). https://www.thefastmode.com/technology-solutions/15159-kazakhstans-kcell-adopts-ai-based-voice-robot-for-customer-service(검색일: 2020. 11. 20).
"Kazakhstani railway rails 'charted the way' to Russia." 2020. Baiterek. (September 15). https://www.baiterek.gov.kz/en/pr/news/kazakhstani-railway-rails-charted-the-way-to-russia(검색일: 2021. 5. 19).
Markotkin, Nikolai and Elena Chernenko. 2020.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 *Carnegie Moscow Center.* (August 5). https://carnegie.ru/commentary/82422(검색일: 2020. 11. 25).
Naftan. http://www.naftan.by/en/about.aspx(검색일: 2020. 12. 10).
NTI 2035. https://rvc.ru(검색일: 2020. 11. 21).
Numbeo. "Health Care Index by Country 2020 Mid-Year." https://www.numbeo.com/health-car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20-mid (검색일: 2021. 1. 7).
Stat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17.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Belarus is in line with world trends, by Alexander Shumilin." http://gknt.gov.by/en/news/2017/development-of-digital-economy-in-belarus-is-in-line-with-world-trends-by-alexander-shumilin/(검색일: 2020. 11. 27).
The Institute of Smart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issai.nu.edu.kz/about/(검색일: 2020. 11. 20).
The Republican Scientific and Practical Center of Medical Technologies,

Informatiza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of Public Health. "Project 'Modernization of the Healthcare System of the Republic of Belarus'." http://belcmt.by/en/WB_Project/WB_Project(검색일: 2021. 1. 11).

The World Bank. 2019. "The Kyrgyz Republic to Gain Better Primary Health Care, with World Bank Support."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9/06/07/kyrgyz-republic-to-gain-better-primary-health-care(검색일: 2021. 1. 11).

"There Goes the Neighborhood: The Limits of Russian Integration in Eurasia." 2020.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eptember 16). https://carnegieendowment.org/2020/09/16/there-goes-neighborhood-limits-of-russian-integration-in-eurasia-pub-82693(검색일: 2021. 2. 5).

VAMED. https://www.vamed.com/de/kontakt/standorte/(검색일: 2021. 1. 13).

Байтерек Холдинг. https://www.baiterek.gov.kz/ru(검색일: 2020. 12. 16).

"В Казахстане резко вырос рынок облачных сервисов." 2019. *Курсив.* (October 9). https://kursiv.kz/news/hi-tech/2019-10/v-kazakhstane-rezko-vyros-rynok-oblachnykh-servisov(검색일: 2021. 1. 21).

"Декларация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амках ЕАЭС от 6 декабря 2018 г."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420213/ms_10122018(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Белоруссия, Республикой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об углуб лении интеграци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ях." http://docs.cntd.ru/document/1901125(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прекратил действие с 01.01.2015 на основ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оговора от 29.05. 2014)." http://docs.cntd.ru/document/902315502(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 октября 2019 года)." http://docs.cntd.ru/document/420205962 (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Подписан в г. Астане 29.05.2014) (ред. от 01.10.2019)."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63855/(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подписан в г. Душанбе 06.10.2007) (ред. от 09.12.2010)."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93363/(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прекращ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http://docs.cntd.ru/document/420227082(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присоединени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 Договору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 октября 2019 года)." http://docs.cntd.ru/document/420246571(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присоединении Республики Армения к Договору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4 апреля 2020 года)." http://docs.cntd.ru/document/420229250(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подписан в г. Душанбе 06.10.2007)."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93361/(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созда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docs.cntd.ru/document/1900462(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Таможенном кодекс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ocs.eaeunion.org/docs/en-us/01513569/itia_12042017(검색일: 2021. 2. 5).

"Договор о Таможенном кодексе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не действует с 01.01.2018 на основ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оговора от 11.04.2017)." http://docs.cntd.ru/document/902200991(검색일: 2021. 2. 5).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1999. "Договор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и Еди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February 26).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nontariff/Pages/Dogovor_26021999.aspx(검색일: 2021. 2. 5).

_____. 2013.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ЕЭК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центра «Астана»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 согласованному плану мероприятий." (August 13).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13-08-19-2.aspx(검색일: 2021. 2. 5).

_____. 2017. “Евразийский инжиниринговый центр по станкостроению будет создан на площадке МГТУ «СТАНКИН» в Москве.” (May 17).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17-05-2017.aspx(검색일: 2021. 2. 5).

_____. 2018a. “В ЕАЭС начал работу Сове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November 7).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07-11-2018-2.aspx (검색일: 2021. 2. 5).

_____. 2018b. “Главы национальных банков государств ЕАЭС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гармонизац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September 19).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19-09-2018-2.aspx(검색일: 2021. 2. 5).

_____. 2019a. “ЕАЭС и Сингапур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October 1).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01.10.2019-2.aspx(검색일: 2021. 2. 5).

_____. 2019b. “Стартовала совместная инициатива ЕЭК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антимонопольных органов ЕАЭС п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на рынках медицинской техники.” (Mach 4).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04-03-2019.aspx (검색일: 2021. 2. 5).

_____. 2019c. “Тимур Жаксылыков: «Реализация Соглашения о допуске брокеров и дилеров к участию в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торгах активизирует создание общего бирже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юза».” (October 8).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08-10-2019-1.aspx(검색일: 2021. 2. 5).

_____. 2020. “Тигран Саркисян: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страны ЕАЭС должны осуществлять вместе».” (January 31).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nae/news/Pages/31-01-2020-4.aspx (검색일: 2020. 11. 27).

_____.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Pages/structure.aspx(검색일: 2021. 2. 5).

Евраз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2020. “Экономические эффекты вступл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в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November 23). https://eabr.org/analytics/integration-research/cii-reports/

ekonomicheskie-effekty-vstupleniya-tadzhikistana-v-evraziyskiy-ekonomicheskiy-soyuz/(검색일: 2021. 2. 5).

"Евразийцы XXI века." 2014.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March 26). https://rg.ru/2014/03/26/evrazes-poln.html(검색일: 2021. 2. 5).

"ЕЭК одобрила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м допуске странами ЕАЭС к торгам брокеров и дилеров." 2020. *БелТА Беларуси.* (September 30). https://www.belta.by/economics/view/eek-odobrila-proekt-soglashenija-o-vzaimnom-dopuske-stranami-eaes-k-torgam-brokerov-i-dilerov-408780-2020/(검색일: 2021. 2. 5).

"Истор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евраз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Досье." 2014. *ТАСС.* (May 28). https://tass.ru/info/1222521(검색일: 2021. 2. 5).

МЕДИТЭКС. 2020.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Итоги 2020 года." (December 28). https://meditex.ru/news_all/Rossiyski yrynokmeditsinskikhizdeliyItogi2020goda/(검색일: 2021. 1. 14).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Международным финансовым центром«Астана» и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318209/ms_06072018 (검색일: 2021. 2. 5).

МИД России. 2015. "О ходе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July 30). https://www.mid.ru/ru/integracionnye-struktury-prostranstva-sng/-/asset_publisher/rl7Fzr0mbE6x/content/id/735764(검색일: 2021. 2. 5).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 форсированному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2010-2014 годы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указов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http://adilet.zan.kz/rus/docs/U100000958_(검색일: 2020. 12. 14).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ударс 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 охранения»." https://minzdrav.gov.ru/ministry/programms/health/info(검색일: 2021. 1. 7).

_____. 2011.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1 ноября 2011 г. № 323-ФЗ. https://minzdrav.gov.ru/documents/7025(검색일: 2021. 1. 7).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нновац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http://mic.gov.kz/en/news/national-digital-kazakhstan-programapproved-government (검색일: 2020. 11. 17).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digital.gov.ru/ru/activity/directions/858/(검색일: 2020. 11. 27).

"О 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http://docs.cntd.ru/document/902323713(검색일: 2021. 2. 5).

"О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е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товаров, работ, услуг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ужд." 201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N 44-ФЗ.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44624/(검색일: 2021. 1. 7).

"О Концепц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го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523308/err_02102019_20(검색일: 2021. 2. 5).

"О критериях оценки инициати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их проработки." http://docs.cntd.ru/document/551520032(검색일: 2021. 2. 5).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81842/(검색일: 2021. 1. 15).

"О Плане действий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docs.cntd.ru/document/902239605 (검색일: 2021. 2. 5).

"О Положении о статусе государства - наблюдателя при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527478/scd_16052018(검색일: 2021. 2. 5).

"О Порядке принятия в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новых

членов и прекращения членства в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58759/scd_19102015_25(검색일: 2021. 2. 5).
"О Порядке проработки инициати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docs.cntd.ru/document/555625961(검색일: 2021. 2. 5).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Республике Молдова статуса государства - наблюдателя при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517793/scd_16052018_9(검색일: 2021. 2. 5).
"О развит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9.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72738946/#ixzz6emZs58NF(검색일: 2020. 11. 23).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в рамках ЕврАзЭС." http://docs.cntd.ru/document/902198439(검색일: 2021. 2. 5).
"О Суде/Судьи." http://courteurasian.org/page-22601(검색일: 2021. 2. 5).
"О формате и структур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б инициатив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ocs.eaeunion.org/Pages/DisplayDocument.aspx?s={e1f13d1d-5914-465c-835f-2aa3762eddda}&w=9260b414-defe-45cc-88a3-eb5c73238076&l={8a412e96-924f-4b3c-8321-0d5e767e5f91}&EntityID=17079(검색일: 2201. 2. 5).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общего рынка газ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220196/scd_07122018_18(검색일: 2021. 2. 5).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общих рынков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220206/scd_07122018_23(검색일: 2021. 2. 5).
"О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igital.eaeunion.org/extranet/about/(검색일: 2021. 2. 5).
"Об Описании эталонной мод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ханизма «единого окна» в систем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https://docs.eaeunion.org/ru-ru/Pages/DisplayDocument.

aspx?s=e1f13d1d-5914-465c-835f-2aa3762eddda&w=9260b414-defe-45cc-88a3-eb5c73238076&l=8a412e96-924f-4b3c-8321-0d5e767e5f91&EntityID=21563(검색일: 2021. 2. 5).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этапах реализации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согласова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docs.cntd.ru/document/456056120(검색일: 2021. 2. 5).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механизма «единого окна» в систем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053891/scd_30052014_68(검색일: 2021. 2. 5).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58763/scd_19102015_28(검색일: 2021. 2. 5).

"Об основных ориентирах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на 2020 - 2021 годы."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526205/err_16062020_6(검색일: 2021. 2. 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мероприяти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этапов реализации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согласова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в части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2018-2020 годы." http://docs.cntd.ru/document/456085720(검색일: 2021. 2. 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мероприяти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этапов реализации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й (согласова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на 2018-2020 годы." http://docs.cntd.ru/document/555604403(검색일: 2021. 2. 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евразийск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латформ." http://docs.cntd.ru/document/420349133(검색일: 2021. 2. 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подачи в Евразийск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комиссию обращений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в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

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о фактам в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цено 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х рассмотрения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 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решений Коллегии Евразийско 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https://docs.eaeunion.org/ru-ru/Pages/DisplayDocument.aspx?s=%7Be1f13d1d-5914-465c-835f-2aa3762eddda%7D&w=9260b414-defe-45cc-88a3-eb5c73238076&l=%7B8a412e96-924f-4b3c-8321-0d5e767e5f91%7D&EntityID=20637(검색일: 2021. 2. 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проведения оценки последствий воздей ствия специальной защитной, антидемпинговой или компен сационной меры на конкуренцию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товар ном рынке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http://docs.cntd.ru/document/557414479(검색일: 2021. 2. 5).

"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 (рынок России)." 2020. *TAdviser.* (October 20). https://www.tadviser.ru/index.php/Облачные сервисы (рынок России)(검색일: 2021. 1. 21).

"Обязательное социа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2015.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6. ноября 2015 года № 405-V ЗРК. https://egov.kz/cms/ru/articles/health_care/osms(검색일: 2021. 1. 7).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http://www.eaeunion.org/?lang=ru#about-administration(검색일: 2021. 2. 5).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Нов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состоявшегося госуд арства." https://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4-dekabrya-2012-g (검색일: 2021. 5. 1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ограничения допуска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происходящих из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для целей осуществления закупок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нужд."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nd=102367173&rdk=(검색일: 2021. 5. 19).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17. "О развитии цифровой экон

омики." http://president.gov.by/ru/official_documents_ru/view/dekret-8-ot-21-dekabrja-2017-g-17716/(검색일: 2020. 11. 27).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00a. "Договор об учреждени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October 9). http://www.kremlin.ru/supplement/3402(검색일: 2021. 2. 5).
_____. 2000b. "Заявление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May 2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110 (검색일: 2021. 2. 5).
_____. 2003. "Соглашение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http://kremlin.ru/supplement/1715(검색일: 2021. 2. 5).
_____. 2010. "Декларация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December 9). http://www.kremlin.ru/supplement/802(검색일: 2021. 2. 5).
_____. 2011. "Декларация о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November 18). http://kremlin.ru/supplement/1091(검색일: 2021. 2. 5).
_____. 2015.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 сопряжен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яс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May 8). http://www.kremlin.ru/supplement/4971(검색일: 2021. 2. 5).
_____. 2018.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2024 года." (May 7).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7425 (검색일: 2020. 11. 27).
"Принятые технические регламенты."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texreg/tr/Pages/%D0%A2%D0%B5%D1%85%D0%BD%D0%B8%D1%87%D0%B5%D1%81%D0%BA%D0%B8%D0%B5%20%D1%80%D0%B5%D0%B3%D0%BB%D0%B0%D0%BC%D0%B5%D0%BD%D1%82%D1%8B%20%D0%A2%D0%B0%D0%BC%D0%BE%D0%B6%D0%B5%D0%BD%D0%BD%D0%BE%D0%B3%D0%BE%20%D1%81%D0%BE%D1%8E%D0%B7%D0%B0.aspx(검색일: 2021. 2. 5).
"«Приходите к нам лечиться»: в Сколково открываются филиалы

известных зарубежных клиник Подробнее." https://stroi.mos.ru/interviews/prikhoditie-k-nam-liechit-sia-v-skolkovo-otkryvaiutsia-filialy-izviestnykh-zarubiezhnykh-klinik?from=cl(검색일: 2021. 5. 19).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я евразийского союза государств." 2016. *ЕВРАЗИЙСКАЯ ИНТЕГРАЦИЯ: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политика.* https://www.eijournal.ru/jour/article/view/85/70(검색일: 2021. 2. 5).

"'Протокол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в ча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го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одписан в г. Нур-Султане 29.05.2019)."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325812/(검색일: 2021. 2. 5).

"'Протокол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Договор о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юзе от 29 мая 2014 года' (Подписан в г. Москве 15.03.2018)."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293298/3d0cac60971a511280cbba229d9b6329c07731f7/#dst100007(검색일: 2021. 2. 5).

"Решение Высше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от 11 октября 2017 г. № 12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еализации цифровой повестк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до 2025 года'." https://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71708158/(검색일: 2021. 2. 5).

"Реш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ЕврАзЭС от 5 июля 2010 г. № 48 'О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второго этапа формирования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в рамках ЕврАзЭС'." https://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12077066/(검색일: 2021. 2. 5).

"Реш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от 23 мая 2000 г. N 77 О соз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ов уста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предложений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на базе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http://base.garant.ru/1155689/(검색일: 2021. 2. 5).

"Росстат зафиксировал снижение дол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в экономике."

2020. *Лента*. (January 28). https://www.rbc.ru/economics/28/01/2020/5e2eda219a79473c798d3692(검색일: 2020. 12. 25).

"С 1 января 2012 года вступят в силу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нап равленны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Еди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 р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Росси 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consultant.ru/law/hotdocs/16255.html/(검색일: 2021. 2. 5).

"'Соглашение о механизме прослеживаемости товаров, ввезенных на тамож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Заключено в г. Нур-Султане 29.05.2019)."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325804/(검색일: 2021. 2. 5).

"'Соглашение о порядке защиты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ее разглашение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Евра 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полномочий по контролю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единых правил конкуренции' (Заключено в г. Москве 12.11.2014)."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71018/(검색일: 2021. 2. 5).

"'Соглашение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Беларусь' (Заключено в г. Минске 06.01.1995)."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5906/(검색일: 2021. 2. 5).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 товарах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еревозки, перемещаемых через таможенные границы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https://docs.eaeunion.org/docs/en-us/01522104/iatc_17062019(검색일: 2021. 2. 5).

"Соглашение стран СНГ от 20.01.1995 'О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6257/(검색일: 2021. 2. 5).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и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товарами." http://eec.eaeunion.org/ru/act/integr_i_makroec/dep_stat/tradestat/Pages/default.aspx(검색일: 2021. 2. 5).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https://minprom.ru/publikacii/tamozhennyj-soyuz/(검색일: 2021. 2. 5).

"Утвержденные перечни стандартов и изменения в них."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texreg/standart/Pages/YtvPerechni.aspx(검색일: 2021. 2. 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декабря 2014 г. N 488-ФЗ.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base.garant.ru/70833138/1b93c134b90c6071b4dc3f495464b753/(검색일: 2020. 12. 8).

Фонд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https://frprf.ru/?to_desktop=Y(검색일: 2020. 12. 16).

Цифровой Казахстан. https://digitalkz.kz/about-the-program(검색일: 2020. 11. 17).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начала производить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Спутник V'." 2020. *РИА Новости.* (December 4). https://ria.ru/20201204/vaktsina-1587601830.html(검색일: 2021. 1. 15).

"Яндекс представил беспилотный Hyundai Sonata." 2020. *IXBT.COM.* (June 2). https://www.ixbt.com/news/2020/06/02/jandeks-predstavil-bespilotnyj-hyundai-sonata.html(검색일: 2020. 11. 21).

[DB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https://www.belstat.gov.by/(검색일: 2020. 12. 10).

아르메니아 통계청. https://www.armstat.am/en/?nid=546(검색일: 2020. 12.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21. 2. 5).

IHS Markit. http://ihsmarkit.com/index.html(검색일: 2021. 5. 19).

K-stat.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1. 2. 5).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1. 2. 5).

Executive Summary

The Evaluation of the Integrating Process of the EAEU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and EAEU

Chang Soo Lee, Jiwon Park, Backhoon Song, and Sung Hoon Jeh

1. Evalu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AEU

The results of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AEU are as follows: first, the EAEU has creat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s an economic integrator. Second, the EAEU has enacted new tariff law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creating a common market in finance, electricity,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ga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Third,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EAEU began to emerge as GDP and trade volume increased since 2017 gradually. Fourth, the EAEU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or trade and economic treaties with several non-member countries. Notwithstanding these achiev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EAEU are as follows: first, the EAEU has structural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a trans-national economic integrator. Second, due to the EAEU's low level of tariff harmonization, it remains in a "limited customs union," and the complete single market of the EAEU has not yet been visible. Third, the limitations in Russia's

leadership have weakened the drive for the integration of the EAEU. Fourth, the protective features of the EAEU result in poor performance in economic integration.

Considering thes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AEU, the prospects for developing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AEU will be as follows: first, it is unlikely that the EAEU will be dissolved, but it is difficult for the EAEU to achieve a high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If the common market is fully operational, the government procurements could be activated, and macroeconomic stability could be maintained, and regional trade could be further promoted. Third, to strengthen the macroeconomic potential, it would be required of the enlargement of EU with securing new member states. South Korea is pushing for a "New Northern Policy"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former Soviet countries. Therefore, the EAEU is believed to become a partner in developing and diversifying trade, and creating new growth engines for Korea.

2. Strategy and measures for Korea-EAEU economic cooperation

1) Korea-EAEU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This report proposes a private and market-driven strategy as the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and EAEU. It suggests identifying and supporting the industrial cooperation-focused areas in the current market, selecting and supporting future-oriented industrial cooperation, and promoting Korea-EAEU FTA.

2) Cooperation plan in areas focused on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current market

Korea's major export industries are already showing results in the market, including the EAEU vertical division (minerals, coke, oil, nuclear fuel, metals, etc.) and industries imported from other regions and consumed as domestic demand in both regions. In other words, market-led and private-led trade cooperation structures and systems are working, so they were selected as the focus areas for industrial cooperation in Chapter 3.

The measures to strengthen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se industrial group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constraints of trade potential in both regions and institutionalize communication systems. Second, it is suggested to make efforts to reduce tariffs on Korea's imports of EAEU and EAEU's imports of Korea. Third,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projects to transfer export capabilities of EAEU countries, support projects to revitalize trade sources such as customs and strengthen market economy capabilities by utilizing existing ODA programs.

3) Future-oriented industrial cooperation areas and cooperation measures

EAEU countries are currently facing the challenges of growing their economies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fostering a digital economy and new industries in line with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Korea, a country with already achieved industrialization, needs to strengthen industrial cooperation with

EAEU countries for a cooperative partnership to grow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acing limitations in the domestic market.

Besides, fostering the digital economy at the overall level of the EAEU is a critical task.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eading countries within the EAEU, such as Russia, it is necessary to build a digital economy infrastructure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industrial ecosystem in various fields in self-driving cars,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cloud.

In the recent Covid 19 pandemic, cooperation in the medical and health sectors has become more critical than ever. Considering the high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medical system, medicine, and medical device markets in EAEU countries, the outlook for Korean medical institutions' management consulting, consignment management, and medical device and drug exports is bright.

4) Strategies and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Korea-EAEU FTA

Considering the environment of the two countries'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push for the Korea-EAEU FTA in a direction that benefits each other through phased discussions.

According to a CGE study, the effect of the FTA will slightly increase Korea's GDP, but the impact of each industry is different. If the Korea-EAEU FTA goes into effect, the damage to the Korean grain industry is the biggest,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metal, electricity, electronics, and machinery industries, especially among the manufacturing sector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the meat, processed food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tent of the FTA's

impact by dividing the service industry into wholesale and retail, transportation, health and welfare, and business services, the service industry's produc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general. Among EAEU countries, Russia and Kyrgyzstan's GDP increases, while Kazakhstan, Belarus, and Armenia's GDP decrease.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of EAEU countries is expected to decline, and precise cooperation measures in these areas need to be sought in future FTA or economic cooperation.

Taken together, the two should seek ways to cooperate through the FTA, as the Korea-EAEU FTA has no unilaterally favorable results for only one country. In particular,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formed to boost technical support, new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nd ODA in the highly competitive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and minimize damage to particular industries in Korea.

〈책임〉
이창수
호주국립대(ANU) 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교수
(現, E-mail: chslee@khu.ac.kr)

저서 및 논문

『한-아세안 GVC 무역의 특성과 시사점』(2019)
『인도와 한국의 GVC 무역의 특성과 신남방 정책 시사점』(2020) 외

〈공동〉
박지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지역학 박사(러시아 · 유라시아경제)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경제분과 전문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
(現, E-mail: nolmts@daum.net)

저서 및 논문

「우즈베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경제적 기대효과와 부정적 여파의 분석」(『러시아연구』, 제 30권 제 1호, 2020)
「코로나19 이후의 러시아 소비시장 트렌드: 저가시장 확대 및 온라인 활성화」(『슬라브연구』, 제 36권 4호, 2020) 외

송백훈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동국대학교 교수
(現, E-mail: bsong@dongguk.edu)

저서 및 논문

"Vertical Specialization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Journal of Korea Trade*, 2016)
"How does the duration of FTAs and BITs affect FDI attraction"(*Journal of Korea Trade*, 2019) 외

제성훈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 유라시아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現, E-mail: shjeh@hufs.ac.kr)

저서 및 논문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 · 중 · 러의 세계전략 연구』(공저, 2019)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공저, 2019) 외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0년

20-01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양평섭 · 이철원 · 나수엽 · 오태현 · 김영선 · 윤형준 · 강유덕

20-02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 · 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전환을 중심으로
정민현 · 민지영 · 정동연 · 김상환

20-03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 · 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상남 · 조영관 · 김영옥 · 염동호 · 김상현 · 박상준

20-0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이창수 · 박지원 · 송백훈 · 제성훈

■ 2019년

19-0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박정호 · 김석환 · 강부균 · 민지영 · 세르게이 발렌테이 · 예브게니 아브도쿠신 · 마르코 시디

19-02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 · 중 · 러의 세계전략 연구
제성훈 · 이혜정 · 김재관

19-03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양평섭 · 이철원 · 정재완 · 김진오 · 나수엽 · 박혜리 · 손성현 · 이효진 · 조영관

19-04 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 · 터키 협력방안 모색
이철원 · 이현진 · Mahmut Tekçe · Burcu Düzgün Öncel

19-05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 경제, 제도,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김신규 · 김상원 · 송병준 · 안상욱 · 이무성

19-06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해정 · 김성환 · 강성현

19-07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석환 · 민지영 · 백종훈 · 레 슈안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20-04

The Evaluation of the Integrating Process of the EAEU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and EAEU

Chang Soo Lee, Jiwon Park, Backhoon Song, and Sung Hoon Jeh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창설한 지 5년이 경과했다. EAEU의 통합과정 및 한-EAEU 간 무역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 및 발전 잠재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EAEU 경제협력 확대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6140-9
978-89-322-6119-5(세트)

정가 10,000원